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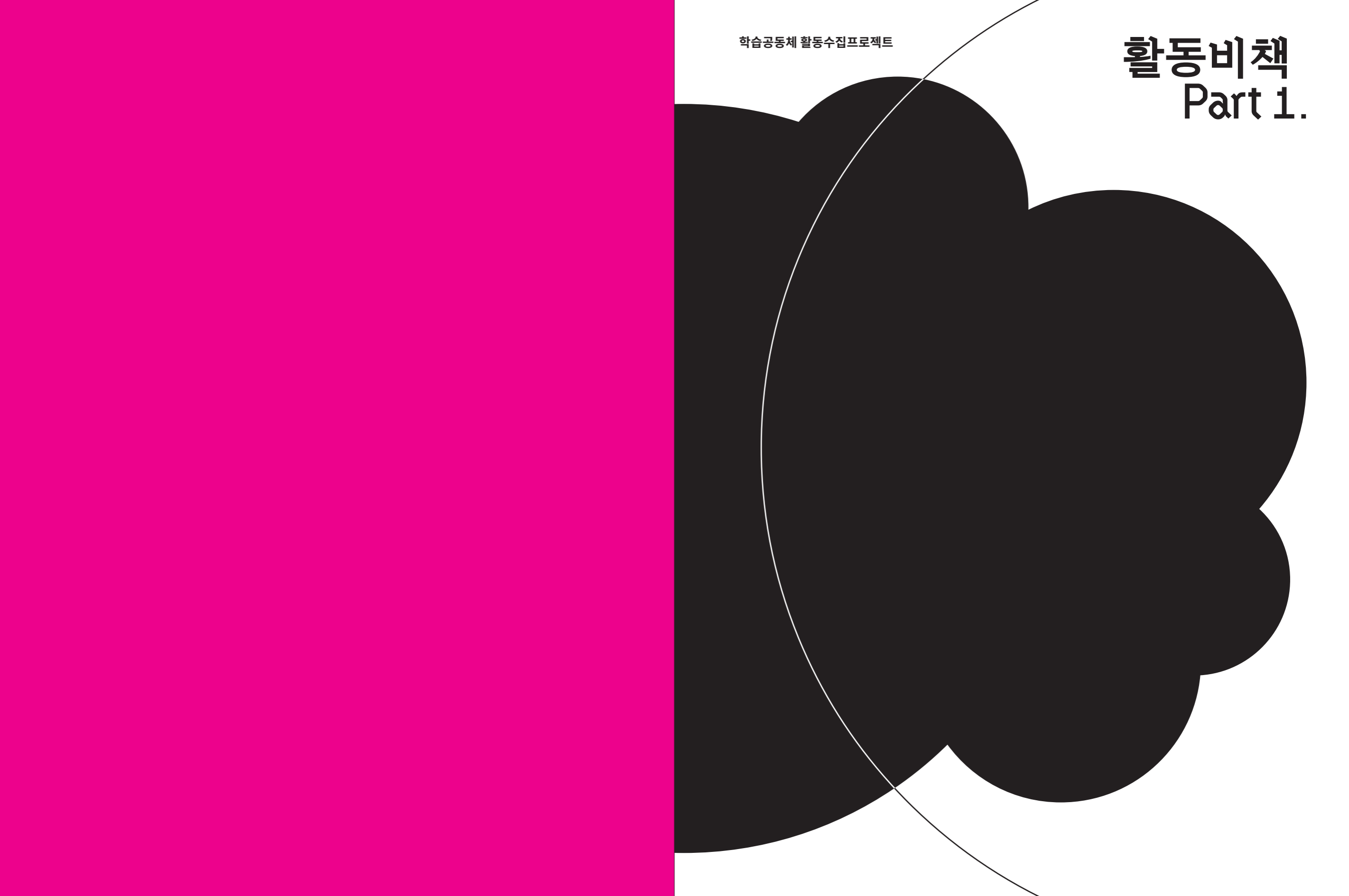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활동비책 Part 1.

학습공동체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활동수집 프로젝트

학습공동체 활동수집프로젝트

활동비책 Part 1.



목차

- 들어가며 7
이선옥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 학습공동체를 찾은 몇 개의 키워드 9
조혜미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시민문화팀 주임
- 학습공동체 활동수집프로젝트 10 - 17

- 학습공동체 활동의 면면 1 18 - 63
- 소소테이블 65 - 77
- 학습공동체 활동의 면면 2 79 - 128

- 학습공동체 공유테이블 활동비책 130 - 137
- [사업 공유회] 138 - 149
소심한 고민, 대범한 제언
- 에필로그 150 - 153
최윤주 소셜드림프로젝트 cococo 대표
이하윤 소셜드림프로젝트 cococo
- 부록 154 - 191
 1. 46개 모임으로 보는 학습공동체
 2. 관내 학습공동체 조사 현황 및 목록
 3. 활동수기공모이벤트 수상작 10편
 4. 학습공동체 활동 사진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라면, 문화도시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시민 스스로 문화도시를 그려보고 그 생각들이 모여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도시, 그래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문화가 되는 도시. 문화도시 수원은 돌봄과 배려, 존중과 환대의 정신으로 ‘서로를 돌보는’ 인문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문화적 해법을 찾아 나가는 ‘문제에 맞서는’ 인문도시를 추구합니다.

수원은 압축성장기를 거쳐 2002년 100만 도시로 팽창한 이후 20년 동안 광역시 규모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2022년 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시민 성장의 전환적 발판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문화도시 수원의 운명은 자율적인 시민들의 성장으로 도시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0만 시민들의 문화실현이 마을 단위 일상에서 시도되면서 시민 문화력이 강화되고, 자율적인 시민들의 대화와 실천이 모여 서로를 환대하고 포용하는 인문도시 수원. 사람의 무늬와 터의 무늬가 켜켜이 쌓이고, 다정한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살며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원은 학교’는 문화도시 수원의 비전인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주체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인재 양성 시스템이자, 도시 전체를 일상화된 배움과 도전, 창조의 공간으로 만드는 중장기 문화 형성 프로젝트입니다. 수원 곳곳에서 다양한 관심과 취향으로 함께 만나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학습하며 실천하는 시민들의 모임이 인문도시 수원을 만들어가는 인문클럽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학습공동체를 찾은 몇 개의 키워드

‘학습’ 사전적으로 학습은 ‘직간접적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각하고 인지하며 변화시키는 행동 변화’라고 정의한다. 일상에서 우리는 배우는 과정을 학습으로 통칭하는데 이 ‘배운다’에는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담겨있다. 이번 사업의 명칭으로 사용된 학습 또는 학습공동체는 계획되지 않은 배움과 경험의 공유,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와 그 주체 모두를 의미한다.

‘함께’ ‘나’ 이외에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우리는 활동(사적이든 공적이든)을 한다. 같은 관심과 취향을 공유하는 것,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서로가 있음에 안도하는 것, 무언가를 해보자 마음먹고 일어서는 것. 모든 것은 함께 하는 친구가 있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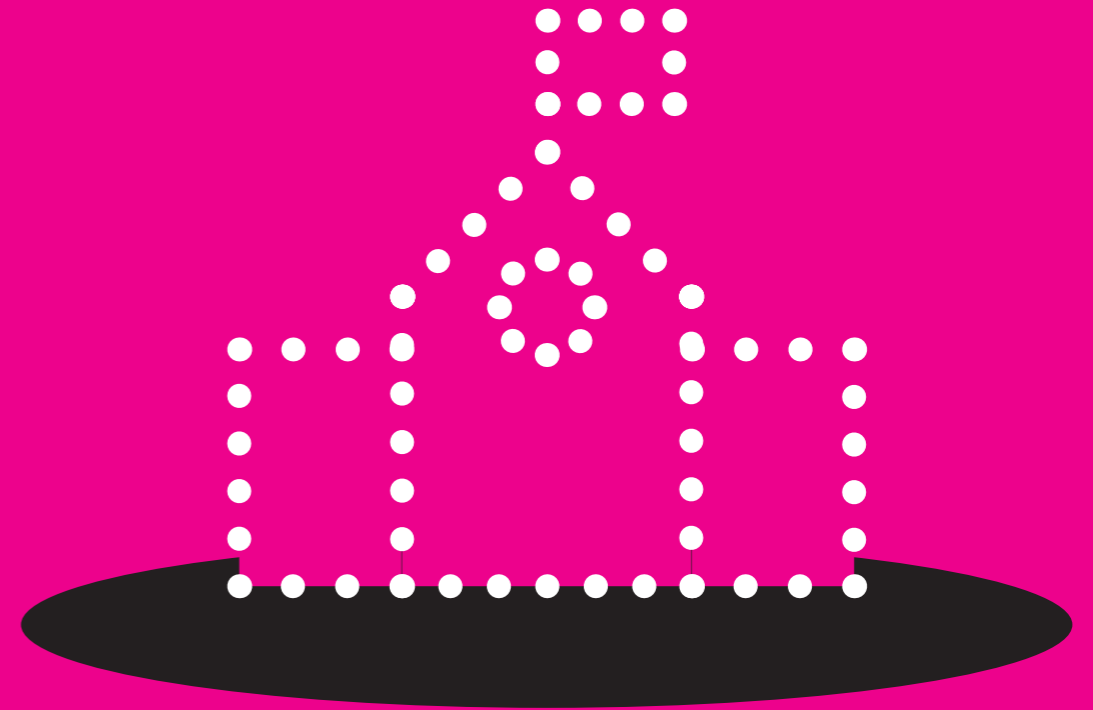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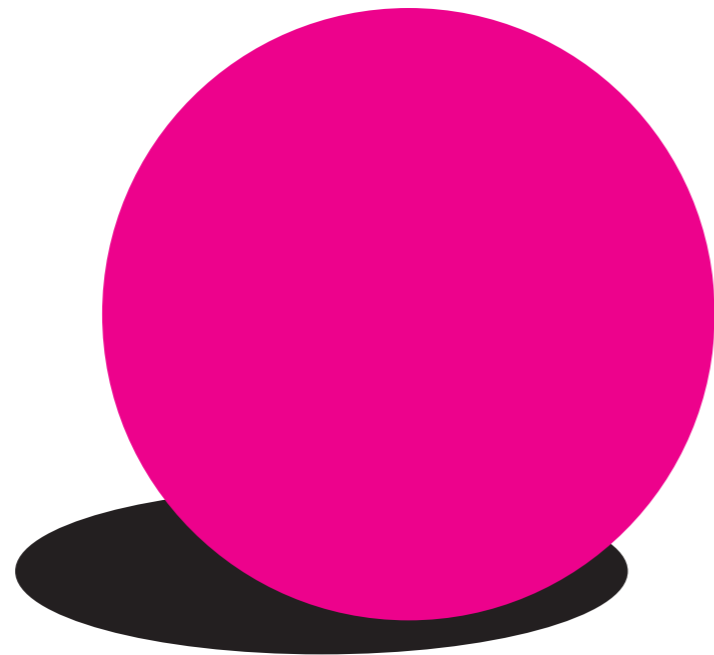
‘연결’ 문화도시의 가장 기본 단위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개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작은 단위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진화한다. 개인과 개인이 이어져 있을 뿐 아니라, 모임과 모임, 개인과 모임, 기관과 개인이 각자의 모습으로 이어져있다. 그들은 흩어졌다 모였다는 반복하며 새로운 형태로 도시의 무늬를 만들어 나간다.

‘사람’ 이번 학습공동체 활동수집 프로젝트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었다. 120만 명의 시민이 살아가는 수원의 곳곳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되어 있지만 어디선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이 어떤 이야기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학습공동체와 활동모임에 참여하는 경로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보다 더 많은 주제가 있다. 어떤 이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모든 공동체 활동의 저변에는 오롯한 존재로 살아가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있다. 그리고 그 사이 무수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여정 자체가 문화도시수원이 생각하는 학습공동체의 모양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이 공동체의 활동인가를 나누는 것, 성장의 단계와 모임의 방향을 행정의 틀로 분류하는 것이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모양에, 일상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모임의 구성원들이 모임 밖 연결의 광장으로 나와 함께 하는 활동을 상상할 수 있도록 판을 까는 것이 앞으로 학습공동체 지원과 활성화 사업의 목적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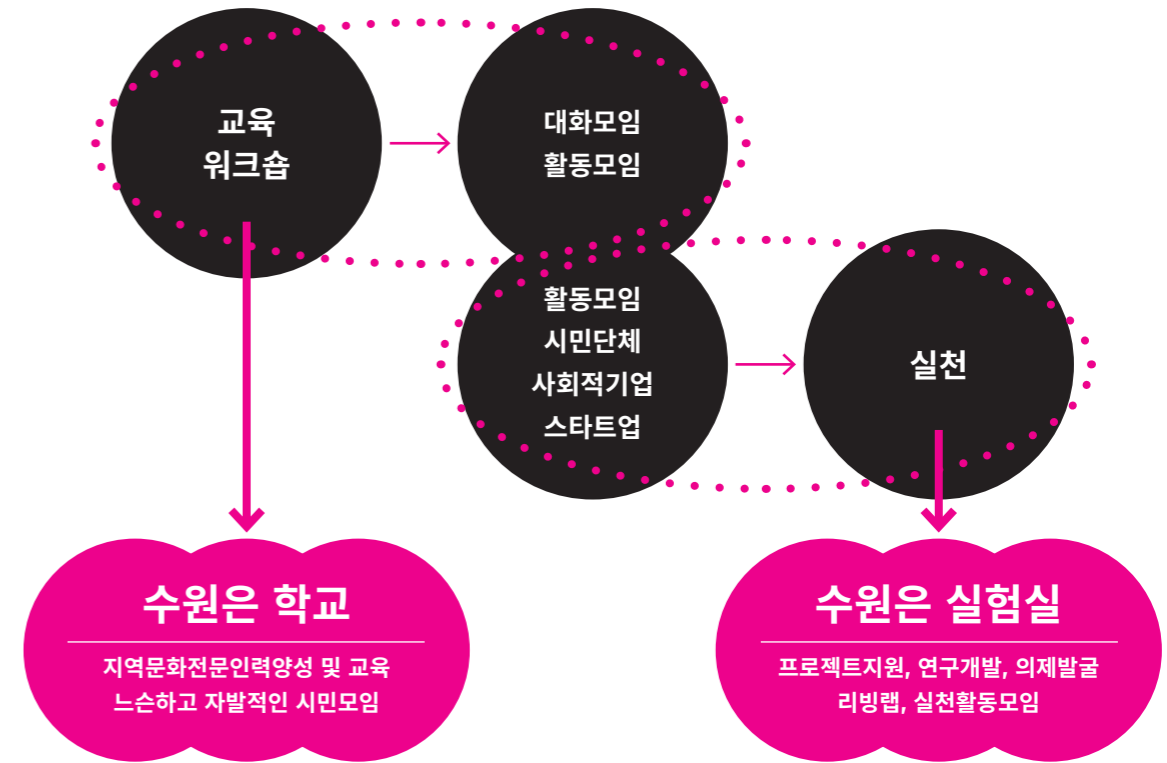
문화도시 수원을 이끌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주체를 만나는 첫 발



우리가 만들어 가는
배움의 자리
어디든 학교가 된다.

문화적 삶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주도하는 가장 기초 단위의 활동 지원

- 시민이 도시를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장소로 이해하고 문화도시를 함께 이끌어 가는 과정의 필요성 대두
- 이를 위해 ‘문화적 삶’을 시민의 새로운 삶의 비전으로 설정하여 안내하고 이끄는 창발적 시민육성과정 필요



- 전통적 교육을 통해 파생된 학습모임과 시민대화모임을 포함한 자발적이고 느슨한 활동모임 주체 및 문화도시사업을 경험한 시민 중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
- 수원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문화인재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전문 인력 재교육 진행

학습공동체는.

첫 번째

만남의 설레임

함께를 경험하다

처음 시작은 '그냥 ~해볼까?'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연히 마음
맞는 이웃이나 친구와 책을
함께 읽어도 좋고 그림을 함께
그려도 좋고 텃밭을 함께 일궈
봐도 좋아요. 내 취향껏 아무거나
시작 해봅니다. 중요한건 함께
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꾸
만나고 싶고 또 그러다 보면
한 두명씩 비슷한 취향을 가진
친구들이 모일 거예요. 모두들
그렇게 시작했답니다.

두 번째

지원군의 든든함

울타리 안에서 모이다

일단 학습의 문들 두드려
봅니다. 우리 지역엔 학습하기
좋은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기관 강좌가 끝이
나면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바로 후속 모임이지요.
서로 배움의 공동체로 함께
기대어 나아갑니다.

세 번째

굳건한 자생력

지속과 성찰을 실천하다

함께 학습하고 모이다 보면
어느 새 보금자리가 필요해지고
공간이 가져다주는 힘과 그
공간이 주는 기운으로 연대맺음이
가능하게 됩니다. 함께 나누는
삶터가 생기고 우리의 삶과 삶에
동 의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우리는
연결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법대로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네 번째

지속가능한 자립

당당히 홀로서다

방향성이 확고하고 활동의
의미가 더욱 견고해 질 때 비로소
자연스레 지역과 사람 중심의
경제 활동이 시작되곤 합니다.
놀이가 학습이 되고 학습이 일이
되는 순간! 어느 날 나도 의식하지
못한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지역주민을
만나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함께
성장하면서 치유되고 위로받는
사회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있는
나, 아니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확장의 공간

책 말고 무언가 더

다른 이들의 생각을 살짝 엿보고
싶을 때, 누군가의 취향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수원에는 40여개의
독립 서점이 있습니다. 주인장의
개성과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서
여느 책방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입니다. 이곳에서는
책 이외에도 다양한 학습이
존재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낯선
타인과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면
이곳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시 학습공동체 활동수집프로젝트 프로세스

단계	추진내용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협의를 통한 과업내용 이해 · 코로나시대에 맞게 소규모 맞춤형 간담회 설계 · 해당 기관 및 학습공동체 파악 ·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기획 수정 및 보완 ● 결과물에 대한 사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집에 대한 밑그림 파악 · 결과물에 따른 인터뷰내용 구성 ● 협업 팀에 대한 사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이너의 자료집 구성 방안에 따른 인터뷰 설계 · 수집단 구성 · 자료수집에 필요한 자문 협조
사전미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 방향 설정 ● 진행 계획 및 운영 목표 설명
FGI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지 초안 설계 ● 자료수집에 필요한 항목 구성
학습공동체 리스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처 및 학습공동체 리스트 정리 ● 자료수집에 필요한 기관 협조 ● 자료수집 참여자 리스트 확정
자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형 자료 조사 ● 서면 자료 조사 ● 전화 자료 조사
간담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별 학습공동체 FGI간담회 구성 ● 공동체 인터뷰 및 주제 토론 ● 다양한 그룹구성별 5회 운영
공유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 테이블 (기관 + 학습공동체) ● 네트워크 강화 및 연대 방안 모색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결과 보고서

스스로 앎을 실천하고 서로의 성장과 성찰을 지지하며 연대하는 사람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각 학습공동체와 서면·유선·만남을 통해 수집된
46팀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습공동체 활동의 면면 1

- 01 곰곰그림책모임
- 02 공부하는 주부들
- 03 그런의미에서
- 04 나침반
- 05 낮설여관
- 06 내 생각, 네 생각, 우리들 생각
- 07 다전다회
- 08 담해복스
- 09 도깨비
- 10 동화마주
- 11 두드려
- 12 뜨개뜨개
- 13 롱플레이어
- 14 워라도야그팟캐스트
- 15 미지
- 16 복을부르는 우리민화
- 17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수원지회
- 18 살롱시소
- 19 상호문화모임 잇다
- 20 생명밥상
- 21 수다와 글쓰기
- 22 수원캘리그래피
- 23 아뮤컨셉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그림책을 읽고 나누며 그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로 소통하고 성장하여 그것을 다시 이웃에게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곰곰'이라는 이름은 '이리저리 헤아리며 깊이 생각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그림책을 읽고 곰곰 생각해보자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그림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그림책을 읽고 나누는 모임입니다.

2017년 ~ 현재 : 정기적인 모임으로 그림책 나눔

2017년 : 사계절 출판사의 그림책 소모임 지원사업 선정

2019년 : 경기공의학교 '그림책스토리 팡팡' 선정

2020년 : 문화가 있는 날 휴식 소리 콘서트 그림책 청음회(더뮤엘) '그림책 소곤소곤' 참가

2021년 : 경기공의학교 '요리노리똑딱 그림책스토리 팡팡' 선정

2021년 : 초등북스타트 학부모 독서연수 지원사업 선정

그 외, 작은 도서관 수업 진행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좋은 그림책을 서로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좋은 그림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그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통로로 성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곰곰 그림책 모임'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 하나만으로 모여 2017년 4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각자 소개하고 싶은 좋은 그림책을 한두 권씩 함께 읽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삶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좋은 그림책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좋은 그림책을 구별하는 안목도 갖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림책을 통해 함께 웃고 울며 소통하면서 각자의 삶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을 보낸 후 이제는 우리 안에 차오른 것을 흘려보내는 일을 해보자 하여 2019년 경기 꿈의 학교에 지원하여 '그림책 스토리 팡팡'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작은 도서관 수업들과 각자의 영역에서 그림책 관련 모임과 수업 등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그림책 모임의 원칙은 그림책을 나눌 때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경청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의 특징은 헌신입니다. 여러 가지 모임과 선정된 행사를 진행할 때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과감히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즐거워하고 그림책을 통해 성장하는 이들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각자 성장하여 그림책 활동을 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 순수하게 그림책을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꾸준히 해나감으로서 이런 아쉬움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모임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그림책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동안 서로 삶을 나누며 쌓아왔던 신뢰의 관계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을 이웃과 마을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김선경: 직업 특성상 '아이들에게 읽어 줄 수 있는 좋은 그림책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골라야할까?' 도움을 받고 싶은 중에 그림책 모임 '곰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책을 사랑하는 어른들의 모임을 통해 그림책이 어른에게도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넓은 세상을 경험케 하고 유익을 주는 그림책의 무궁무진함을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김수진: "그림책 읽기"라는 취미가 같은 분들을 만난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나태해질 수 있는 일상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자극도 되고, 더 멀리 나아가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림책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일상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곰곰 그림책 모임"이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김신애: 그림책을 깊고 넓게 읽게 되어 그림책을 보는 안목이 성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울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곰곰 그림책 모임과 함께한 지난 시간 덕분에 그림책과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책으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들을 환대할 수 있었고 친분이 있던 분들과는 우정을 더 쌓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민: 처음 곰곰모임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림책이 좋아서 함께 읽고 싶어 시작했던 단순한 이유였는데, 그 속에서 가장 먼저 '나로부터 비롯된 깊은 대화'로 마주할 수 있게 해준 것이 가장 큰 변화였고, 그림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작은 사물이나 소소한 것들도 주의 깊고 의미 있게 바라보고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현주: 더 넓고 깊은 그림책의 바다로 계속 들어가면서 새로운 만남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곰곰 그림책 모임을 통해 각자의 책 보물 보따리를 공유하면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책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책들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남연희: 육아를 위한 그림책을 보다가 곰곰 그림책 모임을 통해 어른도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도서관에 가면 아이들보다 그림책 서가에 더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통해 다양한 생각도 나누고 아이들을 대하며 느끼는 어려움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혜련: 그림책을 같이 읽고 싶어서 모였던 시간을 통해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었고, 그것은 삶에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사회, 환경 등을 더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그림책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며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여러 가지 국가사업 덕분에 더욱 더 활발하게 그림책을 읽고 나누고,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계속 나누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과 활동 장소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지역에 많은 작은 도서관들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에 비해 홍보나 안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들의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고, 이용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얻어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 도우면 좋겠습니다.

활동(학습) 주제

그림책

구성원(수)

40대 주부 (7명)

활동빈도

월1회

활동대상

성인 여자

생성시기

2017년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2017년 3월,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더 나은 내일의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주부들이 모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주부들이 모여 함께 도서 목록을 정하고 책에 담겨 있는 의미를 나누며 인생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함께 깨닫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책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의 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가치를 알고 함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2016년 수원시평생학습관의 북큐레이터 과정을 이수하고 학습공동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학교 어머니 명예사서 회장을 맡고 있었고 어머니 독서토론 모임도 운영하고 있던 터라 좀 더 범위를 넓혀 시민대상의 독서토론 모임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수원시 평생 학습관 담당자 선생님도 모임개설에 대한 제안을 주셔서 모임을 한 번 만들어 보기로 결정하였고, 당시 주부였던 저는 저와 같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 개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2017년 3월 수원시 평생학습관을 통해 저의 지인 3분과 학습관 모집공고를 통해 모인 회원분들로 구성된 공주(공부하는 주부들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기억에 남는 활동은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고 함께 그리스인 조르바 영화를 학습관에서 같이 본 일입니다. 이후에도 '안나 카레리나', '건지 감자껍질파이 북클럽' 등 책을 읽고 관련 영화를 보았지만, 그리스인 조르바는 배경음악과 함께 'Viva la Vida(아름다운 인생이여 만세!)'를 오랫동안 되새기게 하는 여운이 깊게 남는 영화였습니다.

매 계절 우리는 한 번씩은 가까운 소풍을 나갔습니다. 봄에는 벚꽃을 구경하러, 여름엔 푸른 녹음을 느끼러, 가을엔 단풍과 갈대숲을 만나러 야외로 함께 나가 산책을 하였습니다. 맛있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주부로서 여유를 부리며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마다 함께 걸었던 길들이 발걸음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회원 모집을 합니다. 모임구성원들과 같이 책을 선정하고 그 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가장 어려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모임 장소를 현재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2년 가까이 오프라인 모임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거의 카카오톡으로만 도서 목록과 책을 읽은 소감 정도만 나누고 있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인문학 독서는 인간의 삶에 대한 사유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유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책을 읽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또한 책을 같이 읽어본 사람들은 함께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읽기 어려운 책도 함께는 읽을 수 있고, 혼자서는 다 보지 못한 부분들도 함께라면 같이 발견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함께 읽고 나누는 일'의 가치가 우리 모임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모임에 참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책을 읽으며 조금씩 나를 더 들여다보고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좋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 또한 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을 독서라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독서를 통해 알게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독서의 과정 중에 사유하며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고 좀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일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로부터 작은 모임이 만들어졌지만, 이 작은 일로 말미암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참여하고 더 좋은 생각과 삶에 대한 태도를 배울 수 있어 공동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학습공동체를 위한 모임장소의 지원이 가장 시급합니다. 수원평생학습관은 쾌적한 환경과 장소로 모임을 운영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도서목록 공유, 이벤트 공유

활동(학습) 주제

인문학

구성원(수)

30-60대 주부 (6명)

활동빈도

주1회 혹은 월1회

활동대상

주부

생성시기

2017년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와글와글은 낯선 사람들과 와인을 마시며 대화하고 글을 쓰는 모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없는 낯선 사람과 와인을 마시며 나른하고 편한 대화를 나누며 대화 속에 피어난 주제로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면서 책방의 역할은 책을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책이 낯선 사람에게 책을 읽게 만들고 본인의 글을 쓰게 만드는 것 까지가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한 번도 글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이 옆 사람을 굉장히 놀라게 할 만큼 좋은 글을 썼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분들이 책방에서 다시 마주했을 때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책방이 공동체로 묶인 사랑방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참여자들은 공간과 시간을 굉장히 기분 좋게 활용하고 음식과 와인, 처음 써보는 글로 인해 긍정적인 기억들을 얻고 갔다고 합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책방에서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책과 글이 연관되어 있는 소재로 모임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와글와글 같은 경우 어떠한 글이라도 꼭 써서 제출해야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위기의 순간은 크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모임을 진행하려 하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이 가장 커다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책방을 운영하면서 진행하는 첫 번째 모임이었는데, 이후 수원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취향존중 프로젝트, 동행 공간 등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책방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책방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현재 코로나로 인해 기존 모임의 틀을 변형하여 모임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나 지원 방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학습공동체를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우선 알아보고 싶고, 알아보고 난 뒤에 함께 하고 싶은 프로젝트 구상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활동(학습) 주제
와인과 글쓰기

구성원(수)
20-40대 (4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낯선 사람과 가볍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

생성시기
2021년

#니핀 #와인 #우연한만남
KEY WORDS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2015년 수원시평생학습관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을 수강한 시민들이 모여 후속 모임으로 북 콘서트 기획단을 만들고, 첫 북 콘서트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 초청>을 열었습니다. 이후, 학습관에서 50여 회의 북 토크를 기획, 진행 했습니다. 2018년 수원문화재단과 협업 <감수성 올림-아프다고 말하기 괜찮냐고 말걸기>, 2020년, 2021년 <수원 문화재 야행 책가도 토크살롱 (온라인 라이브)> 기획, 운영했고, 2021년 오! 인문도시 포럼을 기획, 진행 예정입니다. 2018년 수원시정연구원 주최 수원스토리텔링 공모전에 <수원의 인문 씨앗! 독서 모임을 찾아서>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시민기획단 나침반은 시민참여의 시대,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합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며 저자를 만나고 강연을 기획합니다. 만남을 기록하고 더 많은 시민과 나누어 인문의 영토를 확장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2015년 수원시평생학습관 <독서토론 진행자 과정>을 수강한 시민들이 모여 후속 모임으로 북 콘서트 기획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 기획 강연 <지금 여기 사람답게> 진행할 때 참여하신 모녀가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때 수건을 선물해 주셨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 나침반 단원들이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서대문 역사박물관,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등을 답사한 일이 기억에 납니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에 갔을 때 은평구의 동네지도를 처음 알게 되었고, 지도를 보고 찾아갔던 메밀 전문식당도 좋았습니다.
- 우리 동네 사람들 김진선 선생님을 만나러 연남동에 갔을때가 기억에 납니다. 쿨루프 활동과 동네청년 집 옥상에서 영화를 상영했던 것이 좋았습니다.
- 나침반은 강연 공간을 꾸미는 활동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참여했던 시민 분들이 공간에 대해 따뜻하게 생각해 주시고 느낌이 좋다고 이야기 해 주셨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연기획자와 참여 시민들 간에 느낌이 공유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하고 서로에게 기대며 함께 갑니다. 단원의 복지를 위하여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새로운 도전에 부딪힐 때, 처음 접해보는 행사를 기획할 때. 행사를 진행할 때 인원 부족으로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공간이 없어서 모이기가 힘들었고, 학습관의 운영주체가 바뀐 후 담당자도 자주 바뀌어 소통이 힘들고 지속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책 : 책을 읽고 개인이 소화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확장됩니다. 사회 구성원이지만 들리지 않는 목소리,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 관심이 많습니다. 시민으로서 다양한 책을 읽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 yjpeace@naver.com
I. @compass_with
Interviewee. 신연정

E. 2nd_meaning@naver.com
I. @2nd_his_meaningshop
Interviewee. 이현우

사람 : 나침반은 서로 지지하고 화합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원들 각자가 문제해결력이 있습니다.

기획과 기록 : 책 토론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서로를 살피는 존재가 됩니다. 강연 이후 기록을 남깁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김정희: 나침반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다녔는데 아이들이 엄마의 활동을 통해 같이 성장한 느낌입니다. 학교 발표수업 시간에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도 많이 놀라신다고 하십니다.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아이도 사회에 관심이 넓어졌습니다.

권미숙: 기획 강좌를 한다는 것이 작은 반항의 시작입니다.

노윤영: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으로 강연을 열게 되면서 참여자가 적을까 염려되었는데 다행히 많이 참여해주셔서 온라인으로도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 수원문화재단과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야행을 하면서 지역의 동네 지식인을 많이 알게 되었고 지역 작가님들에게 강연을 의뢰하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기획 강연 자료를 아카이빙 할 물리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카이빙 방법, 기술에 대한 교육과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공간을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인문360과 같은, 수원의 학습공동체(읽기모임) 온라인 플랫폼

활동(학습) 주제

인문

구성원(수)

40-50대 (6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나침반 기획 강연 참여자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생성시기

2015년

#책 #연대 #서로살피기
KEY WORDS

05

낯설여관(토요잡담회)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낯설여관에서 진행하는 토요잡담회는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각자의 취향을 느슨하게 나눠보는 본격 무경계 탈형식 잡담모임입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각자의 취향을 느슨하게 나눠보는 본격 무경계 탈형식 잡담 모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감과 동시에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나갑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낯설여관〉은 약간 생경한 공간입니다. 일단, 이름과는 달리 숙박업소가 아니고요. 204호의 책방과 제로웨이스트샵, 203호의 사진관과 작은 영화관까지, 여러 가지 색깔의 공간이 한데 모여 있거든요. 정자동이라는 평범하고 익숙한 동네에서 낯선 경험을 통해 일상을 여행하는 기분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낯설고 새로운 경험은 이젠 사치가 되었고, 익숙한 일상이 도리어 그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낯설여관〉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특별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낯설여관〉이 추구하는 가치가 투숙객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잡담회〉는 낯설여관의 가치관을 그대로 담아낸 공동체 모임이에요. 여관에 머무는 사람들이 각자의 여정 속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한 공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듯이, 고정적인 구성원이 아닌 매번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낯선 경험을 해나가고 싶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최근에 진행했던 토요잡담회 주제 중 <창업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창업을 해서 자영업의 세계에 뛰어들어 사람, 창업에 관심이 있지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 창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직장생활을 한 사람 등등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낯선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서로 다른 분야, 하나도 겹치지 않는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시선과 취향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신기하게도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와 비슷한 과정을 경험한 사람, 나와 취향이 닮은 사람, 나의 관심사에 충분히 공감해 주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경험은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보다는 낯설고 불편한 환경, 처음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토요잡담회야말로 그 경험의 일환으로서 충분히 멋진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토요잡담회는 총 2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주최자는 잡담회의 모더레이터로서 대화에 참여합니다.

- 1. 닉네임 소개 (10분)** : 신청서에 적은 자신만의 닉네임을 소개하고 그 안에 담긴 사연을 나눕니다.
- 2.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공유 (30분)** : 신청서에 적은 공통질문 두 가지를 모더레이터가 소개하고 각자의 답변과 부연설명을 자유롭게 나눕니다.
- 3. 잡담 (60분)** : 자기소개와 사전 질문을 통해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에 관한(혹은 주제와 전혀 상관 없지만 참가자와 관련 있는) 잡담을 진행합니다. 이 때, 모더레이터는 특정 참가자에게 발언이 치우치거나 무례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한 컨트롤에 집중하되, 가능한 한 참가자의 발언을 끊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E. ridinn.official@gmail.com
I. @ridinn.book
Interviewee. 우선식

4. 마무리 대화 (20분): 잡담회에 관한 소감과 '다음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잡담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를 추천받습니다. 대화가 한창 무리익은 시점이라 빠른 마무리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종료 20분 전부터 서서히 마무리하는 분위기로 유도합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공간의 문을 연 지 이제 고작 9개월, 토요잡담회를 시작한 지는 반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방문객이 적었던 초창기에는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부터 큰 난관이었는데요. 지금은 진정성 있게 신청서를 정성껏 작성해주는 참가자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어려운 점 보다는 즐거움이 훨씬 큰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이 모임을 즐겁게 이어나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낯설: 낯선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처럼, 낯설지만 설레는 경험이 토요잡담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보던 사람들과 나누는 익숙한 대화가 아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잡담의 매력이야말로 이 모임이 지속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움: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독서모임, 독서토론, 글쓰기모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식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토요잡담회만의 차별화이자 매력으로서 참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함: 익숙한 주제를 한 번 뒤집어서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모임 기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자신만의 취향과 관심사를 담아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 모임이 정체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매순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활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며 살아가다보면 나의 세계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점점 굳어져 결국에는 융통성 없는 껍질만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권태로운 일상 속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소중해지고, 그런 시대 속에서 토요잡담회와 같은 모임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느끼던 와중에 모임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행운을 매순간 경험하고 있으니 이 모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어쩌면 바로 저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토요잡담회는 저렴한 참가비와 타 모임 대비 낮은 문턱으로 인해 접근성이 좋은 모임입니다. 달리 말하면, 참가비를 높게 책정할 수 없고 매번 새로운 참가자를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수익성은 매우 떨어지는 모임입니다. 고정 참가자를 유치하고, 참가비를 높게 책정할 수 있다면 이 모임을 지속해 나가기 비교적 수월하겠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토요잡담회의 취지가 퇴색될 지도 모르기에 참가비에 관해서는 살짝 조심스럽습니다.

수원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취향존중 프로젝트>와 같이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모임지기와 공간에게는 가장 큰 도움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임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면 건강한 공동체 모임이 보다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토요잡담회와 비슷한 모임을 진행하고 계시는 모임지기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학습) 주제
회차별 상이
(다양한 주제로 진행)
구성원(수)
20-50대 (3명 내외)
활동빈도
월1~2회
활동대상
회차별 선정된 주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생성시기
2021년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내 생각, 네 생각, 우리들 생각〉은 원활한 소통 방법을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불통과 불편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는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고 긍정적인 소통의 방법들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우리 주변의 불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제 사례를 조사하고 소통과 관련된 서적과 자료들을 찾아 회원들과 함께 연구하여 소통에 도움이 될 방법들을 우리 스스로와 사례 당사자들에게 적용해 보는 실험적인 모임들을 가진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모임 이후 상호 소통에 대한 변화된 생각들을 이야기 나누며 긍정적 소통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각자 바쁜 일상 중에도 주1회의 만남을 통해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합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활동의 어려움으로는 공동체 학습이라는 모임 자체가 의무적이거나 활동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 개인의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 의지들이 모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공동체 활동은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라면 지속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물적 지원이 된다면 더 활발한 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공동체 일원들이 지역과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계획하고 함께 이뤄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가 생겼다는 것이 변화입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문화도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많이 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다양한 사례를 서로의 학습공동체에 홍보하는 기회와 상호 융합활동의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학습) 주제
긍정적 소통방법 연구

구성원(수)
30-40대(4명) / 청소년(6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마을주민 (학부모&학생) 위

생성시기
2019년

#소통 #대화 #이해
KEY WORDS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다전다회는 차(茶)를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스튜디오와 다회를 통해 차에 대해 배우고 실생활에 활용하며 나누고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한국다도(선비차, 생활차), 중국차음다시음회, 다회, 찻자리, 교육 등을 진행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6대 다류에 대해 이 차가 무엇인지 어떻게 마시는 지 등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배운내용을 가지고 다회를 열며 차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차에 대한 이해와 차를 통해 문화적 소양을 갖춰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배운 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차(茶) 다도 예절 교육관련 일을 하던 중 차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행궁동에서 ‘다전 1973’이라는 티룸을 오픈하고 다전차문화 교육원으로 함께 운영 하며 사람들이 차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나 차에 대한 인식이 그지 많지 않다보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음회와 클래스, 다회를 하며 스튜디오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차(茶)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 체험과 어린이 집 다도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아는 만큼 공유하는 것이 운영상 특징입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차가 커피처럼 대중적이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차에 대해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해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전부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찻자리나 시음회를 개최할 때 부족한 지원금에 사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매번 생기게 되면서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배운 것을 나누고 이를 활동과 연계한다는 점이 지속적인 활동의 힘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차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였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프로젝트 관련 심사를 진행하실 때 가끔 차를 제공해 드실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런 차도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차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차에 어울리는 다식을 제공해드리자 우리 다식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가 상쇄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활동(학습) 주제
육대다류인 차(茶)의 이해

구성원(수)
20-50대 (8명 내외)

활동빈도
월1~2회

활동대상
유아~성인

생성시기
2019년

#배움 #나눔 #차(茶)
KEY WORDS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3주간 매일 짧은 글을 쓰면 책으로 엮어 드리는 글쓰기 모임, 참여자 간에 같은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눈 뒤 글로 옮겨보는 모임 등 글과 관련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어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모임 기수별로 회원이 새로이 구성되는 편입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글쓰기의 부담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돕습니다. 또 글쓰기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꾸준히 글쓰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글쓰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글쓰기를 꾸준히 할 수 있게 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예전에 지역 독서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회원분들께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쓰는 것으로 나아가자고 자주 이야기해 왔습니다. 모임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고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책방을 열게 되면서 함께 읽고 쓰는 모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 출판 경력을 살려, 회원분들께 글쓰기를 안내하고 모임에서 작성한 글은 책으로 엮어 드리고 있어요.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모임이 끝난 후에, 글을 쓰며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 주십니다. 혼자서 했다면 꾸준히 하지 못했을 텐데 함께해서 해냈다는 말씀도 많았고요. 특히 “나는 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글쓰기의 부담을 내려놓고 쉽게 글을 써 보자는 것이지만, 그 글이 쉬운(가벼운) 글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글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글도 소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타인을 비방/비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코로나 19로 인해 오프라인에서는 진행하지 못하고 온라인(카카오톡 채팅방을 활용하거나 ZOOM 화상회의를 활용)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면하여 활동할 때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결속력이 약해지는 듯했습니다. 유료 프로그램이다 보니 기수별로 회원이 유동적입니다. 물론 꾸준히 이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기수를 다음 단계로 확장하려는 데는 어려운 편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방향성’이라고 할 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글쓰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많은 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혼자서도) 꾸준히 읽고 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모임이라는)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 생각에 많은 분이 공감해 주신 덕에 지금껏 유지해 온 듯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혼자서는 정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다른 회원처럼 글을 좋아하고 잘 쓰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 때가 더 많습니다. 모임 덕분에 다른 분들과 함께해 더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초반에는 단순하게, (1) 모임을 운영하는 주체가 꾸준히 해 나가고 (2) 모임을 신청하는 분이 계신다면 모임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나 모임 운영을 도와줄 인력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성장을 고려하면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회원 개개인의 성장이 없다면 모임의 성장도 없습니다. 지금 모임에서도 다음 단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학습공동체 분들을 뵈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활동(학습) 주제

글쓰기

구성원(수)

5~10명

활동빈도

3주 1회

활동대상

성인(모집에 연령 제한은 없으나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생성시기

2021년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도깨비는 각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피가 큰 목가구류를 제작해보고자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뭐든 똑똑똑 도깨비방망이처럼 만들고픈 열망을 담아 활동명을 지었어요, 캠핑용 멀티 도구함부터 싱크대, 서랍장, 화장대, 책상 등을 함께 제작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내가 필요로 하는 생활소품, 가구를 내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아가 집을 짓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내 거북이공방 수업 후 만들어졌습니다. 일상생활 속 소품, 가구를 직접 만들어 써 보고자 시작했습니다. 가구부터 시작하면 집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남편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도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굉음을 내는 선반기계들이 처음에는 무섭게 느껴졌지만 이후 더욱 더 안전하게 쓰고자, 두 명 이상의 모임원들이 시간을 정해 모여 서로의 도면을 보며 수정, 보완해 가는 과정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안전교육 필수, 뒷정리 필수를 원칙으로 하며, 일지 쓰기, 단톡방에 작업물을 공유하는 것이 운영상 특징입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수업 이후에는 일부 기계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하다보니 이전처럼 온전히 제가 손을 대서 만드는 것에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안전문제 상 둘 이상 모여야만 오픈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면 진행이 되는데 다른 모임원들의 경우 모임원들끼리 약속 잡아 하루에 모이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집과 작업실에서 사용할 가구들을 눈여겨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재활용 물건으로 나온 가구들도 오며가며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멀쩡한 물건들이 버려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어느새 그걸 주섬주섬 담아가고 주워온 것들을 새롭게 제작한 것과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다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코로나 상황 이전부터 토요일 사용이 불가하다보니 젊은 연령층의 유입이 차단되었고, 평일 시간대에 모여야 하다 보니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면서 나중에는 퇴직자 모임 같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임원들의 연령대, 성비가 좀 더 다양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꾸준히 모일 수 있도록 공방사용이 좀 더 개방적이어야 할 것 같고 주말 오픈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안전교육을 기간별로 늘려서 기계사용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일정기간동안 공동 프로젝트 같은 것이 있다면 '무얼 만들어야 하나'하는 고민이 덜할 것 같습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공유공방이 지역에 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이 있는데 활동 많은 조합의 경험이나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공방들 간 네트워크 강화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지역 공방 마실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물, 처음 공방 운영 시 어려웠던 점, 현재 공방 운영 노하우, 홍보 방법, 플리마켓 오픈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내 공방끼리 함께 연결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학습) 주제

목공
(일상에 필요한 물건 제작)

구성원(수)

40-50대 (4명)

활동빈도

월1~2회

활동대상

수작업자

생성시기

2019년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양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독서의 문제 아닐까 합니다. 많은 독서관련 강의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큼 아이에게 훌륭한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독서환경과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엄마가 먼저 책을 읽고 아이에게 읽어주며, 그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서로 나누고, 나아가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읽어 나가는 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아동-청소년들의 올바른 독서문화와 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찾아가고 지역사회 독서환경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희망샘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어린이 책으로의 초대”라는 자녀독서지도교실 강의를 시작으로 후속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주로 어린이 책(그림책과 동화책)을 읽으며 아이의 독서교육이나 성장발달에 관심을 가진 엄마들이 주축이 되어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문 강사를 통한 어린이 문학 심화과정을 통해 자기계발과 아이 양육에 적용하면서 서로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고, 엄마들의 유대감을 통해 소통하고 위로받는 시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서수원주민편의시설 내 YMCA가 운영하는 아기사포츠탄 5세 반에 주 1회 그림책 읽어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활동은 중단되었지만 동화마주의 가장 대표적 활동으로 회자됩니다. 도서관내 프로그램 중 그림책 강의와 2018년 수원시 공모사업 유치원 대상 환경수업에 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림책과 연계하여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신체활동과 예술영역을 접목하여 활동하였는데, 아이들의 호응도가 좋았고 준비하는 동안 회원 간의 유대도 좋아져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동화마주는 원칙상 총 2번의 총회와 주 1회 이상의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잦은 불참은 결국 모임의 분위기와 다른 회원들의 즐거운 모임을 갖을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임 전 항상 참석여부를 밝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강제성을 띄지는 않습니다. 강제한다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도 없을뿐더러 개인에 대한 돌아봄의 기회도 빼앗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이루어 지다보니 우리 모임 뿐 아니라 다른 모임에서도 참석여부를 밝히고 책임감있게 참석하는 것에 대해 가벼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따라서 적어도 모임의 한 일원이라면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참석 여부와 함께 책임감 있는 참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회원 수가 갑자기 줄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모임의 회장을 맡은 직후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선배들이 모임을 그만두시고 모임 자체가 흔들린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회장이라고는 하나 동화마주는 회원 한 분 한 분이 만들어가는 것이었기에 모든 회원들의 마음이 모이지 않으면 운영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었습니다. 따라서 회원 수도 무시못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기가 힘들어지지요. 그 때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동시에 ‘동화마주라는 모임의 성격과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배움: 함께 읽는 사람들을 통해 배우고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을 통해 배웁니다.

공유: 나의 아이들에게 공유하고,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공유한다. 그리고 그 나눔은 나의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통해 또 다시 공유되어질 것입니다.

눈높이: 내 안을 들여다보는 눈, 다른 사회의 삶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수원에 이사를 와서 아이들과 새로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니 살짝 무료함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아이들과 도서관으로 출근하다시피 다니며 책을 읽고 활동하다보니 어린이 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읽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마침 아이가 발레하는 곳에서 어린이 책에 대한 강의를 있어 참여하게 되었고, 동화마주로 지금까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림책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요새는 거의 예술화보집 수준으로 그림책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재미가 무척 쏠쏠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냥 즐기기도 무척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을 만나면 생각도 깊고 이해력이 풍부한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또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지요. 책을 읽고 깊게 사색하는 중요성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현재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데 모임 특성상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동화마주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함께 책 읽기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으로는 함께 책 읽기가 불가능합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입니다. 각자가 먼저 책을 읽고 만나기는 하지만, 그림책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림이기에 함께 그림읽기가 되려면 귀로 듣고 눈으로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출판사들의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심화강의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읽다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때로는 강의를 통해 해소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들을 통해 사회로 진출한 회원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모임과 연계한 심화강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모임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다른 그림책이나 어린이 책을 읽는 조직과 자주는 아니더라도 함께 읽기가 가능하다면 연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같은 이야기를 읽고도 생각하는 관점, 폭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고의 넓이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년 한번 비슷한 공동체끼리 주제별 발표나 독후활동을 축제처럼 벌여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학습) 주제

어린이 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

구성원(수)

40대 (9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어린이~어른

생성시기

2007년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두드러는 마음의 문을 열수 있도록 두드려주고,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동아리입니다. 요양원, 다문화센터, 노인정, 초등학교, 시설보호센터, 청소년 동아리 등 기관을 방문하여 문해교육, 종이접기, 중국어, 영어, 상담, 타로그림놀이, 다문화가족 및 자녀들에게 한국사교육과 한국어지도, 청소년 인문학관련 특강, 미술놀이치료 등으로 봉사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삶이란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고, 대상별로 갖는 고민과 문제점들을 함께 인지하고 유익을 나누며, 교육공동체이며 교육수혜자에게 앞의 기쁨을 갖게 하고자 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인문학 강의를 함께 들던 모임에서 몇몇 지인들과 우리가 가진 다양한 커리어들을 인생 후반기의 좋은 봉사를 하는데 사용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위해 학습공동체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이 그 동안 가꾸고 키워왔던 다양한 장점을 잘 살리고 싶다는 커다란 희망과 포부는 우리에게 학습공동체의 추진력을 가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학습공동체라는 틀에 발을 드리기 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기존 사회의 소속해 있던 사람들이라 보니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낯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나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하게 변하는 사회의 시선을 따라가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가장 주 목적을 두고 노력하고 있으며, 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청소년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생들과의 다양한 모험놀이를 진행했던 것이 가장 생각납니다. 처음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조금은 무기력한 상태로 사회에 대한 기대와 목표가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타로를 통해 자신의 꿈을 알아보고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화사와 연봉을 입 밖으로 이야기해 보고, 그동안 스스로 (꿈을) 이를 수 없다고 느끼던 마음이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여 신뢰의 놀이를 통해 할 수도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크고 훌륭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용기를 주자는 우리의 목표와 잘 부합되어서 회원들 모두 성취감을 가질 수 있었던 프로그램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다수인원의 참여, 계획서에 따른 수업진행, 실사구시의 교육을 통한 미래 대안 마련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학습공동체의 저변 확대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처음 공동체의 공간 확보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두 좋은 취지의 모임인 것은 알고 있지만 공동체 스스로의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학습관 또는 지정 공간이 나오기는 하지만 공동체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채워주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서로의 의견 충돌 시 조정의 어려움과 작은 사업을 할 때 동아리들 사이의 협업이나 연합 등의 정책적 배려가 없어 해체의 위기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지역사랑, 지역민과 소통, 자기개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공원이나 놀이터, 벤치 등에 지역에서 여러 해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 하고 싶고 소외감을 절절하게 토로하고 싶고 추억을 되 뇌이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이들과 남녀노소가 일정한 공간에 모여 놀이하는 가운데 공통의 소재가 발생하면 지역사랑의 의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학습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니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회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것 이었습니다. 함께하는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와 생각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였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알아가는 다양한 어르신 및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의 변화가 미미하게나마 일어나는 것을 볼 때면 꾸준히 학습공동체 활동을 잘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다양한 연수 및 자기 개발을 위해 서로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나 우리 회원들의 변화는 개인의 변화이지만 가정과 자신들의 작은 사회에 긍정의 기운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지역 노인정을 활용하는 방법,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선정, 어르신들과 상의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역할지원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운영진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각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지역 내 공동체 또는 과목과 운영방향이 다른 단체를 방문하여 개선점을 의논하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입니다.

활동(학습) 주제	지역사회와의 연대 및 상담
구성원(수)	50-70대 (7~8명)
활동빈도	월2회
활동대상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생성시기	2015년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뜨개뜨개는 우만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작된 뜨개질 학습 모임입니다. 뜨개를 매개로 주민들과 만남을 가지며, 모임 중 만들어진 작품을 지역사회(복지관, 그룹홈 등)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작품을 모아 연말 전시회도 진행합니다. 뜨개 활동뿐만 아니라, 회원들과 복지관 내부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서로에게 읽은 책을 추천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외 개인적인 고민이나 문제들을 서로 공유하며 위로합니다. 모임을 통해 동네에 대한 정보, 주민들의 소식 등을 접하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기관(복지관)에 연결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뜨개질을 매개로 사람들을 모으고 이웃들과 서로 교류하며 주민 삶에 전반적인 활력을 부여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 하면서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니 마을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없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뜨개질에 재주가 있어 주민들에게 뜨개를 가르쳐주는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직을 하면서 복지관 관장님과 자주 왕래하는 중에 복지관에서 뜨개방을 만들어서 진행 할 수 있느냐고 제안하였고, 복지관 관장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재능기부, 무료 봉사 형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에서 장소 제공 및 회원 모집 등 홍보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고 회원 모집 현수막을 보고 동네 주민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지역 내 나이가 많은 노령의 회원들이 많았는데 타 지역에서 온 30대 여성이 처음 뜨개를 배우러 왔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비해 학습이 굉장히 더딘 사람이었는데, “젊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알고 나왔어?” 라고 물어보면서 천천히 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했던 것을 풀어서 다시하고 다시 해보라고 조언하였더니 몇일 뒤 엄청난 양의 뜨개 작업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육아로 활동을 자주 할 수 없게 되어 그만둔 뒤에도 연락해서 “언제든지 놀러와, 그때 같이 뜨개 했던 사람들 그대로 다 있어.”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뜨개라는 매개가 없었다면 젊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젊은 사람들과도 만나고 이야기 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뜨개뜨개는 특별한 원칙 없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분위기에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정신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품목을 정해서(예:겨울-목도리/여름-가방) 뜨개를 하고 만들어진 작품을 그룹홈 등 시설에 제공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각자에게 실을 나누어 주고 집에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지도해줍니다. 주축이 되는 인원 10명(운영진)이 밴드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도맡으며, 본인이 하지 못할 때는 다른 회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코로나 이전에는 활발히 활동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활동이 조금 주춤하게 되고 자주 모이기가 쉽지 않는 점이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공식적 모임이 일주일에 한번이었지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일 모여 뜨개활동을 해왔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잘 모이지 못하고 모임이라도 소수인원으로 밖에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각자 집에서 완성해서 모이는 형태로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활동 초기 건강이 좋지 않아 20명을 교육시키는 것이 힘이 들어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회원들에게 ‘선생님 안계시면 못해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서로 힘든 순간에서 격려하고 제가 교육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래 활동한 회원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처음에 혼자 뜨개질을 가르쳐주다가 뜨개 기술을 전수받은 회원들이 또다시 새로운 회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려주지 못하더라도 회원 누구나 뜨개 방법을 새로운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지원하고 채워나가면서 모임이 와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의 장소제공 및 주민배려 : 우만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개별적으로 연락도 해주며 다독여주고 챙겨줍니다. 이러한 기관의 배려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우울증이 심하여 치료를 오랜 기간 받았었는데 뜨개를 하며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다보니 힘든 부분을 잠시나마 잊게 되고 복용하는 약도 줄어들면서 삶의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뜨개를 매개로하여 서로에 대한 안부, 고민, 동네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누면서 서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면서 개인화된 사회에서 서로 소통하며 따뜻한 마을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뜨개방 활동을 하고 싶어도 재료 구매 등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시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모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원이 확대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활동(학습) 주제

뜨개를 배우며
주민들과 만남

구성원(수)

전연령대 (20명)

활동빈도

공식적 : 주1회 /
비공식적 : 매일, 상시

활동대상

지역주민

생성시기

2018년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롱플레이어는 음악 활동의 자립을 목적으로 중고 음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뮤지션 김동산을 중심으로 정규직이 없는 음악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업무를 분담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중고음반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검수 방법 등을 서로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검수 된 음반들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합니다. 판매수익은 구성원들에게 임금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중고 물건들을 팔고, LP, 테이백을 팔았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에 놓인 음악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음악을 하는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가게에서 구성원들과 회식하면서 함께 주성치 비디오를 봤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역할을 나눕니다. 인터넷에 물품을 잘 올리는 사람, 판매를 잘하는 사람, 정리를 잘하는 사람 등 각 사람들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업무를 분배합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매장 관리비, 구성원들 임금 등의 문제로 매월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적자가 날 때도 있는데 그 때에는 흑자일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활동을 지속해나가는 힘입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좋은 지원사업 등이 있을 때 쉽게 알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롱플레이어에서 다른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음악 레슨을 하는 것 또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 활동(학습) 주제 구성원(수) 30-40대(4-8인) 활동빈도 주6일 활동대상 중고음반(LP)에 관심 있는 사람들 생성시기 2017년

#생계곤란 #자립 #음악 KEYWORDS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인생수업'을 수료 후 '뭐라도야그팟'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현재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팟캐스트 녹음 작업을 통해 우리들의 살아 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청(소)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시니어들이 모여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인생2막 프로그램인 '인생수업'을 듣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배우고 뭐라도 나누자는, 뭐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자 '뭐라도 학교'를 결성하였습니다. 이에 5기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참여한 시기가 2016년으로 이 시기가 '툭툭'으로 통하는 시니어들과 청(소)년들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시기였습니다.(물론 그 이전부터 끈대라고 하여 세대 간 갈등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 갈등은 소통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하여 소통의 길로 '팟캐스트'하는 형식을 빌어 시니어와 주니어의 만남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수원 시민학교 부설 물고을대안학교 학생들과 팟캐스트 및 영상작업을 함께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시니어들은 반가이 맞았지만 청소년들은 '우리가 왜 이 분들과 작업을 함께해야 하나?'라며 싫어하는 티를 팍팍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상교육을 받을 때 청소년과 시니어를 일대일로 짝을 지어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확실히 청소년들이 빨리 알아듣고 옆에 짝꿍인 시니어분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면서 '본인(이 때 대안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후 시니어들과 공동으로 녹음작업을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21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협업작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남습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공개방송도 하고, TBS 우리동네 라디오에도 출연했던 점 또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특별히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고, 아주 자유스러운 조직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움 속에 사람다움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지금 현재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매주 1회씩 녹음을 하다 보니 새로운 소재를 찾아내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오디오에서 비디오 형식으로 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이 나와 영상제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각자의 일상을 2-3분짜리 영상으로 편집하고 옴니버스형식으로 이어 붙여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영상물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면서 영상물 제작이 중단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재를 찾아내고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물 없이 친목의 형태로 모임이 흘러가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회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누군가와 2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주1회 2시간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 이것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매 주마다 녹음을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자료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알기 위해 한 방안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주제로 잡으면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그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으며 (이러니 소통이 될 리가 없지),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이야기 하다 위기청소년의 문제의 시작은 가족임을 알게 되어 현재의 가족이라는 제도가 과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나? 다른 대안은 없나? 대안을 찾아보면서 아직도 중국의 소수민족에 남아있는 모계사회인 ‘모웨족’에 대해 알게 되는 등 지속적으로 개인들의 공부를 하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개개인은 더 경험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나, 우리의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습니다. 시니어와 주니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청소년들과의 협업 작업이 원할 하였을 것으로 예상은 됨)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벤치마킹을 하러 2019년 전주에 있는 덕진 노인방송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덕진 노인방송국은 덕진노인복지관 내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으며 담당자(PD) 또한 직업인이었습니다. 이 때 느낀점이 우리끼리만 제작물을 만들고 배포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니어들의 방송국이 수원에도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방송 녹음을 수원시평생학습관 영상강의실에서 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이 안 될 때는 온라인상에서 녹음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우리만의 공간이 있었다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활동(학습) 주제

시니어의 삶

구성원(수)

6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시니어

생성시기

2016년

#소통 #시니어 #봉사
KEYWORDS

15

우만동아지트 미지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수원삼삼오오학교는 금전노동, 감정노동과 상관없는 낯선 다른 관계에서 우정과 지성을 쌓을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 우리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보는 대화모임입니다.

- 이미지카드, 관계를 짓는 질문과 대화
- 알랭드보통의 <낭만적연애와 그후의 일상>을 읽고 이야기나누기
- 헌웃으로 러그 만들기
- 티베트의 독립을 위한 차 모임
- 페미니즘 그림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
- <우리동네할머니>를 읽고 동네에서 나이 들어 감
-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를 읽고 이야기 나누기
- 서로를 알아가는 질문놀이 6X6
- 협동 그리기 / <점>그림책 나누기
- 내 안에 감정 들여다보기
- <자기인생의 철학자들>을 읽고 내가 생각하는 관찮은 어른은?
- <우아하고 호쾌한여자축구>를 읽고 이야기 나누기
- <제목만 있는 책> 저자 되어 보기 등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우만동 아지트 미지에서 진행하는 수원삼삼오오학교는 대화모임으로, 앞으로의 삶을 재미있게 꾸려가며 관찮은 어른으로 자라고 싶어 33세부터 55세까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금전노동, 감정노동과 상관없는 다른 관계에서 우정과 지성을 쌓을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 우리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청년과 중년의 연결인 33세부터 중년과 노년의 연결인 55세까지 모여 대화하게 되면, 인생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가질 수 있게 될까?”
“대화로 새로운 관계를 느슨하게 가지며, 나만의 자산을 쌓아 갈 수 있을까?”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로 나를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일상에서 수평적 대화하기를 경험하며 즐거움을 가져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2018. 4. 23 관찮은 어른으로 자라고 싶은 대화모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관찮은 어른으로 자라자”는 교훈을 마음에 두고, 참여자 스스로 만들어 가는 학교이기에 처음부터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대화모임에서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나누다 보니 헌 웃으로 러그를 만들어 보자고 해, 2회에 걸쳐서 소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알랭드보통의 낭만적 연애 그이후> 라는 책을 읽으며, 헌웃으로 실뭉치를 만들 때, 옷 먼지의 습격을 줄이는 방법과 썸솟는 기획아이디어, 쓸 만한 러그에 만족하는 경험을 가졌어요. 그 후 페미니즘 그림책을 같이 보기로 하고,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이야기, <제목만 있는 책> 독서모임 등을 하며, 온전히 나와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질문과 대화를 나누는 모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 낯설음이 설렘으로, 설렘이 편안하게 대화 나누고 함께 배워가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제목만 있는 책> 읽기는 한번에 20권씩 읽으며 서로가 저자가 되기도 하고, 독자가 되기도 하는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제목만 있는 책은 ‘우리는 모두 저자가 될 수 있고, 독자가 될 수 있다.’에서 출발한 책입니다. 지은이의 일상 경험과 생각이 담긴 짧은 문장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각자의

E. umanajitmeeji@gmail.com
I. @umanagitmeeji
Interviewee. 박은미, 권지현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사유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때 참여해 주셨던 분들의 회고기 기억에 남아요. “좋은 어른이 될까? 궁금해서 갔는데,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네요..... 오늘 좋은 책을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단순한 문장으로 저를 들여다보게 되네요.” ‘환대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낯설었지만, 금방 친숙해지고 따뜻해지는 우리를 보며, 결국 사람 안에서 배운다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1회 모임에 1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같이 나눌 다과를 준비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코로나로 8명의 대화모임을 잠정적으로 휴식기를 가졌던 것이 가장 큰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대화모임을 시도했는데 환대하는 환경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언어적인 분위기가 주는 따뜻함과 편안한 여기에서는 어떤 풀뚝는소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안정감을 온라인 환경에서 주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모임을 쉬게 되었죠. 이제 워드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안전한 대화모임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괜찮은어른: ‘괜찮은 어른으로 잘 자라고 싶다.’는 동의하는 가치 및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합니다.

수평적대화: 모두가 수평적 관계에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모두 불리고 싶은 닉네임을 사용하고 한사람 한사람 모두 평등하게 이야기하며, 모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존중: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나 스스로 괜찮은 어른으로 잘 자라기 위해 고민하게 된다는 것과 낯선 분들과 함께 편견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수평적관계의 대화를 경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수평적관계의 좋은 대화를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살아가며 좋은 질문은 만나는 것, 그런 것들이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지 하시겠지요? (히히) 숲과나눔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신뢰를 바탕으로’지원사업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증빙서류가 간소화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이런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학습) 주제
괜찮은 어른으로 잘 자라기 위한 주제 선정

구성원(수)
회차당 8명 내외

활동빈도
월1~2회

활동대상
괜찮은 어른으로 자라고 싶은 33세부터 55세 사이의 어른들

생성시기
2018년

#괜찮은어른 #수평적대화 #존중

KEYWORDS

16

페어퍼펙트 아린 민화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동아리 모임을 통해 민화를 배우고 즐기며, 학습한 작품을 공공장소, 지역축제 등에 전시회를 열고, 민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통해 이웃과 함께 하는 동아리 활동으로 민화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활동내용

민화를 학습하고 표현한다.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전시회를 통해 민화를 홍보한다.
소외계층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의 동아리 활동을 한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전통문화인 민화를 학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전시회를 통해 자아 발전 및 민화를 홍보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여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나눔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학습센터에서 시행하는 민화그리기 강좌개최로 초급, 심화 과정을 수료한 회원들이 뜻을 함께하여 지속적으로 민화를 학습하며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동아리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1. 주민자치센터 축제에 참가하여 민화 전시회와 부채그리기 체험 활동
2. 작품 발표회 및 장학기금 마련 일일 찻집 행사
3. 유당마을 어르신들께 민화 그리기 도움 봉사
4. 수원 평생학습 축제에 참가 전시회-컨벤스센터
5. 수원시 우수학습 동아리로 선정
6.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외국인 학생들 대상 민화체험 원데이클래스 수업 진행
7. 첫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 했을 때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원칙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향하며,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실력이 향상되고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추구합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민화 특성상 비대면 수업이 쉽지 않아 코로나 시국 이후 주기적인 동아리 모임을 할 수 없어서 학습의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품 전시회 개최가 어려워 졌고 전시회를 통해 완성작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없어 아쉬움이 큼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회원들 간의 돈독한 침묵, 강사님과 집행부의 열정적 참여, 민화의 꾸준한 학습으로 지속적인 전시회를 통해 회원들의 자아성취, 기부봉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 향상, 민화를 향한 회원들의 깊은 애정과 사랑

E. yeon924@daume.net

Interviewee. 김연경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1. 꾸준한 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면서 학습을 통한 자아성취
2.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면서 성취감을 느낌
3. 좋은 시림들과 친목을 도모하며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감 고취
4. 전시회를 통해 문화예술을 체험하며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홍보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5. 갱년기로 힘들었던 시기를 민화를 그리며 이겨냄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재료비 지원, 전시장 무료대여, 민화 전문 지도자 자격과정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민화와 도예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연합동아리 활동의 경험으로 학습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 하고자 합니다.

활동(학습) 주제

민화의 학습과 홍보

구성원(수)

50-60대 (15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민화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생성시기

2018년

#장작 #전시회 #나눔의봉사
KEY WORDS

17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수원지회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어린이 책 문화운동 단체로 1980년 5월 창립하여 “겨레의 희망, 어린이에게 좋은 책”이라는 가치로 전국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이 어린이 책을 읽고 바람직한 어린이 책문화 환경을 가꾸는 활동을 하며,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정관·‘우리회는 어린이의 삶을 바르게 가꾸기 위해 어린이 책을 연구하고 좋은 책을 널리 알리며, 어린이 독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한다’)

어린이의 삶을 바르게 가꾸기 위해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도서를 연구하여 좋은 도서를 선정하여 널리 알리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을 촉진하고, 마을 단위의 작은도서관 설치와 독서교육의 강화 및 그 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실천하여 어린이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4년 5월 ‘해님달님’ 모임 결성(어린이전문서점 ‘꿈의 나라’)

1994년 12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동화읽는어른 모임 가입

2006년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수원지회로 활동 시작

주요 활동내용

교육활동 : 현재의 독서환경을 고민하고, 바람직한 독서문화와 어린이 삶에 즐거움이 되는 책 읽기의 방향을 제시한다. (신입교육, 회원교육, 지역 학부모교육, 활동가교육)

책읽어주기 활동 : 아이들이 즐겁게 책을 만나고 함께 책을 나누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책읽어주기다. (도서관, 초등학교,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병원, 보육원)

책보내기 활동 : 좋은 책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초기에는 주로 책이 귀한 보육원이나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관련 시설 혹은 민간단체에 보냈으나, 이후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곳, 이주민센터, 장애인부모회, 작은도서관 등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우리 작가와 출판물 살리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실천하고 지역 서점을 살리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책문화 행사 :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책 문화 행사를 열었다. 수원시가 주최하는 ‘5월 어린이·청소년한마당’에는 ‘좋은 책 전시’와 ‘빛그림 상영’, ‘옛 아이들 놀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참여해 왔고, 10~11월에는 수원지회의 오랜 전통인 ‘어린이·청소년 책문화 한마당’이 ‘엄마와 함께 떠나는 책 여행’이라는 부제를 달고 이틀 동안 행사를 열었다. 좋은 책 전시, 체험 행사, 그림자극, 빛 그림, 연극, 옛 아이들 놀이 등이 회원들의 뜨겁고 열정적으로 풍성하게 펼쳐지고, 세미나를 통해 한해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작은도서관 활동 : 어린이도서연구회 수원지회는 부설로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을 2011년 개관하여 현재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독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와 어른이 좋은 책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책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강한 도서관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대활동 : 수원지회는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지부, 지회들과 연대하여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지역의 다른 도서관이나 단체들과 연대하여 사회적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참여한다.

E. haedal1994@hanmail.net
H. cafe.daum.net/suwonhaedal
Interviewee. 정은주

【수원지회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1. 자체활동

- 1) 신입회원교육
- 2) 전체회원교육
- 3) 책토론회
- 4) 회원의 날
- 5) 회원가족캠프

2. 외부활동

- 1) 부모독서교육, 어린이책 강좌
- 2) 책읽어주기, 빛그림, 그림자극 :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병원, 보육원, 학교
- 3) 책보내기 사업, 옛아이들 놀이, 문화행사(엄마와 함께 떠나는 좋은 책 여행)

3. 연대활동

- 1) 수원시 주최 5월 어린이·청소년 한마당
- 2) 세월호 연대 활동
- 3) 바람직한 독서문화 운동 참여

4. 기타활동

- 1) 해님달님 회보 발간
- 2) 2018년 수원한국지역도서전, 2019년 수원화성문화제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 1.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모듬을 구성할 수 있다.
- 2. 모듬을 구성하여 학습 활동을 한다.
- 3. 모듬 활동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뒤에는 타 모듬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선택 모듬 외에 타 모듬에도 참여할 수 있다.
- 4. 모듬의 최소 구성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각각의 모듬의 역할은 어떠한가?】

그림책/동시 모듬 : 그림책과 동시를 읽고 좋은 그림책과 동시를 널리 알린다.

옛이야기 모듬 : 옛이야기 들려주기 문화를 만든다.

동화 모듬 : 좋은 동화를 찾아내고 동화 읽어주기 운동을 확대한다.

도서관 모듬 : 도서관 운영 전반과 함께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청소년문학/만화 모듬 : 청소년 문학과 만화를 깊게 이해하여 토론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책문화 운동으로 확대한다.

신입 모듬 : 기본교육과 책 토론에 참여한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부설기관인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의 운영비와 운영인력 등 운영상의 문제점과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회원들의 견해 차이가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매주 진행되는 어린이 책 공부,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함께한 소중한 인연, 책 읽어주기등 여러 책문화 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매년 정기총회를 통한 조직의 개편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 공부하면서 알게 된 좋은 책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 아파트 도서관 만들기,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아이들과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고 느낌을 나누다 보니 독서량은 부쩍 늘어나고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며 부대끼는 동안 회원들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졌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고 나도 잘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책의 질이 높아졌고, 예전에 좋아했던 책이 아닌 다른 책을 읽게 되었어요. 권정생 선생님의 책을 읽고 나면 그분의 삶이 궁금해지고 삶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내 삶에 방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책에 대한 좋은 습관을 지닌다는 것, 어머니 아이들이 책을 고르는 안목과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 30대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과 불안 혹은 스트레스가 많은데 어린이 책을 읽으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의 여러 기관과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 배움을 확장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부설로 운영 중인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활동(학습) 주제
어린이책을 읽고 토론하고
활동으로 실천하기

구성원(수)
30-60대 (32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어린이, 청소년, 어른

생성시기
1994년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살롱시소는 로컬레이블이며, 복합문화공간으로 이곳에서 다양한 이들을 만나고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가거나, 아무것도 안하기도 합니다. 주로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더한 콘텐츠를 만들고, 구성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논다. 함께 스스로의 미션들을 정하고 해결하려 노력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큰 도움이 안 되어도 혹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매달 최소 1회 정도씩은 계속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했는데 작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공연은 많이 못 하고 가끔씩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지역에서 음악 활동하는 뮤지션들 중 직업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소소한 경제적 효과를 보면서 음악(예술)활동을 지속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수원에서 살고 있는 뮤지션, 기획자, 디자이너가 모여 지역에서 음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 두루뭇술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공간을 얻으며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되면서 학습과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왔지만 그 중에 인상깊은 활동은 '창작집단 강패밀리'입니다. 살롱시소에서 공연했던 각기 다른 4팀의 뮤지션들이 모여 기존에 하던 음악 외의 장르로 확장을 시도해보고자 했고, 무성영화와의 라이브 연주의 결합, 관객 참여형 음악극 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도전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순수하게 학습과 학구열만이 동력원이 아니기에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이나 그에 상응하는 동력원이 필요하며 이런 것들을 계속 찾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저희는 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더 즐겁고 잘하기 위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늘고 길게 지속해올 수 있었던 요인은 '돈'은 잘 벌지 못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즐거움' (작지만 큰 팬들의 응원, 작품을 선보이는 기쁨 등)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른 무언가들이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무언가 나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개인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순간의 경험들을 통해 스스로의 사고와 행동이 확장되는 도움이 있었습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저희의 음악으로 다른 분들의 무언가에 더해질 재미난 일들을 발견해낸다면 함께 콜라보가 이루어지고 공동체 간 연결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안주시면 함께 즐거운 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활동(학습) 주제

문화예술(음악)

구성원(수)

20-30대 (5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뮤지션 및 음악과 문화예술 혹은 이상한 짓들에 관심있는 사람들

생성시기

2015년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여러 나라 출신의 회원(중국, 베트남, 필리핀, 한국, 우즈베키스탄 등)과 자녀들이 격주 토요일마다 모여 출신 나라의 언어로 동화를 들려주고 노래와 놀이를 통해 문화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이 이중 언어 학습을 통해 본인들에게는 엄마나라의 문화에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문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상호문화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주배경 가정 자녀들의 이중언어 학습을 통하여 본인의 자존감을 키우고 지역에서 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2010년 희망샘도서관에서 9월 독서의달 행사로 '아시아를 만나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및 여러 나라의 이주민들과 그들의 문화를 알아보고 이해해보자는 취지에서 수원이주민센터와 교류하면서 센터에서 만난 회원 중에 몽골과 중국에서 오신 분이 독서의 달 행사에서 모국어 책 읽어주기를 진행하는 문화체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선주민, 이주민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1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다문화인식개선과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강의와 워크숍 : 회원들이 대부분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기에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고 이주민이기에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언어교육에 있어서 한국어 위주로 교육을 할 것인지 모국어 교육을 할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임 내에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이주민으로 한국에서 자녀교육 경험이 있는 선배 이주민, 선주민과 함께 하는 워크숍과 다문화인식개선 및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워크숍과 강의를 통해 이중언어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히 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주배경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한국의 이주민 정책 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에서 진행 되었던 동극 공연, 전통놀이마당 : 희망샘도서관에서 매년 진행되는 독서의 달 행사에서 몽골, 베트남, 중국의 전래동화를 인형극으로 꾸며서 이중언어로 공연을 했습니다. 이중언어 대본을 만들고 집에서 각자 엄마와 자녀가 연습을 하고 정기모임 외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도서관에 모여 연습을 했습니다. 전통놀이마당은 각 나라별 놀이감을 준비해서 부스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공연을 한 모임 회원의 가족들도 행사에 참여하면서 가족 구성원이 도서관 모임에 참여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상호문화 읽어주기 프로그램 진행 : 격주로 진행되는 상호문화 읽어주기 프로그램 진행은 회원들이 순번제로 준비해서 진행하며 한 학기에 2~3번 진행합니다.
도서관 행사, 교육의 기회가 있을 때 문화다양성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월 2회 모임 출석은 기본으로 하지만 강요성은 없습니다. 모임 가입과 탈퇴의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자율적,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프로그램 진행의 부담 : 상호문화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회원들이 순번제로 진행하는데 동화를 번역하고 후속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 가정생활을 하면서 별도의 시간을 내서 준비하는 것이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일로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면 모임 불가로 인한 활력 감소 : 온라인으로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모임에 집중도와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활동의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관계성 : 이주민으로 산다는 것은 매사에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일로 일상에서의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 공감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자녀교육 :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통한 자녀 교육의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부심 : 지역사회에 모국의 문화를 알린다는 자부심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과 거리감 해소

다른 언어를 쓰고 걸음습이 조금 다르고 출신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선입견을 가지고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가까이에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을 것을 알게 되었다.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민을 나누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다양한 문화 체험

해당 나라에 직접 가야 체험할 수 있는 놀이와 문화를 소개받고 체험하면서 문화다양성을 체험하고 아시아를 더욱 가깝게 느끼게 되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프로그램 진행에 사용할 콘텐츠 : 이중언어 그림책
한국의 그림책을 아시아 언어로 번역한 것이 아닌 아시아 여러 나라의 그림책 원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그림책
이주배경 가정의 자녀들이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상호문화 교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모임이 있다면 서로의 활동을 소개하고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활동(학습) 주제

이주민과 선주민의 상호문화 교류

구성원(수)

30~50대 (16명)

활동빈도

월2회

활동대상

지역 이주민, 선주민, 자녀

생성시기

2010년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먹거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으로서 매주 1회 모여 한달동안 정한 먹거리를 주제로 토론하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식생활을 주제로 네트워킹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웃과 어린이 대상으로 먹거리 교육 및 먹거리 주제로 관련 강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지구와 내가 함께 행복하게 먹고사는 공부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책을 통하여 생태적 환경에 관심이 가면서 실천 행동으로 먹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희망샘도서관에서 먹거리 지도자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서 적극적으로 생명밥상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초등대상 먹거리 교육 현장과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먹거리 요리 강좌가 기억에 남습니다. 매년 메주를 담가 간장과 된장을 생산해서 희망샘 활동가들에게 재료비만 받고 나눔을 실천한 것도 생각납니다. 기억에 남는 참여자 피드백은 교육 후 생명밥상 모임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먹거리 교육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현미밥 선생님 이야”라고 저를 불렀던 것도 인상적입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매달 ‘생밥 이꿈이’를 선정합니다. 모임의 주제는 참여자 모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결정합니다. 모임의 가입과 탈퇴 등은 자유의지에 따릅니다. 대면 모임에서는 외식보다는 각자 준비한 도시락으로 밥상을 나눕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먹거리는 모두가 주체자입니다. 지구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먹거리 제안 앞엔 항상 ‘맛있는’이라는 어떤 욕구 앞에 가치 우선이 때때로 무너지는 순간들입니다. 고집스럽게 생태적인 건강 먹거리는 어떤 친구들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 많은 심적 안타까움이 생각납니다. 생명밥상 모임 안에서도 먹거리 철학에서 중요시 하는 지점들이 조금씩 다를 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들 속에서 저도 부족했던 지점들이 떠오릅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지구촌 모든 생명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우선하는 의미로 생태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실천행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실천가들은 건강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나와 모든 이들에 기본권인 건강한 먹거리 공급은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생명밥상은 매주 수요일 모임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나에게 엄청난 변화는 지금도 외부 활동 중 나의 소개를 ‘지구활동가’라고 합니다. 나의 밥상에서 출발해서 이웃의 밥상, 그리고 지역의 먹거리 운동까지 확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생태환경을 이야기하는 수원녹색당 참여도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정치로 시민사회 연대 활동에도 적극적입니다. 정리해 보면 가족 내 그림자노동자가 자율노동 활동가로 거듭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먹거리라는 매개로 모임은 형성되고 진행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포용성을 위해 다양한 인문적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생명밥상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현장체험을 병행하여 생명밥상 모임이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희망샘에서 다양한 조직들과 건강한 밥상 차림으로 연대의 장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먹거리 운동으로 다른 네트워크와 연대하고 소통하는 계기 마련을 기대합니다. 통곡식 제철 밥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네트워크 프로젝트 안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활동(학습) 주제

지구도 살리고 몸도 살리는

먹거리 활동

구성원(수)

12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시민

생성시기

2009년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2015년 1월 매탄4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었던 ‘누구나 학습마을’ 강좌로 시작했으며, 2019년 12월까지 5년간 진행하였음. 문집을 3권(2017, 2018, 2019) 제작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민센터 공간 활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모임이 주춤하다가 2021년 2월부터 세류동 ‘가치가게’에서 다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한 주제에 맞추어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주 활동 내용이며, 글쓰기 외에도 정기적으로 책읽기, 영화보기, 산행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그러한 체험에 대해서도 각자의 생각을 나눕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생활 속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수다와 글쓰기를 통해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국어를 전공하고 논술 강사로 활동하면서 재능 기부의 일종으로 2015년 매탄4동 주민센터에서 마을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때 참석하였던 글쓰기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모임에 대한 지향이 있어 모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이나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말과 글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면서 자신의 힘과 회원들의 격려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 하나하나가 기억에 남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모든 결정은 회원에게 묻고 의견을 모아서 진행합니다. 일상적 준비나 행사 준비의 경우에도 운영자가 도맡지 않고 회원들의 자발적 동기와 의사를 존중하여 역할을 나누어 분담합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참가하는 회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계속 던지면서 스스로의 이유를 찾으려 노력하던 중 혼자라도 이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는 결론을 얻게 되면서 이후부터는 즐겁게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회원이 너무 많아져서 내가 즐기기도 실무적으로 챙겨주어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 회원들 사이의 참여 정도를 조절해야 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형식적, 당위적으로 모임이 흘러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욕심을 줄이고 내가, 그리고 참가한 회원들이 즐거운 방향으로, 내용적 충실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서 극복하였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 각자가 그 모임을 하는 이유, 하고자 하는 내적 욕구가 분명한 것, 더불어 운영자가 회원들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모으고 높여가는 운영의 요령이 필요하며, 운영자 역시 모임을 이끌어가는 이유와 내적 욕구가 선명해야 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 수다와 글쓰기의 방식 자체가 나에게 대한 성찰과 돌아봄, 자존감 회복과 치유의 힘을 주었음.
- 타인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힘을 크게 높여주었음.
- 개인적으로 모임을 운영하는 경험을 많이 쌓게 되었음.
- 한 지역을 거점으로 꾸준히 모임을 진행하게 되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으며, 지역 행사(주민센터 발표회 등) 등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었음.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모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간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입니다. 모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면 좋을 것입니다. 활동의 성과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내실과 외화의 충돌 지점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이벤트(성과 발표회)는 다른 방식으로 경험을 넓히고 회원들의 관계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민센터나 구청, 시 행사 등에서 제공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운영자 중심의 네트워크는 너무 형식적이고 성과중심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각 모임의 성과를 전시 및 발표하는 행사는 모임에 또 다른 활력이 될 수도 있기에, 전시회나 성과발표회 같은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혹은 구청이나 시의 주관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은 각 모임의 활성화와 교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동(학습) 주제

생활 속 글쓰기 및
생각 나누기

구성원(수)

50대 (8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글쓰기에 관심있는 성인

생성시기

2015년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글씨를 사랑하고 글씨를 써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캘리그래피보다 그 사람만의 색깔이 있는 캘리그래피, 개성있는 글씨를 추구합니다. 획일화된 프레임 속에서 따라쓰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습과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캘리그래피를 취미로 가졌거나 가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전문 강좌나 클래스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고 싶은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연습하고 실력을 쌓아 나아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미 실력이 어느 정도 다듬어진 분들도 나타나고 그 분들이 원한다면 능력이 노출되고 발휘 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도와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모임에서 접했고, 그 계기로 독학으로 실력을 키워오던 중, 혼자 캘리그래피를 하는 것보다 함께 많은 사람들과 이 즐거움을 나누고픈 마음에 시작했습니다. 우리 소모임을 통해서 누구나 캘리그래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캘리그래피를 우리 모임을 통해 처음 접하신 분들이 즐겁게 글씨 쓸 때가 늘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의 가입부터 남 앞에서 글씨를 쓴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만 약간의 용기만 내어 준다면 누구나 실력을 연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원들이 갖게 된 점, 그리고 글씨를 잘 쓰려면 손재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것을 보았을 때가 한편으로 뿌듯합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가입 이후 한 달 이내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탈퇴하게 합니다. 캘리그래피의 특성상 지속적인 연습량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일주일에 2~3회는 열려고 합니다. 이제는 적극적 참여자가 생기면서 기꺼이 운영진을 맡아주고 있어서 어쩌다 대표자가 못 나올 경우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회당 2,000원 정도의 재료비를 5회 이상 참석한 참여자들은 이후 면제됩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모임 개설 초반에 인원 모집이 안 될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1로만 진행한 적도 많습니다. 일정 인원이 안되면 장소 예약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3~4명이 되고 어느 순간 10명이 넘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사람을 데려오게 되고 지금은 처음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무조건 재미있게 쉽게가 우선입니다. 좋을 글귀 찾아서 수십 번 수백 번 쓰면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먹고 싶은 것 써보기 (예들들어 족발, 치킨, 떡볶이, 삼겹살 등등)를 하면 어느새 한 페이지가 가득 채워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글씨라는 것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관심사를 즐겁게 함께 공유하는 이 마음 나눔이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씨라는 것이 끊임없이 연습해야 하는 건데, 저는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인 연습이 가능하고, 함께하면 더 좋고 하니까 이 모임을 희생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는 그냥 생활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무슨 모임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저도 처음에 모임을 나갈 때에는 너무 부끄럽고 자기소개 할때도 떨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모임의 주체자가 되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대신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 오셔서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잘 살피고 제 경험담 이야기를 해주면서 배려하게 되죠. 저희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특정 손재주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캘리그래피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점이 변화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캘리그래피를 즐겁게 취미로 접하며 홀로된 시간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취미를 공유하게 된 점이 가장 표면적인 변화입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모임 장소 섭외가 쉽지 않습니다. 모임 장소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취미로 활동하다가 전시를 경험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공동체들 간 교류를 통해 콜라보레이션 작업이나 전시회, 모임 주최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활동(학습) 주제

캘리그래피

구성원(수)

20~30대 (30명)

활동빈도

주 2~3회

활동대상

수원시민 및 근교주민

누구나

생성시기

2021년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아뮤컨셉은 '아날로그 뮤지엄'의 약자로 서점 겸 공방입니다. 요즘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데 그와 반대해서 탈디지털화를 추구하고 디지털 관련된 것 보다는 아날로그 부분의 것들을 취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공간의 취지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모아 그때그때 재미있는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시도하려 합니다. 서점과 공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가족)공방클래스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누군가 요청을 하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학교 수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점이란 공간을 활용하여 북 토크, 독서모임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크게 재미를 느끼지 못하여 다른 선생님들과 협업하여 포럼형태로 독서모임을 진행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기획중입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 실행하려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위해 여러 독립서점하시는 분들과 '임의단체'를 만들어 운영 중이며 관련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이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내 생각들과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과 다양한 활동의 형식을 빌려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삶의 질문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공예 활동이나 학습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책을 통해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열린 대화를 나누었던 활동이 올해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시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독립서점 임의단체에 대해) 우리 단체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인원을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얘기가 많아지고 갈등 상황이 더 빈번해지기 때문에 회원들끼리 6명에서만 하자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6명에서 각자가 잘하는 것을 맡아서 합니다. 저의 경우는 서류정리를 잘하다보니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표로서 역할분담에 직접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누군가 무엇을 잘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이것 좀 맡아달라'라고 역할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역할이 없는 사람들이 간혹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럴 때는 다른 필요한 일을 발굴하여 일을 맡기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탓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늘 위기이고 늘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생각을 전혀 가능할 수 없는 이유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관심이 없을 때 '이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고 내 삶에 맞추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직 자생력이 없어 지역의 도움을 받아 지원금을 가지고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활동을 하면서 돈과 연결시키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계와 문화활동을 분리해서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계유지는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하려면 돈이 안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고민지점이 있습니다. 문화활동도 좋지만 먹고사는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 서점에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책이 안 팔리니 카페를 병행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고 영업에 얽매이다 보니 외부활동을 잘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들에게 활동을 권유 하고 싶어도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도하고 만나고 싶은데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문화 활동과 경제 활동의 분리. 이것이 되었을 때 가치를 잃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지역의 변화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변화는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상에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재미있게 들어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 하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스스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 나가는 가'입니다. 여러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문화 활동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 자신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네트워킹. 여러 분야의 공동체와 함께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활동(학습) 주제

생활 속 글쓰기 및 생각 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

구성원(수)

40대의 다양한 구성원

활동빈도

최소 월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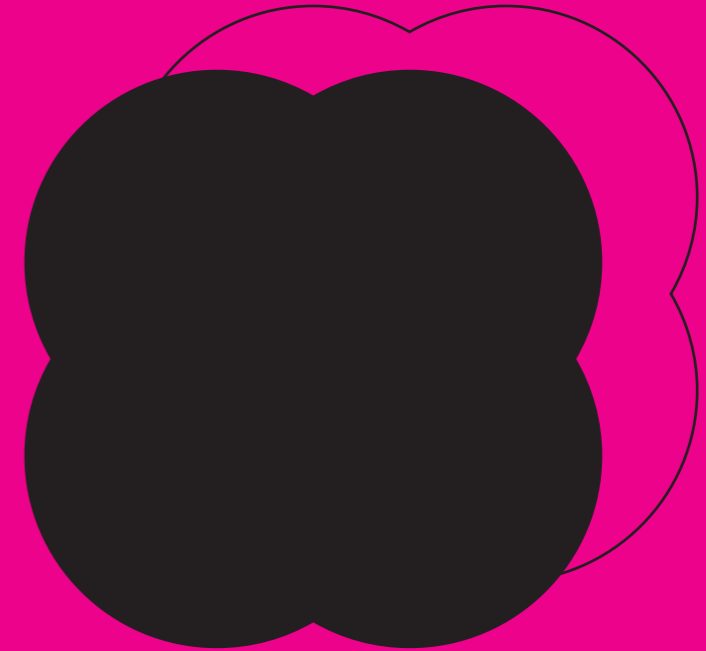
활동대상

참여하고자 하는 누구나

생성시기

2019년 9월

소소한 테이블



코로나 19 발생 이후, 거리두기에 익숙해져 있던 모임원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임에도 서로를 반가워했다. 모임은 서로를 환대하는 뜨거운 눈빛과 손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임을 소소한 테이블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공동체 활동수집 프로젝트 간담회 ·1차·

학습공동체 운영상의 어려움

- 일시** 2021년 10월 14일 (목) 10:00~13:00
- 장소** 수원문화재단 2F 회의실
- 활동인원** 소셜드림프로젝트COCOCO 최윤주 대표, 이하윤 연구원 (총2명)
- 참여인원** 학습공동체 활동 시민 6명, 수원문화재단 조혜미 주임 (총7명)
- 내용** 관내 학습공동체 활동수집 및 시민 네트워크 강화



학습공동체 소개

key words 활용을 통한 공동체 소개

공동체명(참여자명)	3 Key words
알레테이아(이종숙)	#여정 #함께 #희망
알레테이아(이영애)	#화합 #봉사 #이야기
아뮤컨셉(송재형)	#나눔 #네트워크 #재미
좋은3과4연구소(박현자)	#죽음 #나이듦 #사회적역할
화서동문화사랑방(최진옥)	#다함 #심 #성장
화서동문화사랑방(이은경)	#화합 #친목 #향상



미니토론

알레테이아(이종숙) : 학습동아리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더 나은 활동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여 임시단체를 만들고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게되면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신경써야하고 무엇보다 서류에 치어 살게 되어 한 사람은 활동보다는 행정적인 업무에 매달려야만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좋은3과4연구소(박현자) : 공동체 활동 중 공모사업에 지원하면 그것을 공모한 사람이나 단체는 강사를 할 수가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활동의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준비는 전부 다했는데 강사료는 받을 수 없는 실정. 이러한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며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뮤컨셉(송재형) : 공동체 활동과 영리활동을 함께 가지 않고 분리해서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면서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지속적인 활동의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레테이아(이종숙) :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구성원들이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하는데 무대는 한정적이고 모든 회원들이 모두 현장에 나가 활동을 하면서 소소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임을 떠나는 회원들이 더러 발생하기도 합니다.

좋은3과4연구소(박현자) :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활동하면서 공간적 지원 등 많은 지원을 받았었는데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공간이라는 학습토대가 사라져서 막막해졌습니다. 현재는 카페에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간의 부재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뮤컨셉(송재형) : 저는 서점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외부에서는 이 공간에 들어오고 활용하기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공간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생각하는데 바깥에서는 열려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열린 공감임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저에게는 반대되는 어려움입니다.

알레테이아(이종숙) :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 자체가 잘 안되고, 홍보를 한다고 해도 기존의 익숙한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홍보물을 접하는 사람들도 참여할지 말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직접 만나고 찾아가서 이야기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감 나누기

알레테이아(이종숙) : 이런 자리를 통해 다양하게 활동하는 동아리들과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습동아리 플랫폼을 만든다고 한참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항상 거창하게 이름만 내걸고 끝나버렸는데 오늘 이 기회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레테이아(이영애) : 다른 공동체들과의 콜라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면 항상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화서동문화사랑방(최진옥) : 이 자리를 통해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니 요즘의 추세를 알게 되고 내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찾아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서동문화사랑방(이은경) :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이야기 듣고 한수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뮤컨셉(송재형) : 만나게되어 반가웠습니다. 공간의 부재에 대해 고민하는 공동체들이 많은데 우리 공간은 항상 열려있으니 무언가 하고자 할 때 공간이 필요하다면 저희 공간은 오케입니다. 각 서점들을 모아보고 공간오픈에 대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좋은3과4연구소(박현자) : 코로나다보니 많이 위축이 되었는데 오늘 참석해서 자극을 많이 받았고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마음의 불이 조금은 지퍼지는 기분입니다.

학습공동체 활동수집 프로젝트 간담회 ·2차·

내가 생각하는 학습공동체의 정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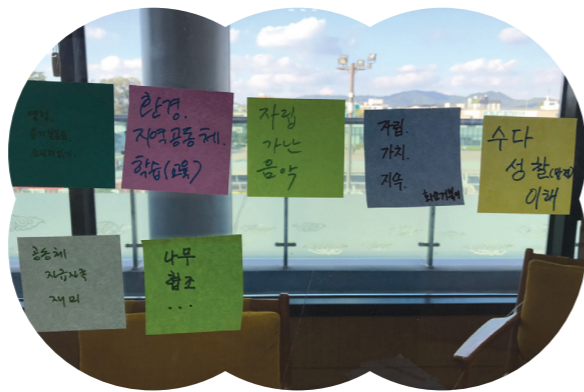
- 일시** 2021년 10월 14일 (목) 14:00~17:00
- 장소** 수원문화재단 2F 회의실
- 활동인원** 소셜드림프로젝트COCOCO 최윤주 대표, 이하윤 연구원 (총2명)
- 참여인원** 학습공동체 활동 시민 7명, 수원문화재단 조혜미 주임 (8명)
- 내용** 관내 학습공동체 활동수집 및 시민 네트워크 강화



학습공동체 소개

key words 활용을 통한 공동체 소개

공동체명(참여자명)	3 Key words
영어 꿈꾸다(최혜란)	#열정 #용기복돋음 #소리쳐읽기
지구사용공부방(신은미)	#환경 #지역공동체 #학습
론프레이어(김동산)	#자립 #가난 #음악
자급자족(김희경)	#공동체 #자급자족 #재미
수다와글쓰기(윤태관)	#수다 #성찰 #이해
화요거북이(유승연)	#자립 #가치 #지속
화요거북이(김옥미)	#나무 #협조



미니토론

화요거북이(김옥미) : 저는 학습이란 단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무언가를 배우기도 하지만 꼭 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의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서 무언가를 이뤄내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면서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것. 저는 활동을 통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는데 학습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에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정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다와글쓰기(윤태관) : 학습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기 성장과 만족, 그리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학습공동체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충족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공동체)활동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 꿈꾸다(최혜란) :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마련한 배움의 장이 학습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성장을 위해 모이고 그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급자족(김희경) : 나 자신이 성장해 가면서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학습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사용공부방(신은미) : 학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강좌를 통해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배워서 지식을 축적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활동 하면서 배운 것을 실천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학습이고, 혼자가 아닌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학습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무언가를 기획하고 만들고 실천하면서 배워나가야 할 필요한 것들을 서로 함께 익혀나가고 공유하고 전달하고 그것이 진정한 학습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급자족(김희경) : 오늘 정말 반가웠습니다. 빨리 모든 분들 전화번호를 여쭙보고 싶네요.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다와글쓰기(윤태관) : 모임을 못한지 조금 오래되었는데 오랜만에 다른 분들과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간 활동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조금 덜어진 것 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화요거북이(유승연) : 하나 남은 공동체 일원이 다른 공동체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큰일이고 (웃음) 저도 다른 공동체에서도 활동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고 모두가 지속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모임원이나 활동인원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화요거북이(김옥미) : 사실 나오기 전에 이 자리에 올까 망설였어요. 이 만남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될지 모르겠고 회의적이고 살짝 거부감도 있었는데 함께 하시는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용기 내서 왔어요. 그런데 막상 오니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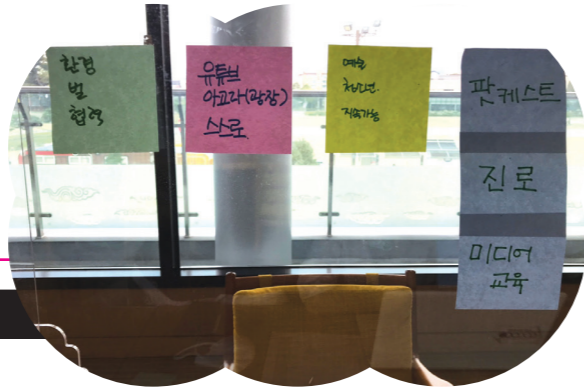
영어 꿈꾸다(최혜란) : 이 자리 이외에도 다음에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사용공부방(신은미) :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어떤 분들과 어떤 모임들을 만나게 될까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이미 알고계신 분들도 있어 너무 반갑고 새로 뵈는 분들도 있어 더욱 즐겁게 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 더 반가워질 것 같아요.

학습공동체 활동수집 프로젝트 간담회 ·3차·

내 삶에서 학습공동체란 어떤 의미인가?

- 일시** 2021년 10월 15일 (금) 10:00~13:00
- 장소** 수원문화재단 2F 회의실
- 활동인원** 소셜드림프로젝트COCOCO 최윤주 대표, 이하윤 연구원 (총2명)
- 참여인원** 학습공동체 활동 시민 4명, 수원문화재단 조혜미 주임 (총5명)
- 내용** 관내 학습공동체 활동수집 및 시민 네트워크 강화



학습공동체 소개

key words 활용을 통한 공동체 소개

공동체명(참여자명)	3 Key words
진로맘(김은희)	#진로 #팟캐스트 #미디어교육
유유자적(손선희)	#유튜브 #아고라(광장) #스스로
공존하는도시양봉가(박미숙)	#환경 #벌 #협력
아트그라운드(이선아)	#예술 #청소년 #지속가능 #모두의 예술놀이터

미니토론

진로맘(김은희) : 진로는 직업의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잡는 것인데 그 방향을 찾아나간다는 것은 삶 전체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로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전에 스스로 본인들의 진로를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로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진로선택 과정이 쉽지 않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라디오 방송을 하기위해 글을 쓰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고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이 가능해져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개선의 방향을 잡아가지가 수월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보통의 엄마에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 되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회에서의 인정과 그에 대한 보수,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생기고 나를 찾아주는 일. 이러한 것들이 40대인 제 자신 스스로 꾸준한 성장의 욕구를 갖게 하고 나의 길을 계속해서 일구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유유자적(손선희) : 저의 일상을 10으로 표현하자면 학습공동체는 3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노력이 1, 강의 등 사회적인 직업적 활동이 4,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부분이 자녀들이 대학 기숙사에 가게 되면서 다행히 2로 줄었습니다. 그 나머지 3 전체가 학습공동체입니다. 숫자로는 3이지만 이 3이라는 숫자가 나머지 7에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존하는도시양봉가(박미숙) : 제게 공동체 활동은 미래 그 자체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제게 주어지는 잉여시간이 늘어났고 50대가 되면서 그 무료한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보내며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라는 고민으로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후 미래 귀농의 대한 꿈이 생겨 귀농을 했을 때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트그라운드(이선아) : 제게 아트그라운드는 소명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다소 행복하지 못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의 기대로 결정된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위한 삶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계기로 바이올린에서 미술로 전향을 하게 되었고 한국에서와는 다른 방식의 교육을 받으면서 어른들이 보여주는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아이의 인생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교육 방식이 한국에서도 적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제3의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감 나누기

진로맘(김은희) : 어제 이 프로젝트 참여 공동체인 '지구사용 공부방'에 방문했습니다. 그 팀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연합과 연대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서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공동체 활동 3년차로 '힘듦'이 온 상태인데, 29일 공유회가 힘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런 부분에 대해 풀어낼 수 있는 연합의 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자적(손선희) :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뜻이 있음을 발견해내고 활동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만 하다 보니 그것 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수원문화재단, 시에서도 관련 된 여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책으로 펼쳐낸 자료집이 어디에 축적이 되고 보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지, 기록이라는 의미 그 이상을 넘어 다양한 곳으로 보급되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존하는도시양봉가(박미숙) : 개인사정으로 도시양봉활동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 (현재 공동체분들과) 같이 쪽 활동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어 내 삶이 좀 더 풍족해짐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트그라운드(이선아) : 바쁘다보니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고, 1주일 전 급하게 연락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같이 어떻게 뻘어나갈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학습공동체 활동수집 프로젝트 간담회 ·4차·

- ① 학습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 ② 다른 이웃들에게 내가 속해있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권유하고 싶은지?

일시 2021년 10월 15일 (금) 14:00~17:00
장소 수원문화재단 2F 회의실
활동인원 소셜드림프로젝트COCOCO 최윤주 대표, 이하윤 연구원 (총2명)
참여인원 학습공동체 활동 시민 5명, 수원문화재단 조혜미 주임 (총6명)
내용 관내 학습공동체 활동수집 및 시민 네트워크 강화



학습공동체 소개

key words 활동을 통한 공동체 소개

공동체명(참여자명)	3 Key words
이야기밥(안성순)	#그림책 #나눔 #섬김
담해복스(이미연)	#창작 #이야기 #책
(사)어린이도서연구회(정은주)	#책 #어린이 #어른인나
(사)어린이도서연구회(김명숙)	#어린이 #독서 #함께성장
초보농부(최혜란)	#무지 #그림에도 불구하고 #성장

미니토론 ①

(사)어린이도서연구회(정은주) : 제도적인 부분에서 기관장(모임장)에게는 (일종의 임금을) 무조건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장기화 되었을 때 과연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상 실무는 기관장(모임장)에게 모두 일임하면서 기본적인 대우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사람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전체가 불합리성을 감수해야만 하는 보수적인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행정의 보조와 지원은 기관들 간의 협력과 성장을 방해합니다. 도서관들은 운영지원금이 평가에 의해 나오는데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수원에 경우에는 한정된 지원금액을 다른 도서관들과 나누어서 받게 되어서 새로운 도서관의 진입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서로가 도움을 주고 협력을 하면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서로 상생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담해복스(이미연) : 창업 이전에는 예비창업자로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업체로서의 성장이 없이) 1년, 2년이 그냥 지나가버리고 연차가 쌓이면서 2년차 기업으로 자격요건이 높아져서 지원사업에 입성이 어려워졌습니다. 현재도 실질적으로는 창업 초창기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인데, 지원은 사라지고 '그럼 다시 폐업을 하고 재창업을 해야하나' 라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또한 규모가 큰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1인 기업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 둘 수 있을만한 여력은 안 되고.. 윤이 좋아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도 서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느라 이에 대한 임금은 없이 본업을 제쳐두어야 하는 상황들, 그래서 지원사업에 참여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가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미니토론 ②

(사)어린이도서연구회(김명숙) : 처음 어린이도서연구회에 회원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가 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어주고 추천해주고 싶어서였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와서 활동하기를 권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서관 운영시간에는 엄마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활동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직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쉽게 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초보농부(최혜란) : 저는 권하고 싶어요. 1년째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누가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자 파트를 맡아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리더의 입장에서 다른 분들에게 활동에 대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불어넣어주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만 괜찮다면 누구나 즐겁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담해복스(이미연) : 서점을 창업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서점에서 책 팔아서 월세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해복스를 오픈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출판사 직원으로 활동 했을 거고 직장에만 다니면서 업무상 관계자들만 만나며 시민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서점을 오픈하고 활동하면서 수원에 대해 고민하고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글쓰기 모임을 진행하면서 성장해나가는 시민회원들을 보면 계속해서 활동하고 싶고 주변사람들에게도 매우 권장하고 싶습니다. 공동체로 엮여졌을 때는 더 오래 더 지속적으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밥(안성순) : 저는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살림만 하는 주부였다가 활동을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집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로서의 그 존재감도 희미해지고, 아이들도 커서 독립을 하고 나면 혼자 집안에 덩그러니 앉아서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러) 나왔을 때 금전적인 보상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보다도 스스로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생활반경이었던 집 밖을 나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고 아직까지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에 감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제가 가진 스킬들을 전수해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학습공동체 활동수집 프로젝트 간담회 ·5차·

학습공동체의 다양성을 위한 방안은?

- 일시** 2021년 10월 22일 (금) 10:00~13:00
- 장소** 수원문화재단 2F 회의실
- 활동인원** 소셜드림프로젝트COCOCO 최윤주 대표, 이하윤 연구원 (총2명)
- 참여인원** 학습공동체 활동 시민 8명, 수원문화재단 조혜미 주임 (총9명)
- 내용** 관내 학습공동체 활동수집 및 시민 네트워크 강화



학습공동체 소개

key words 활용을 통한 공동체 소개

공동체명(참여자명)	3 Key words
곰곰그림책모임(최혜련)	#그림책 #나눔 #성장
살롱시소(박진형)	#음악 #확장 #지역
도깨비(현수정)	#활동 #협업
지오그래피(박은진)	#글씨 #작가 #전시회
다전다회(조병주)	#배움 #나눔 #차(茶)
추천서가기획단(양혜원)	#즐거움 #공유
공부하는주부들(김은영)	#인문학 #독서 #주부모임
생명밥상(김정환)	#지구도살리고 #나도살리고 #요리처럼삶을살자



미니토론

1. 연령의 다양성

공부하는주부들(김은영) :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연결고리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생 정도 되면 학교-학원-집에 도착하면 밤 9시 정도 되거든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한번 해봐 라고 과제를 던져 주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곰곰그림책모임(최혜련) : 플랫폼 말씀을 하셔서 덧붙이자면, <경기 꿈의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자기가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재정적인부분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받으니까 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긴 해요.)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이나 도서관 등 다른 기관들에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 '이런 학습공동체 들이 있었구나'라고 서로 알게된 것처럼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보다 더 다양성 있는 공동체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성비의 다양성

도깨비(현수정) : 모임 구성원의 성비가 다양하지 못한 것은 한정된 시간대에만 프로그램이나 장소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 경우에는 예전엔 토요일을 개방을 해줘서 활동 모임이 토요일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직장생활로 인해 평일 낮 시간에 참여 할 수 없는) 남성 참여자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습관이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주말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엔 평일에 직장을 다니는 남자들(사람들)은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평일에 남성분이 참여하더라도 '직업이 없나' 이런 고정관념을 아직 우리가 못 벗어던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비의 불균형을 탈피하려면 기관의 주말 오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깨비(현수정) : 저는 모임을 선택할 때 모임의 주제만을 고려하지 '나만 여자면 어쩌지?'라는 고민은 안하는 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만 남자, 여자일까 우려하시는 마음이 있나요?

살롱시소(박진형) :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남자가) '발레학원을 간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남자 둘이서 와인 바에 간다.'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이 많은가, 여성이 많은가 하는 문제보다 모임의 주제나 특성에 대해 '여자/남자들이 하는 것' 이런 고정관념이 더 크게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3. 종류의 다양성

도깨비(현수정) : 보통 기관에서 공간 제공을 하려면 공간을 활용하려는 용도가 기관의 목적과 이상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는 영어회화 활동 모임은 무조건 대어 해주는데 저희 같은 (목공) 모임은 대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진입 장벽이 생기게 되요.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활동 모임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공간적 제약이 다양한 종류의 활동모임들에게는 활동의 제약이 되는 거죠.

생명밥상(김정환) : 각자의 개별적인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가진 부분을 이해하고 상호존중 하다보면 보다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문화들이 융합해서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종류의 활동모임이 생겨나면서 학습공동체가 보다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감 나누기

곰곰그림책모임(최혜련) : 저희는 그림책이 좋아서 소그룹으로 모인 모임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학습공동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희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지점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 가는 것 같아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롱시소(박진형) : 저는 계속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생각이 들지만 되게 재미있었어요.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주부들(김은영) :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서 정말 좋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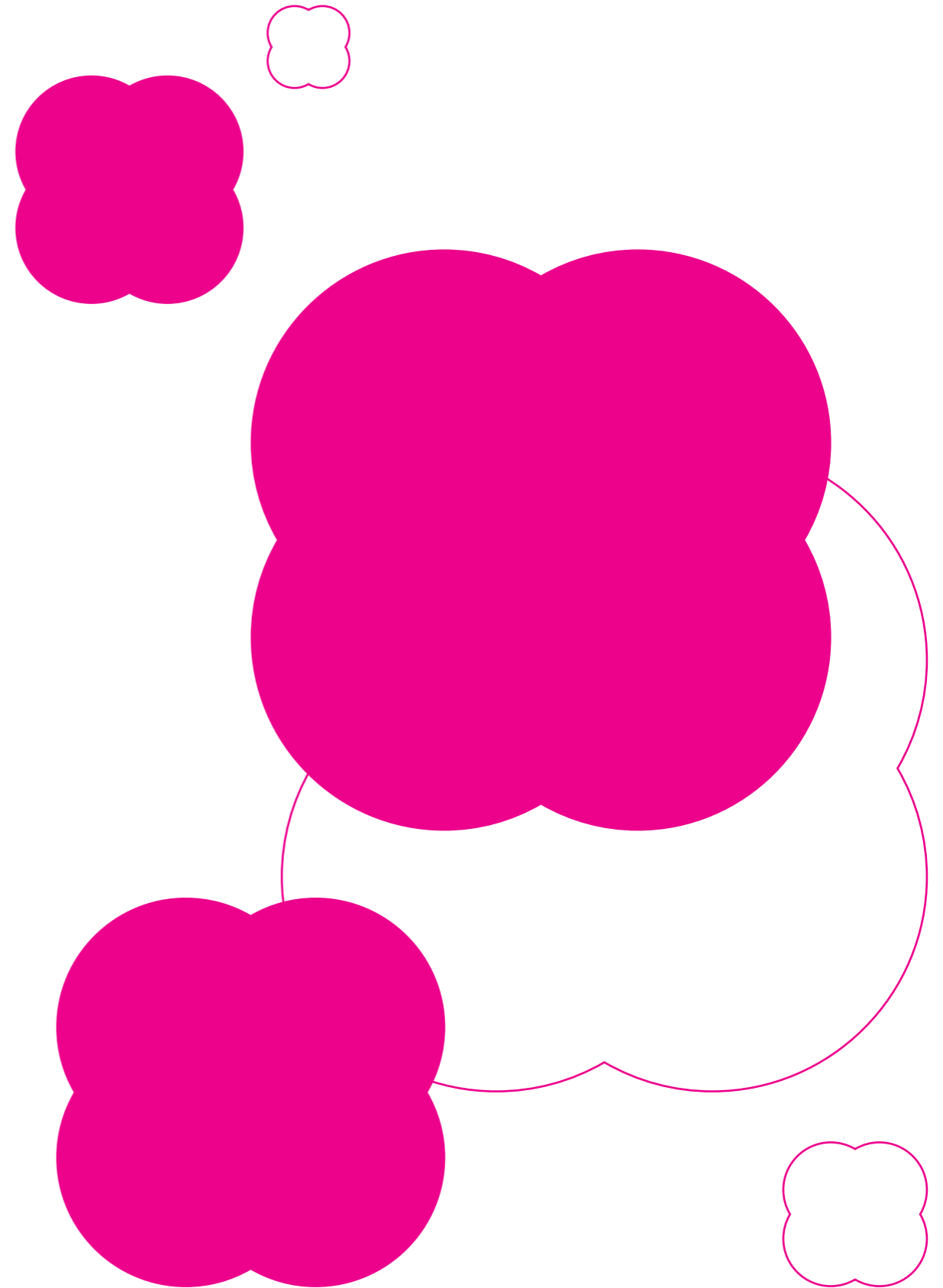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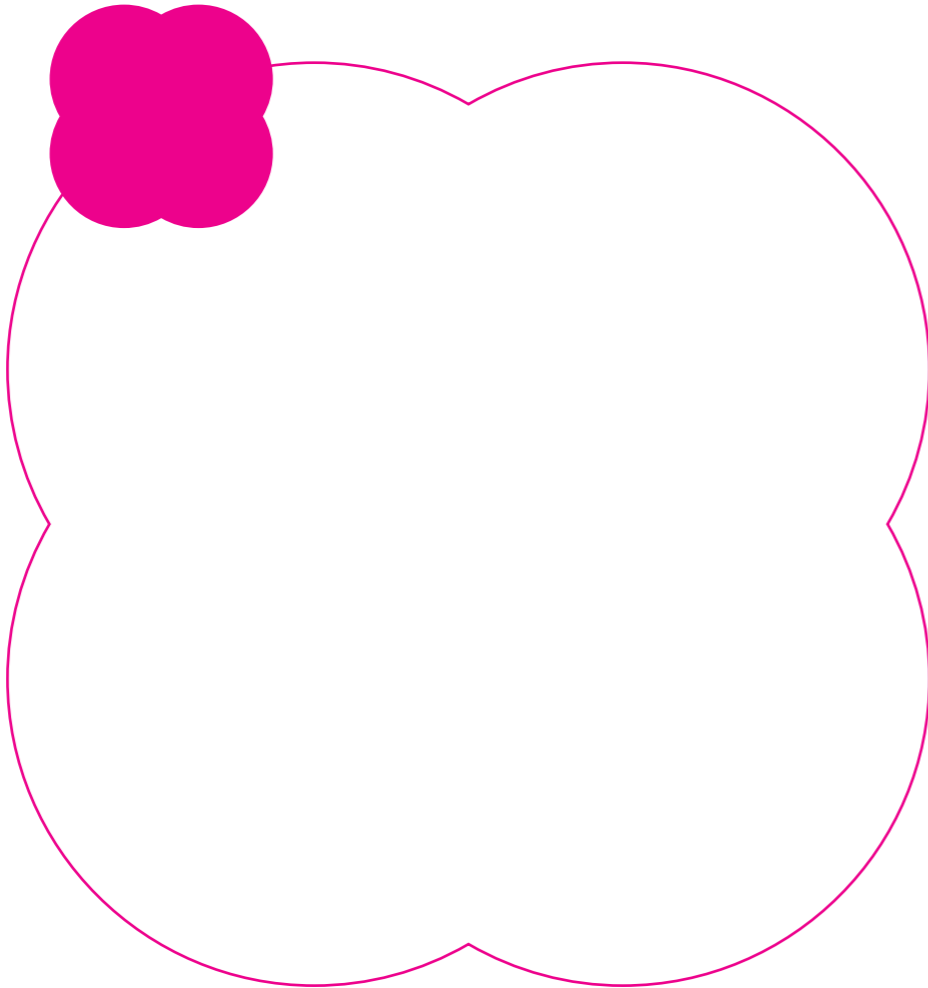
지오그래피(박은진) : 저희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많이 해요.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전시를 위해 글을 많이 찾는데 글귀를 찾는 것이 되게 힘들거든요.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전다회(조병주) : 저도 다양한 선생님들을 뵈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추천서가기획단(양혜원) : 이렇게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즐거웠어요. 공동체에서 인터뷰지 작성을 하면서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도 조금의 결과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생명밥상(김정한) : 우리 모두 각자가 희망점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 동지라는 것을 느꼈고 그것으로 연결되는 이어짐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에 동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학습공동체 활동의 면면 2

- 24 아트그라운드
- 25 알레테이아
- 26 언플러그드우드카빙
- 27 영어꿈꾸다
- 28 오픈테이블
- 29 우만동주민참여위원회
- 30 유유자적
- 31 이견희인두화창작소
- 32 이야기밥
- 33 이야기사랑
- 34 인문학시민기획단(희망샘도서관)
- 35 자급자족(가치가게)
- 36 좋은3과4연구소
- 37 지구사용 공부방
- 38 지오그래피
- 39 진로맘
- 40 책살림
- 41 초보농부
- 42 추천서가 기획단
- 43 호모루덴스
- 44 화서동 문화사랑방
- 45 화요거북이
- 46 7040의 멋진날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아트그라운드스는 2015년에 설립된 예술활동공간으로 수원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방식에 한정을 두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기위해 법적 교육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아트그라운드스는 사업상 학원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저 즐거운 예술놀이터 뿐입니다. 꼭 예술 활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숙제를 하러 오는 아이, 공간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고 싶은 아이들 모두 각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활동을 멈춘 아이들도 공간에 종종 들러 이야기를 하러 오는 걸 보면 코로나 이후 아트그라운드가 다시 우리아이들의 자유로운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트그라운드스는 아이들에게도 활력소가 되는 공간이겠지만, 저희 역시 아이들과 교류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청소년에게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글로벌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창작활동을 하며 어떠한 하나의 예술 활동이 아닌 복합적이고 다양한 예술 활동 시도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청소년들의 주제성 확립과 자기개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저의 청소년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경쟁과 또래문화 속에서의 부적응으로 힘겨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중1에 바이올린전공을 결정한 저는 왜 바이올린을 키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이 진학만을 목적으로 대학을 향한 마라톤선에 서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유학결정으로 중3에 영국유학을 가게 된 이후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함과 그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내가 진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루어졌을 때의 본인이 느꼈던 주제적 힘에 대한 희열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국내였으면 힘들었을 진로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영국에서 시작된 미술교육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가기 전 저는 학업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또래집단의 따돌림의 대상이었고, 지금은 흔하게 말하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그 당시 청소년이었던 제가 감당했던 것이라는 건 30이 다되었을 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문제들은 영국유학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라지는 않았습니. 영국으로 이동 후 약 2년이 지났을 즈음, 영국학교로 고등학교를 진학했고, 미술을 전공과목으로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으며, 선생님들이 보여준 본인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은 줄어들었으며, 우울감과 몇 년간 진행되었던 환청이 사라졌습니다. 예술적 활동은 가장 부작용이 적은 심리치료의 첫 단계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단순히 창작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중 하나라 믿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나를 믿어주는 어른들이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아트그라운드스의 시작점은 창작활동을 하며 주변에서 나를 믿는 어른들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이 어른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많은 국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어른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을까요?”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제3의 어른이 주변에 존재한다면, 다른 시각을 가진 어른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면? 좀 더 다양하고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공간이 주는 중요함은 단지 공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의 유기적인 상호 활동으로 지속성이 가능해진다고 믿습니다.

주체적 예술 활동을 지원하지 못하는 공교육의 한계점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의 예술활동은 크게 아동미술과 입시미술로 나뉩니다. 아동미술은 학부모들이 사교육에서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흔히 말하는(?) 미술적 재능이 없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3학년을 기점으로 1순위로 멈춰지는 활동입니다. 아직까지 한반에 20여명인 학교 시스템에서 체계적 또는 주체적 미술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술을 단순하게 예쁜 미학적으로 바라보고 방과 후의 활동정도로만 충분하다고 느끼는 점도 있겠지만, 사실 아동미술이후의 예술 활동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기관의 부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기엔 선택지가 입시위주의 일률적인 수업으로 창작, 창의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원치 않는 부모님들이 많음을 느끼며, 본인 역시 해외입시를 준비하는 국내학생들과 마주하며, 체계적인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점차적으로 연령을 낮춰 온 결과 아트그라운드스의 주 타겟을 초3학년이상의 청소년으로 잡고 이들과 지속가능하며 삶에서도 계속해서 예술적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는 수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든 부모님께 설명을 드리기엔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 학원은 교육서비스의 대상이고 선택적인 부분이라는 접근에 상담 없이 아트그라운드에 조인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입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아트그라운드 오픈 전 동탄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였는데, 보통 5세의 어린아이를 받지 않는데,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5세라기엔 너무나도 똑똑한 친구였고,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 언제든 수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수업을 진행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얼마 되지 않아 아트그라운드 오픈으로 수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전하신 말씀이 아이가 사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께 학대를 당해 선생님들이 있는 공간에 가면 많이 긴장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활동하면서 많이 좋아졌다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영국에서 대학생시기부터 가르쳤고,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가르친 것을 다 합치면 20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벌써 성인이 되어 미술선생님이 된 친구들도 있고, 각기 다른 예술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걸 보면 뿌듯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직도 제자들이 찾아오고 교류를 하는 걸 보면, 제가 한 활동들이 그리 헛되지 않는나보다 생각합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선생님들은 Moderator 또는 Facilitator의 역할로 최소한의 개입만 합니다.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은 동등한 인격체로 서로를 존중합니다. 받는 원비의 일정부분은 아이들을 위한 투자로 돌아갑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아무래도 공간을 임대하여 사업을 하다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정함이 있습니다. 영리적 공간에서 비영리적 성향의 활동을 어떻게 유지 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큼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과 아트그라운드스의 방향에서 충돌이 나는 경우에 부모에 의해 아이들이 이 공간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정해짐에 따라 아이들이 원치 않더라도 공간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참여자들이 이 공간에 애정을 가진다는 것, 가치관이나 교육철학이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운영한다는 점 (현재 선생님들은 3년 이상 아트그라운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으로 인해 다른 구애를 받지 않으며 하고자하는 활동할 수 있다는 점.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네트워크의 필요성 : 현재 개개인의 역량에만 기대어 운영 중으로 다양한 활동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으나 외부강사나 작가를 초청하여 활동을 진행하기엔 네트워크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한, 외부강사를 강의에 초청 하고 싶지만 한정된 공간과 정규수업으로 인해 추가 강의 개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류의 필요성 : 예전에 수원문화재단에서 진원해주었던 씨티메이커스 동네예술창작소로 모든 선생님이 참여하였으며 재단의 지원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간 : 현재 선생님들이 디지털 수업, 3D 수업(3D프린터), 공예부터 역사, 이론, 회화, 건축까지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나 공간이 부족합니다. 현재 공간에서 90명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미래 투자나 계획을 위해서는 이익의 상승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생수를 늘려야 하나, 수익을 위해 원래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속적 운영체도에 오른 현재위치에서 무리를 감수하며 이동을 하기엔 마땅한 자리가 없고 자연과 충분한 공간으로 옮기는 경우 위치가 청소년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다른 분야의 공동체와 콜라보로 진행 또는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강화를 위해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분들과의 만남을 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학습) 주제

모두의 예술놀이터

구성원(수)

약 90명

활동빈도

주 6일 (월~토)

활동대상

6세~성인 (주 대상은 10세~18세 청소년)

생성시기

2015년

#모두를위한예술놀이터 #다양성의인정 #Act Local,Be Global! KEYWORDS

25

알레테이아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알레테이아는 그리스말로 깨달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림책 활동가들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과 관련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스토리텔링축제에 참여하여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활동내용

실버 : 인지up동화구연. 웃음레크전강체조. 창의 전래놀이. 융합인지 프로그램
아동 : 인성동화. 예술 융합독서지도. 생태 창의 전래놀이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회원 간 교육정보와 교수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아동,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책 활동가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활동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토로하며 힐링이 되고자 만들어 졌습니다. 모임이 거듭되면서 일반적인 수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교환 수업 내용을 기록하고 그것을 자료화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였을 때의 생각이 하나라면 열이 모이며 열 가지가 되기 시작 했습니다. 더 많은 배움도 필요하게 되면서 시나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했고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고유번호가 필요하였고 그렇게 하여 알레테이아라는 공식적인 학습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그림책 활동가가 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고 설 무대가 없어서 의기소침했던 회원들에게 도서관과 노인시설 등의 무대를 마련해주고 회원들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꾼들의 축제인 제 4회 한국국제스토리텔링 축제에 동아리회원의 80%가 참가한 일과 알레테이아가 주관이 되어 수원을 배경으로 한 '그림책, 효를 말하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학습공동체이다 보니 수업에 활용할 자료나 교안 등을 월 1회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교안을 자료집으로 묶고 교육에 필요한 포럼에 참가할 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회비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교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3이상 회의에 참석 하지 않으면 자동 퇴출이 됩니다.. 학습공동체 이름으로 나간 수업에서 얼마간의 수입이 생기면 수입의 20%를 회비로 비축합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처음 시작할 때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나 무대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아리에 들어오면 바로 그림책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 그림책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은데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보니 현장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로 부터 '다른 회원들과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와 함께 모임을 떠났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저희 학습공동체의 경우, 아동과 실버 모든 기관의 수업이 가능한 회원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역량이 생기자 보니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수업들을 맡게 되면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E. dtliso58@hanmail.net

Interviewee. 이종숙

과업에 책임을 다하며 임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나가는 중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알레테이아라는 학습공동체를 만들기 전에는 혼자서 그림책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 의견이 맞지 않아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도 싫었고 혼자만 잘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곳에 신경을 쓴다는 생각이 더 컸었습니다. 이 모임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힐링이 목적이었습니다. 모임이 거듭 되면서 혼자서 멀리 못 간다는 말과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커지면서 지역의 아동 돌봄센터, 복지관, 어르신들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등의 공공시설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학습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제적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한 학습도 필요하고 봉사활동 시 필요한 재료등도 구입해야 하는데 회비로만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도나 시에서는 주관하는 사업이나 수업을 실력이 있는 학습공동체에게 맡겨주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저희 학습공동체는 동화를 개작하여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수화동아리와 함께 농아들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는데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학습공동체 네트워킹을 위한 행사들이 많이 생기고 그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학습동아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나 문화재단이 발 벗고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월 1회 학습동아리 대표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면 그 안에서 연대도 되고 새로운 방안도 모색되리라 봅니다.

활동(학습) 주제

그림책 활동

구성원(수)

50-60대 (15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다문화 아동, 저소득층 아동, 노인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인보호시설 등)

생성시기

2018년

#함께 #공유 #박진 #박진 KEYWORDS

26

정예권기미니카방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깎아 만든 작고 낮은 의자만들기’ 수강생들의 활동모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느리지만 함께 공유하며 배워나갈 것을 희망하며, 공동체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규 회원에게 공방선배로서 내가 가진 기술 나눠주거나, 오픈데이에 놀러온 초등학생들에게 톱질하는 법을 알려주고, 다른 모임원들에게 기술 품앗이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모임과 함께 협업하여 종종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칼만들기, 포크만들기, 호루라기만들기, 지역에서 열리는 북마켓참가 등)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조금은 느리더라도, 오롯이 손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향합니다. 탄탄한 관계망과 거침없는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만들기를 넘어 만물을 통해 다양한 관계와 활동들을 엮어 나가는 중입니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인을 통해 인문학강좌를 소개받았고 강좌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관심이 있던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소심하게 참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타 모임과 협업하여 달력만들기 : 언플러그드카드키빙을 포함한 거북이공방 각 활동모임원이 함께 연말에 모여 사진관을 찾아 한 해 동안의 작업과 이야기를 담은 사진과 글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한 해의 소중한 과정을 기억하고 수줍지만 소중한 나만의 작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각자 먹을 것을 가져와 잔치를 벌이는 시간은 작은 걸음걸음이지만 한 해 동안 각각의 공동체들의 자발적,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활동 내용들을 회기하며 내년의 과정을 희망하고 누리는 풍성한 축제였습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중단된 점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함께 모여 서로의 호흡을 느끼고, 나무 깎는 소리, 질감을 공유하고, 침의 시간에 각자의 소감을 나누고 듣고, 프로젝트를 계획하며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기쁨이 확장되는 소중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자발적, 능동적 활동 시스템 : 먼저 학습에 참여하고 학습의 연장선을 위해 활동모임을 갖기를 희망하게 되고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나눔 공동체 : 모두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먼저 시작한 활동체원이 배운 기술과 노하우를 후배활동체원에게 가르쳐 주며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공동체
수원시평생학습관의 지속가능한 가치공유와 지원시스템 : 활동모임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모임원들과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기획하고 실행해가는 지원시스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공방수업과 학습자 주도활동을 하면서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의 거북이공방의 모든 과정에는 삶과 통합해가며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지속시켜 나가려는 열망이 담겨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 지속가능한 삶을 경험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이토록 이상적인 가치를

E. jgy@aumc.ac.kr Interviewee. 정계영

진실하게 추구하고 실제로 구현해내고 있었다는 것과 그곳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저 취미나 배울 수 있을까하여 거북이공방에 발을 디뎠을 뿐이었는데 배우고, 나누고, 그리고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활동(학습) 주제

목공

구성원(수)

30-50대 (12명)

활동빈도

주1회 혹은 상시
(자율적 활동)

활동대상

주역주민 누구나

생성시기

2016년

#니민 #공동체 #지속
KEYWORDS

27

공동체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저희는 '영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자신을 찾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영어책을 큰소리로 읽어보면서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매주 화요일 10시30분 ~ 11시30분까지 줌에서 만나서 함께 영어원서 'The Little Prince' 읽어요. 비록 완전 초보들이지만 열정만큼은 고수들입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패키지프로그램이 없다면 해외여행이 두려운 50대 언니들이 영어에 맞서는 모임입니다. 가이드 없는 해외여행의 꿈을 꾸며 영어원서 완독하기에 도전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날 지인을 차에 픽업할 일이 있었는데, 마침 외국인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통화'를 그리 부러워하길래 '그럼 같이 공부해요'라고 권유하게 되었고, 그것이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주변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공부방법과 시간을 정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동아리 멤버와의 오프라인에서의 첫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은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습니다. 동아리 멤버 중 한 명이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커피를 마시자는 제안을 했었고 모두가 흔쾌히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실 모두 zoom으로 만나는 게 익숙해져 있는지라, 대면으로 보는 것이 어색하고 데면데면할까 걱정했었습니다. 저기 밖에서 커다란 가방을 들고 우산을 든 모습은 한 눈에 봐도 고3학생이었습니다. 그 가방은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뽁뽁하게 이미 2권을 넘어 버린 공책들뿐 아니라, 같이 읽고 있는 책의 관련 자료 등 꾸러미를 통해 그 열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공부를 준비할 때 더욱 고민하며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긍정적 동기가 되었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혹시나 결석할 경우에 미리 알리기, 서로 격려하기, 숙제하기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9월 중 동아리 모임 시간이 이천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중요한 모임 시간과 맞물려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모임의 반장이 저인지라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동아리 모임을 염두에 두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이천의 어느 길가 한 교회에 부탁해서 인터넷사용을 허락받고, 그 교회 한쪽을 빌려서, 시간을 지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에 조금 늦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없으면 이 모임은 어떻게 될까? 위기감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무엇보다 리더가 지지치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리더의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혹시나 내가 아프면 어쩌지?', '혹시나 갑작스러운 일로 수업을 못하면 어쩌지?', '이러저러한 일로 책 읽기가 멈추면 어쩌지?' 라는 고민 속에서도 서로서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성취감을 맛보면 그게 바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격려의 의미로 출석상, 완독상 같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응원의 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 hrchoi10@hanmail.net

Interviewee. 최혜란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주간계획의 가장 우선순위가 동아리 학습 준비가 되어버린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처음엔 ‘일단 그냥 해 보자’는 용기만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업 준비도 힘들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미루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멤버 대부분이 자신이 없어 ‘음소거’한 채로 마치 구경꾼처럼 가만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씩 ‘음소거’ 해제를 하면서 조금씩 같이 소리 내어 읽기 시작하였고, 점점 목소리들이 커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툴지만 조금씩 해석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동이 커서 먹먹히 한참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동아리 모임 준비가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감동의 커서 동아리 학습 준비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영어’라는 것은 50대 여성들에게 어떤 간절한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치를 이유도 없고, 안하다고 무슨 일이 생기지도 않고,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초보자들 앞에 놓인 ‘완독’이라는 장기적인 목표 앞에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학습공동체 네트워크 활동(모임)으로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학습공동체 네트워크의 관심과 격려는 지역사회의 풀뿌리가 건강하게 단단하게 자리 잡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활동(학습) 주제

영어 원서 읽기

구성원(수)

50대 (8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패키지프로그램 없이
해외여행에 도전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

생성시기

2021년

#열정 #애스 #격려
KEYWORDS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변화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입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촉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화 :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성장 : 개인의 성장이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연결 : 변화의 촉진자들이 연결되기를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오픈테이블은 변화의 촉진자들이 모이고 고민하고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연구·학습·실천 커뮤니티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치있게 만드는 촉진자들의 성장을 돕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습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서로 지지하고 배움을 나누는 과정을 지향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학습은 있으나 배움이 지속될 수 있을까? 배움은 있으나 적용과 실천이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에 다양한 촉진자들과 만나 함께 배우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으나 이 후 지속적으로 촉진자들이 스스로 학습과 배움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변화를 꿈꾸는 촉진자들과 연결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성장하여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좋은 영향력들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고 모여서 고민을 나누고 함께 적용하고 실천할 꺼리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오픈테이블은 실험실이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추구하는 방향만 있었습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의 제안과 내용이 해답이었고 그들과 함께해 나가는 것이 원동력이었습니다. 모여서 학습을 하고 배움을 나누고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어 대화모임들을 꾸리고 사람들을 모아 진행했던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학습의 주체로서 배움을 실천으로 옮기고 확산하는 일상의 변화를 만드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필요한 지역의 요구를 찾아 찾아가는 오픈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변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 의미 있었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촉진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결정과 합의가 중요합니다. 내용을 잘 공유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모임은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주도성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은 모임을 꾸리고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의 과제입니다.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이 모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참여자들을 믿고 자신을 믿고 서로의 힘을 믿고 꾸준히 천천히 지속하는 것이 위기의 순간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모임을 한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품이 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일이 자신에게 중요하고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일이 되지 않으려면 이 일을 함께 만들어가고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해 갈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모임을 만드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 짐이 되지 않으려면 동기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 성장과 즐거움이 지속되고 함께 변화가 만들어지는 호혜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 학습공동체의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나의 관심으로 시작되 남과 연결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학습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관심과 즐거움이 유지되고 서로의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자칭 프로모임러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좋고 모이도록 돕고 자생하고 성장과 변화가 생겨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은 흥미롭고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정이 솟아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양한 모임 중 오픈테이블은 유독 마음이 쓰이는 모임입니다. 이곳에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늘 고민하고 성장과 꿈꾸고 세상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희망과 긍정적 에너지가 가득 찬 이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매 순간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얼마나 다양한 관점과 생각이 있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대화할 수 있는지,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오픈테이블을 통해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배우고 대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알게 됩니다. 타인과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맺음과 만남은 우리의 세상을 넓히고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오픈테이블에 함께 하는 참여자들은 지역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과 활동으로 자신의 방법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움으로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활동가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역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모임을 꾸리기도 합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를 상상하는 모임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지역에 활기를 띠고 변화의 에너지들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 간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연대하고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학습공동체마다 성격과 지향이 다르므로 그 공동체들이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일괄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하나하나의 개성과 특징들이 살아나고 유지 될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생성된 공동체와 안정적으로 꾸리고 있는 공동체에 따라 필요한 지원도 달라지겠지요. 공간이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고 공간은 있으나 확장과 연대가 필요한 곳도 있겠지요. 결국 공동체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들의 동력을 모으고 유지되고 지치지 않고 꾸릴 수 있는 기본적인 힘들을 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공동체의 환경들을 조성하고 규칙들을 만들고 1년 정도 꾸준히 모임에 대한 방향성들을 구성원들이 회고와 정리를 통해 유지하고 참여하고 멤버십을 키우고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을 지원한다면 그 이후에는 참여자들이 자립하고 스스로 꾸려 갈 수 있도록 살피고 묻고 거드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함께 모여서 공리를 하고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볍지만 즐겁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공리 기획해 보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겠네요.

활동(학습) 주제
변화를 위한 대화, 합의,
협력의 방향과 방법
구성원(수)
30-50대 (20명)
활동빈도
월1회
활동대상
모더레이터
생성시기
2015년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주민들 생활의 어려운 점 (전구 교체 등 어르신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과 복지관을 연결하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여 주민생활의 개선을 위해 활동합니다. 직접 주민을 방문하고 마을을 오가면서 주변의 어렵거나 생활 개선이 필요한 주민들을 발굴하여 복지관 혹은 타 기관에 의뢰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주된 활동입니다.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각 동마다 통장님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활동을 도움을 받은 주민들이 우만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주민의 개별 여가 생활에 대한 지원에 도모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지역 내 고령화 문제와 어수선한 동네분위기, 주민들의 알콜중독과 도박행위 등으로 피해를 주민생활을 개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구성원 모집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권유하지 않고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주민들이 보면서 본인이 직접 활동에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3개월 동안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활동의사가 있는가를 판단하여 정식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본인이 지속적인 활동 의사가 없다면 나중에 가능할 때 언제든지 다시 참여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지자체나 기관에 건의를 하면 시/동 등의 지역적 구분으로 타 행정관할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점을 찾는데 한계가 됩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굳은 믿음입니다.

처음에 종교적인 믿음이 없었는데 몸이 불편해 지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종교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내적 변화가 생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활동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지역 주민들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주민들이 서로 싸우며 갈등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사라졌고, 도박하고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이 줄어든 것이 가장 뿌듯하다고 느낍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식사부분은 복지관에서 해결을 주고 있지만 어떠한 활동을 하려고 하다보면 위원들 회비 외에는 별다른 후원과 지원기금이 없어 더 많은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일종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으면 합니다. 기업이나 시 등에서 물품 등의 후원이 이루어진다면 복지관 팀장들과 상의해서 실제로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 운영위원회들의 선행사례들을 보거나 탐방을 통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좋겠습니다.

활동(학습) 주제

주민의 행복한 삶

구성원(수)

50-70대 (10명)

활동빈도

월1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활동대상

우만동 주민

생성시기

2017년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유유자적은 '유투공'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시민학습동아리입니다.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명의 회원이 각자 다른 주제로 시민과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남(대면·비대면)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고르는 일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시민들과 함께 선정된 주제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인문·사회·철학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한 번쯤 궁금했던 것, 근래 나의 관심을 끄는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야기들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홍보물에 '유유자적' 회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학습관을 찾아갔습니다. 7~8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고 학습관 담당자의 기획 의도를 듣고 함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에 이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누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저도 그 부분이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머,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같이 보았는데 깜빡했네요. 내가 놓친 부분을 이야기해 주어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놓치는 부분도 여럿이 함께 보니 꼼꼼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노트에 적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 시간이 좋아서 내가 경험한 이 시간을 다른 시민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유유자적'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2019년 봄, 'Who am I?'(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름으로 '플라톤 아카데미' 영상을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어르신 한 분이 "뭐, 이런 개똥철학이 다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였고 당황스러우면서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본인도 인문학 강연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하는 말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산파술 아닌가요?"라고 해서 모두 웃으면서 공감했습니다. 인문학은 웬지 어렵게 느껴진다고 했더니, 함께 있던 시민이 "인문학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씻어야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집을 나설 때 인사하고... 그냥 그 모든 올바른 행동에서부터 인문학이 시작되고 쌓이는 것이지요.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모여서 생각을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것까지" 라는 말씀을 듣고 인문학에 대한 평소와는 다른 통찰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유유자적' 회원은 각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분야의 다양한 영상들을 찾아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영상을 4개에서 6개 정도 고릅니다. 함께 보는 영상을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름을 정하고 영상을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시민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합니다. '유유자적' 회원은 '유투공' 시간을 이끄는 강사가 아닙니다. 선정한 영상을 미리 보고,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참여자 모두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사람입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평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4시 그리고 저녁 7시에서 9시가 기관에서 보통 성인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이고 '유투공'도 이러한 시간대에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정해진 시간에 참여자를 모으는 것에 고비가 많습니다. 첫째 고비는 참여자가 가능한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행운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고비는 그 날짜, 그 시간에 특별한 다른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셋째 고비는 그 시간과 장소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학습관에서 보낸 문자를 보고 상황이 되면 바로 컴퓨터에 접속하면 되지만 대면인 상황에서는 학습관 근처에 산다고 하더라도 준비하고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 깜빡한 경우에는 집밖을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료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보니 'NO SHOW'가 많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고 나오지 않는 분이 평균적으로 50%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기대한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부분입니다. 참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살아가면서 늘 어떤 것에 관한 관심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초등학생 부모는 자녀 교육, 고등학생 부모는 입시가, 창업을 준비 중이면 성공적인 창업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공감'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현대인은 바쁘게 삶을 살아가며 잘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누군가가 내 말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나도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도 나의 말을 들어주는 시간이 바로 '유투공'입니다. 수다인 듯 수다가 아닌 시간, 소통하면서 정보도 얻으며 서로 힐링이 되는 시간을 함께 만듭니다. 그 시간의 신비한 힘을 '유유자적' 회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봅니다.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심지어 같은 연령대라도 환경이나 경험치에 따라 다른 관점을 가지는 것을 '유투공'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영상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찾아보면서 그 영상이 알려주는 것보다 영상을 함께 보고 나누는 시민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더 공감이 가고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투공' 시간을 함께한 시민들이 열이면 아홉은 말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웃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그 말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 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했던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유투공' 시간을 생각하며 웃음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각자의 이웃과 함께 '유투공'을 찾아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결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하며 자체적인 공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유자적'은 학습관이라는 공개된 장소가 있어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 프로그램의 꽃은 참여자이고 많은 이가 찾아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유투공' 프로그램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일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시민도 '유투공'이라는 시간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고, 홍보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다른 색과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활동과 고민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모이는 지역과 연령대가 다르며 그 다름이 모이면 새로움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 수업에 ‘통합학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합학습은 과목의 경계를 뛰어넘는 학습법으로 국어 시간에 쓴 시를 음악으로 만들고, 몸으로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과학 시간에 알게 된 내용을 연극을 만들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설문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학습공동체 네트워크에서도 이루어져서, 멋진 협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유유자적’은 각각의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또는 그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골라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장(場)을 마련하여 학습공동체 회원 한 분 한 분이 자신에게 감명을 준 영상을 선정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유유자적’이 함께 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학습공동체 안에서 ‘유투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유유자적’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은 ‘유유자적’의 운영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활동(학습) 주제

인문·사회·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영상을 시민과 함께 보고 생각을 나누는 것

구성원(수)

40-50대 (6명)

활동빈도

분기별1회

활동대상

학습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유투공’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생성시기

2018년

#유투공 #관장토크 #공감과치유
KEY WORDS

31

이건희인두화창작소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수원지역에서 인두화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지난 2014년을 시작으로 올해 8년째 접어들었고 (회원들의) 개인적 스킬이 날로 향상되고 있으며 전시회 출품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수원시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지구내의 사라져가는 우리의 생활모습 등을 인두화로 표현해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성 있는 작품 활동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휴대폰 없이도 몰두할 수 있는 인두화를 통해 힐링을 추구하고 회화적 기법으로서 인두화의 서정적인 면들도 추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 인두화를 통해 힐링 추구
- 인두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 표현
- 색다른 회화기법 인두화 보급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학습공동체를 시작할 무렵인 2014년도는 인두화가 널리 보급되기 전이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인두화를 배우기 위해 관련서적을 찾아보고 외국 사이트를 통해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3년여 동안 어느 정도의 인두화 스킬을 익히고 개인전시회를 가지면서 인두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현재의 ‘이건희인두화창작소’ 라는 공동체를 통해 인두화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노력하면서 현재는 일정 수준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화성문화제 등 지역 문화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회원들이 작품활동에 전념하면서 탄생시킨 작품을 매년 2회 정도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방에서는 주민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 수원시 마을공동체 인두화 수업
-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마을공동체 인두화 수업
- 인디밴드와 인두화 콜라보 공연
-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브라운트리창작교실’ 운영
- 수원 도심재개발 우리들의 삶 인두화 전시회
- 전국 평생학습축제 인두화 교실 운영
- 전국 청소년박람회 ‘스마트폰은 싫어 인두화에 몰두할래’
- ‘인두화 인문도시 수원을 품다’ 전시회 수원시내 공공기관 20곳 순회 전시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수원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도 운영의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 지원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공동체 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수원 행궁동이 젊음이 넘쳐나는 핫플레이스로 거듭나면서 임대료가 치솟아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형태의 공방을 운영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인두화를 사랑하는 회원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저버릴 수 없어 초창기에 비해 임대료는 2~3배 올랐지만 견뎌보려고 합니다.

E. proud66@hanmail.net
H. blog.naver.com/jimiart66
Interviewee. 이견희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회원들의 의지와 애착심에 공동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두화 작가로서의 자존심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인두화를 시작한지 8년여가 지나면서 (시민들의) 인두화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인두화를 반기는 수원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원의 핫플레이스인 행궁동에서 8년째 공방을 운영하면서, 현재는 솟아오르는 월세로 인해 공방을 유지하기가 다소 버겁지만 찾아오는 시민들과 인두화를 배우려는 회원들의 관심이 공방을 유지하고자 하는 표상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 찾아와 공방과 인두화를 소개하면서 이제는 인두화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는 곳에서 전화도 걸려오고 있습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강사료나 재료비가 턱없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저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활동 중인 강사들도 마찬가지로 저렴한 강사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활동(학습) 주제

한국 전통인두화를 통해

힐링 추구

구성원(수)

40-60대 (35명)

활동빈도

월2회

활동대상

수원시민

생성시기

2014년

#진중 #감성 #전통
KEYWORDS

32

이야기 밥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그림책을 사랑하는 주부들로 구성되어 그림책의 사랑스러움만큼이나 마음도 생각도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공주(공부하는 주부)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알고 이를 실천하고자 '호매실도서관'에서 주1회 줌을 통한 책놀이 수업을 재능기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그림책을 통해 영.유아 뿐만 아니라, 소외 계층 및 시니어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같이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호매실도서관 <스토리가 있는 책놀이 지도> 프로그램의 후속모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접수를 놓치신 어머님께서 호매실도서관 담당 사서 분께 전화해서는 '우리 아이는 유치원도 안 다녀요. 그래서 이야기 밥은 꼭 들어야 합니다. 제발 추가 접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며 부탁하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감사하고 잊지 못할 순간 입니다. 그 후로 매번 빛의 속도로 접수해 주고 계십니다. 한 달의 한번 접수 일에는 5분도 안 되서 접수마감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매달 벌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이야기 밥 원칙(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 기울여 듣기
2.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3. 무조건 반대하지 않기
4. 못나오면 하루 전에 알려주기
5. 늦으면 미리 연락하기
6. 함께 만들어 간다는 태도 갖기
7. 잘 못 따라 오는 사람 무시하지 않기
8. 어렵게 한 이야기에 대해 비밀 지키기
9. 잘 하는 사람 시샘하지 않기
10. 맡은 역할 성실히 하기
11. 즐거운 분위기 만들기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동아리 지원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작년에 계획했던 인형극 활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그동안 대본을 쓰고 역할을 정해 연습해 왔던 모두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 팀원들의 의욕이 저하될까 가장 염려됩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며 서로를 신뢰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요인입니다. 가족 같은 동아리 분위기가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E. rrabue2@naver.com
H. blog.naver.com/rrabue2
Interviewee. 안성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모두 주춤하고 있을 때 온라인 줌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 그림책 수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누군가는 재능기부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며 무모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양서를 아이에게 먹이자’는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우리 [이야기 밥]은 그렇게 서툴지만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숙한 선생님들에게 주회씩 줌 사용법 강의를 시작으로, 강의 스킬 및 그림책 보는 안목을 넓히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그 어느 그림책 활동가들과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명실상부한 그림책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유아교육전문 도서관’인 ‘호매실 도서관’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 생각합니다. 그림책을 보고, 노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감사한 후기들도 매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그림책 활동으로 우리 아이들을 ‘평생 독자’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우리 ‘이야기 밥’ 식구들 모두의 바람입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동아리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재료비 및 인형극 공연을 위한 무대 및 소품과 언제든지 모여서 연습할 수 있고, 그림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양성 할 수 있는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림책으로 가치를 성장시키는데 동참하길 바라며 ‘그림책’과 ‘창작’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그림책을 통한 자기 발견 및 그림책 연구에 동참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그림책 전문 강사로써 언제든지 자원하여 도움을 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많은 분들께 그림책으로 위로해 드리는 ‘그림책 테라피’수업을 함께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활동(학습) 주제
삼시세끼 건강한 밥을 먹듯
좋은 양서를
아이들에게 먹이자
구성원(수)
30-40대 (10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유아 및 아동
생성시기
2019년 12월 6일

#그림책 #나눔 #감사
KEYWORDS

이야기 사랑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지역 어르신들이 도서관에 모여 그림책을 읽고 나누며, 어린이 집 등 유아기관, 초등학교 저학년을 찾아가서 그림책 들려주는 활동을 준비합니다. 또한 도서관에서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여 그림책을 동극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나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으로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합니다. 1년에 한번 가을학기에 회원을 모집하는 실버양성과정을 통해서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책 읽어주는 어르신 강좌 후속 모임으로 결성되어 이야기 들려주기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자기계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간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 1.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면서 사회활동 퇴직과 은퇴로 시간적 여유가 생긴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역봉사활동으로 참여시켜 보자는 의도
- 2. 어릴 적 무릎베게에서 들었던 할머니들의 옛이야기에 대한 향수
- 3. 제 2의 양육자가 된 어르신들의 관심(그림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리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도서관 정기행사(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에서 지역 주민을 이야기잔치 행사 중 그림책을 대본 만들어 동극 공연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고 즐거웠다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역 병설유치원에 방문하여 그림책 읽어주기로 한해를 마감하면서 유치원 아이들과 담당선생님의 그림편지를 묶어서 받았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60세 이상 도서관을 좋아하는 지역 어르신과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실버양성과정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1회 기관 방문 자원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활동은 2명이 2인1조로 1년 동안 하나의 기관 방문을 하면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참여의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매주 1회 꾸준한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과의 약속된 시간이라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어린이를 만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매번 곁돌던 아이가 몇 달이 지나자 앞으로 나와 듣기 시작했을 때는 감격스러움이 큼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공동체 :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결성
그림책 : 모임 활동의 매개가 그림책으로 함께 읽는 즐거움
나눔 : 한주 하루, 한 끼의 점심을 나누고, 내가 가진 역량을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매주 참여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기대감, 매주 만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즐거운 기대와 호기심, 도서관에서 만나는 독서의 즐거움, 자신감, 지역에서 ‘책읽어주는 할머니선생님’으로 인사를 받게 된 점

E. hmslib@hanmail.net

Interviewee. 오혜영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모임을 위한 공간의 지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모임을 하다보면 식사나 공연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독립적인 공간이 있으면 활동에 자유로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코로나 이후 활동 단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림책이나 동화구연으로 유아기관에 참여해서 그림책 들려주는 단체가 많습니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흐르는 활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버세대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활동(학습) 주제
그림책 및 옛이야기
읽고 나누기
구성원(수)
60-70대 (13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그림책, 도서관활동에
관심 있으신 지역 어르신
생성시기
2008년

#어르신 #그림책 #실버활동가 #읽어주기활동
KEY WORDS

34

인문학 시민기획단 (희망샘도서관)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좋은 얹이 착한 실천을 이끌어냅니다. 지구와 우리 사회의 변화, 그에 시작이 되는 나의 변화를 위한 공부와 실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진행된 희망샘도서관 인문학산책의 참여자들이 모여 매주 학습모임을 이어왔습니다. 학습이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정보와 용기를 주고받습니다. 희망샘인문학산책을 기획·진행하며 더 많은 시민이 밟고 들어 올 ‘마음에 주단을 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우리 사회, 그리고 나의 진보적 변화를 위해 공부하고 앞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내며 이웃과 지역으로 변화와 행동의 확산을 모색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희망샘도서관은 수원 YMCA가 2006년부터 위탁 운영하는 작은 공공도서관으로서 사람과 지식을, 지식과 행동을,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고자 역할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오다가 2009년도에 인문학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미나와 강좌 형태의 인문학 학습 붐이 일었지만 서울 중심이어서, 수원의 서쪽 끝자락 고색동에서도 인문학 탐구가 가능해야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기획하고 시민을 모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인문학산책의 참여자로 모여진 시민들이 우리의 공부를 기획하고 펼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주제를 선정하고 학습과정을 갖고 강좌를 구성해서 이웃시민들을 더 불러모아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름을 따로 붙이지도 않고 희망샘도서관에 소속된 인문학산책을 기획하는 시민들로서 12번째 목요일 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원에서 듣기 힘든 강의를 듣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책을 쓴 사람을 실제 만나 볼 수 있다는 게 나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행사나 교육이 흔하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그런 일은 흔하지 않았어요. 일상적으로 인문학산책 프로그램에서 저명한 작가와 학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컸어요”

기획단 조정현

“우연히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발견해서 희망샘도서관에 오게 되었어요. 강의를 들으려고 왔는데 강의 끝나고 남아서 함께 이야기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같이 했어요. 그러다 기획단에 참여하는지도 모르고 참여했던 거 같아요. 아마 기획단 모집한다는 안내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별 인식이 없었어요. 강의 후 뒤풀이도 가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어요.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어요. 단순 강의 참여와 기획단 활동은 분명 역할이 다르지만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녹아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해요”

기획단 오천석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사회와 시대의 이슈를 담아내는 주제와 내용으로 인문학 과정 구성
2014년 <가만히 있을...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난 우리사회가 돌아봐야할 안전사회, 안전권
2017년 <우린, 혐오에 대해 이야기해야한다>혐오의 구조와 양상들, 평화감수성
2018년 <목요일의 페미니즘>페미니즘의 철학, '남자다움'이라는 불가능한 정체성, 몸의 정치학
2020년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선택해야할 전환
‘세월호를 기억하는 책문화의 밤’ (2014년 9월24일): 인문학기획단이 기획하고 진행하여

E. hmsimh@daum.net
H. blog.naver.com/hmslib
Interviewee. 희망샘도서관

수원역 광장에서 낭송과 대담, 공연 등으로 세월호를 함께 기억하고 연대함
 2016년 총선 시기, <소수정당 비례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 기획·진행. 양대 정당 체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의제 정당들의 빛나는 정책과 비례대표 후보들 제대로 알아보기
 “대선과 총선이 같이 있었던 2012년에는 선택의 숙제를 맞는 시민으로서, 시민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시민이 되기 위한 공부는 어떤 것인가를 향해가는 <시민, 시민을 만나다>를 기획했던 기억이 난다. 공부도 해가며 치러낸 대선과 총선에서 실망과 좌절을 했고, 도대체 인문학 공부를 해서 뭐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음해는 자본주의가 극대화해가는 초불안사회를 넘어서는 대안과 희망을 주제로 하며 노동과 세금, 협동조합 등을 다루었다.”
2016년 인문학산책 8주년 대담 기록

그 외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 도서관에서 All Night 프로그램에 참여한 활동이 좋았고, 같이 먹거리를 만들고 먹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기획단 전우배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우리만의 학습과 성장을 목표하지 않고 이웃, 시민들을 모으고 나누며 확산합니다. 참여하기를 권하고 어떤 역할과 방식으로든 참여합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길게는 12년, 짧아도 3~4년을 함께 해온 익숙함과 당연함이, 새롭게 기획단 활동에 첫발을 들이신 분들에게 이질적 요소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새로운 참여자의 적극적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 출입이 중단되면서 거점을 잃고 만남이 축소되었습니다. 인문학기획단에 결집력으로 작용한 요소들이 금지되면서 운영 및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실무영역이 축소되고 구조가 변경되면서 기획단 내부 동력이 약화되는 현재 시점이 위기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지난 과정을 통해 함께 한 ‘시민’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속의 인문학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공동체 운영과 활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샘도서관의 공간 및 실무적 뒷받침과 기획단 중심인물들의 헌신과 참여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기획단 활동이 있는 목요일에는 다른 일정을 안 잡게 되었습니다. 사회 현상과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마주하면서 변화와 해결을 위한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나가게 되었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활동에서 마을, 지역이야기까지 주제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자원 활동가로 참여하면서 거듭나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획단 김정환

“제가 제안해서 변화를 만든 사례는 도서관 앞에 버스정류장을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주민편익시설 앞에 왜 정류장이 없을까. 개관 때부터 요구를 했는데 예산 등의 이유로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걸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제안하고 결과까지 이어졌어요.”
기획단 오천석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 지역 사회문제와 공동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기획단 전우배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사회문제들에 마음과 행동으로 연대하는 길을 넓혔어요. 쌍용차 굴뚝농성장이나 재능교육 농성 지지방문, 송전탑 반대 밀양 방문, 경진여객 버스노동자 부당하고 반대에 찾아가고 연대의 마음을 전달했어요. 세월호 집회에서 발언도 하지만, 카드섹션이나 다양한 방식으로의 참여가 우리 안에서 제안되어 준비하고 보여내었죠.”
2016 인문학산책 8주년 대담 기록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모임과 활동이 보장되는 공적 공간, 아무리 온라인 시대이지만 대면하는 힘을 인정하고 방법을 찾아주는 제도적 뒷받침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도서관, 평생교육과, 문화재단 등의 관련 행정부서나 기구들이 학습공동체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활동 정보 공유의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

활동(학습) 주제
 지구와 사회와
 나의 진보적 변화
 구성원(수)
 30~60대 (15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시민
 생성시기
 2009년

#반과술 #지구생활자의덕목 #목요일 #행복한비주류
 #공부는깃털만큼실천은산책처럼 #희망샘바라기
 KEY WORDS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자본에 심각하게 의존되어있는 삶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여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필수적인 비자본적 가치(우리는 그것을 그림자 가치로 명명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사, 돌봄, 예술 등 삶에서 익힌 기술과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배우면서 각자의 색깔을 찾아 나가는 모임입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작'하고, 노하우를 '교환'하고, 때때로 '연대'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가치들에 주목하여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모임을 지향합니다. 현재는 환경가치에 주목하여 필요한 것들을 제작하되, 버려질 것들을 재활용하거나 기부, 교환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너무나도 가치 있되, 가치 있게 취급되지 못하던 것들, 소위 비생산적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갖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나가되 값싸게 거래되는 것들을 지양하고 필요에 맞춰 공들여 만들어 냄으로써 자신만의 가치를 창출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동기만으로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함께 하는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가장 처음 했던 통바지 워크숍. 바지제작의 특성상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워크숍이 끝나는 날 한데 모여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배움의 과정이 어렵기는 하였으나 유쾌하였고, 다양한 몸에 맞춘 같은 패션의 옷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된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누구나 선생이 되고, 학생이 될 수 있는 시스템. 서류가 아닌 삶으로 몸으로 배운 흔적을 자격으로 인정하여 각자의 기술을 서로 나누는 데에 의미를 둡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서로의 관심사가 조금씩 달라서 모임의 결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이디어의 고갈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기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유기적 성격을 가지므로 흘러가는 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느슨한 연대. 지나친 의무감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은 가급적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는 예상치 못했던 배움의 폭을 갖게 된 점을 들 수 있고, 지역에 생긴 변화로는 필요를 따라 찾아오는 사람이 생겨나고 조금씩 멤버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전문성이 약하다 보니 때때로 좋은 강사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작가들과의 협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연대하거나 상호방문 등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학습) 주제

제작모임

구성원(수)

30-50대 (10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마을주민 누구나

생성시기

2020년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은퇴한 시니어들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운동을 일으켜 지역사회에 건강한 죽음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음준비교육과 임종기에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견을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 및 등록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지역사회에 건강한 죽음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은퇴한 시니어들이 자신과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2017년 경기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웰다잉에 관심을 가진 수원시민 대상으로 8회 차에 걸친 웰다잉 교육과 호스피스병원 견학 및 웰다잉 영화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수명이 길어진 현대사회에서 건강할 때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것을 계기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평가해주셨습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새로운 회원을 확보하고 교육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보니 선뜻 입문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대표는 돌아가면서 말아야 조직에 새로운 바람도 불고 변화가 생길텐데 아무도 말하려고 하지않아 정체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회원들을 위한 재충전 프로그램, 활동공간 확보, 활동비용 제공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뿌리를 내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보람도 느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론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타 학습공동체와 협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동화구연팀이나 다도팀과도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활동(학습) 주제
좋은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

구성원(수)
6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은퇴 후 새로운 역할을 찾는 시니어

생성시기
2016년

#나이어렵 #죽음 #사회적역할
KEY WORDS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 2019. 08 지구환경놀이 (포레포레 생활문화) 천연수세미, 소프트 세제 등 늘 쓰는 물건 착하게 바꾸기
- 2019. 10 경기도환경교육자료 공모전 교구부문 장려상 수상
- 2021. 05~ 텃밭 참여(경기생활문화센터) 채소 가꾸기
- 2021. 08~ 환경동화로 만나는 상상여행(경기상상캠퍼스 생활창작공방) 어린이들과 환경을 주제로 한 그림책 을 읽고 이야기 나누며 창작활동을 하는 교육활동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환경 및 지역공동체 내의 다양한 공익활동, 환경 및 지역공동체 발전방향 연구조사 및 토론회, 환경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영상제작, 지역사회 정보, 이슈 온라인 정보망 구축과 소통과 학습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진 주부들이 어쩔 수 없이 배출하게 되는 플라스틱 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플라스틱,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한 다양한 생각과 실천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추진하고자 모임하며 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교육활동 마지막 회차 끝나고 만족도조사 시, 학부모와 아이들로 부터 다음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긍정 반응이 나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자발적인 참여 우선시, 만장일치가 되도록 의견통합(아직 소수인원이기에 가능하다고 여겨짐), 자유로운 의견 제시 및 적극적인 피드백, 상호존중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및 활동 중단되거나, 육아와 일을 함께 병행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의 공백이 생길 때, 그리고 회사에 일이 바빠질 때 병행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함께 해보는 모임, 환경을 위한 실천과 교육의 필요성 공유, 추후 아이들이 커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지속가능한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믿음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기여했다는 뿌듯함과 자신감 증가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함께 해가는 즐거움이 커졌습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안정적인 활동 공간과 안정적인 또는 꾸준한 활동이 가능한 금전적 지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비영리추구로 공모사업 참여 외에 활동 시 재정적 한계가 발생하곤 합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학습공동체 네트워크 활동 참여 희망, 경기상상캠퍼스 입주단체와 연계활동 모색 중, 다른 소모임과의 콜라보 기대

활동(학습) 주제
환경 및 지역 공동체
구성원(수)
10명 미만
활동빈도
주1회 ~ 월1회
활동대상
지역주민과 어린이
생성시기
2019년

#환경 #지역공동체 #학습
KEYWORDS

38

지오그라피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글씨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들의 회화 장르는 글씨가 그 중심에 있으니 캘리그래피와 디자인 전각, 서예 강습 및 체험 진행을 통해 한글이 지닌 아름다움을 글씨로 표현하고 작품화하여 작가 개인의 자부심과 즐거움을 공유하며 학습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입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캘리그래피 강습법, 전시회 활동을 통하여 자긍심과 즐거움을 느끼며 다양한 기법의 캘리그래피 학습경험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지오그라피’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역주민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작품전시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해 보고자 학습동지를 신청했고, 선정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글씨로 하나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동안 2019 서울ADEX(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캘리그래피 체험 부스도 운영 했었고, 공군참모총장주관 외국무관단 초청행사 디자인전각 체험부스운영, 경기민속예술축제 캘리그래피 체험부스운영과 고려대학교/송실대학교/명지대학교 한국어학당 외국인 학생 캘리그래피 & 디자인전각 체험운영 등을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수원시평생학습축제에서 디자인전각 열림존 ‘대상(수원시장상)’을 수상 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외부 지원 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보니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소홀합니다. 이들과 함께 하려면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운영자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재능기부’라고 강요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학습공동체도, 문화예술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유료화가 원칙’입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위축된 활동으로 인해 경제적 지원의 어려움이 가장 컸고, 대면활동이 주된 목표인데 온라인의 한계로 인해 작품 활동과 작가들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웠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된 활동이 작품전시나 노출을 통해 꾸준히 발전하고 항상 ‘다음에 또’ 라는 기대를 가질 만큼의 학습 퀄리티와 관계형성이 병행해야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글씨와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캘리그래피 강사들과 서예, 디자인전각 등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의 교류도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에 관련된 일들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당연히 수원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속한 회사의 위치가 지역주민들에게 노출된 아파트 단지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 강습생들도 생겨나고 또 이들과 작품 활동을 하다보니 생활 속에서 일궈낸

E. cmsaf@naver.com
H. blog.naver.com/cmsaf
Interviewee. 김영필

일상문화예술이라고 할 만큼의 대중성이 더욱 신장되었습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학습공동체의 존재에 대한 홍보와 광고라 봅니다. 지역 주민 등의 입장에서 어떻게 쉽게 접근해야 하는지의 대안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전문 강사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학습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된 활동이 작품전시나 노출을 통해 꾸준히 발전하고 항상 '다음에 또' 라는 기대를 가질 만큼의 학습 퀄리티와 관계형성이 병행해야 합니다.

활동(학습) 주제	글씨로 하나 되는 세상
구성원(수)	110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수원시내 연령구분 없이 누구나
생성시기	2019년

#글씨 #작가 #전시회
KEY WORDS

39

진로맘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2018년부터 방송을 시작한 진로맘은 엄마의 진로와 아이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 더불어 삶에 대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중입니다. 또한 진로교육과 교육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니, 우리 마을의 여러 자원(인적, 물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의 관심을 마을로 펼쳐 청소년과 학교 그리고 마을사람들을 연결하며 함께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있는 장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맘의 장점인 팟캐스트를 포함한 영상 제작 및 다양한 미디어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주구성원이 수원청소년재단에서 활동 중인 진로코치들로 구성된 진로맘은 진로코치로 활동하며 알게 된 다양한 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여러 사람들과 공유코자 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2018년 봄, 수원청소년재단 소속 진로코치들이 진로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특히 수원지역의 진로정보를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수원미디어센터에서 라디오 제작교육을 받고,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진로교육이나 팟캐스트 방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멤버로 영입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진로맘은 팟빵과 유튜브에 콘텐츠를 업로드할 뿐 아니라 코로나 전에는 다양한 곳에서 공개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수원화성에서 열린 한국지역도서전과 2019년 광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진로박람회 그리고 수원지역 학교 행사에서 이웃들과 함께 하는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눈빛으로 진로맘 방송을 지켜보던 사람들(가족 포함)이 방송이 끝난 후에 너무 좋았다면서 다음에 언제 또 하느냐고 물어봐주셨을 때 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자발적인 의지로 팟캐스트 방송에 참여하고, 팀내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모임이 불가하고 이로 인해 콘텐츠 제작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 진로맘은 자주 모여 의견을 나누며, 작은 아이디어도 발전시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우리 진로맘은 학부모들이 진로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나와 이웃과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마을미디어의 재미를 알아가는 모습을 보며 존재의 의미를 찾곤 합니다. 앞으로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 마을미디어의 즐거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E. jinromom@gmail.com

Interviewee. 김은희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개인적인 측면: 저는 평소에 라디오나 미디어에 관심이 많진 않았지만, 진로맘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미디어 교육(팟캐스트, 영상 촬영 및 제작, 유튜브 제작 등의 미디어 교육)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미디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며, 지금의 자리에 서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게 펼쳐진 이 길에 만난 사람들과 소통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단체적인 측면: 2020년 선행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팟캐스트 교육 후, 지속적으로 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토로 역할중에 학부모 라디오팀은 2021년에 학교 내 방송실을 마련하고 코로나로 인한 학교와 학부모간의 단절을 막고 소통하는데 팟캐스트 방송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아무래도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미디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주 인력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향후 학습공동체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활동(학습) 주제

진로교육 팟캐스트

구성원(수)

8명

활동빈도

월 2회

활동대상

청소년 및 학부모

생성시기

2018년

#진로 #마음미디어 #미디어교육
KEYWORDS

40

책살림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희망샘도서관에서 파손된 책을 고치며 담소를 나누는 책 보수 팀 ‘책살림’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책’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 자원입니다. 일반 테이프와 스테이플러로 책을 빠르게 고치는 방법은, 책이 일시적으로 튼튼하게 보이도록 하지만 사실 책을 더 파손하는 주범입니다. 모두가 함께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책 보수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또한 일반 이용자에게 책을 소중히 다루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공공도서관의 파손된 책을 고치며, 공공자원의 순환과 제책의 의미를 배웁니다. 일반 테이프와 글루건, 스테이플러를 이용한 책 보수를 지양하고, 올바른 책 수리 방법을 고민합니다. 도서관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도서관 책 이용법을 안내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책 보수 활동 시작의 계기는 활동가 모두 다양했습니다. 제책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 도서관이 가깝고 책이 좋아서 / 책 고치는 방법이 신기해서 / 친한 친구의 추천 / 갱년기 우울증 극복 / 지속적인 봉사 실천 등 모두가 다양한 계기로 도서관에 모였습니다. 당시 수원시 내에서 책 보수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많이 없었고, 희망샘도서관에서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지금까지 책살림 활동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방학마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도서관학교 프로그램 진행이 기억에 남습니다. 도서관학교에서 진행되는 책살림 프로그램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도서관 책을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고 아픈 책을 함께 고쳐보는 활동을 합니다. 함께 사용하는 공공 자원의 소중함을 알릴뿐만 아니라, 진행자로서 인근 지역의 아동 청소년과 함께 만나며 아이들에 대한 선입견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살림 활동을 이어가며 도서관에서 책 보수 방법을 배우며 책을 뜯을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도 인상적입니다. 그림책을 분해하며 책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살펴보고 한 땀 한 땀 고칩니다. 한 권의 책이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나름대로 뿌듯한 결과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책살림 운영을 소개할 땐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몇 회 이상 불참 시 탈퇴’ 등의 운영상의 제한 및 원칙은 없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로 활동을 이어가야 참여자도 부담 없이 오래 모임을 지속하게 됩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코로나19로 도서관이 휴관하게 되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책 보수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소분한 재료와 파손도서를 각자 집에 가져가서 고치는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보다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허무하고 아쉬웠습니다. 책 보수 활동을 하며 책을 고치는 재미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재미로 참여하곤 했는데,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단절된 환경이 아쉬웠습니다.

E. dublincore@hanmail.net

Interviewee. 류수연

활동(학습) 주제

도서관 책 보수

구성원(수)

11명

활동빈도

방학 제외 매주 금

활동대상도서관 책 보수 활동에
관심 있는 누구나**생성시기**

2011년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의욕 : 책 보수 방법을 계속 고민하며 서로 나누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책을 고치는 방법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나은 방법이 있다면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세가 모임을 지속가능하게 합니다.

역할 : 회장, 총무 등의 역할을 연말에 모여 정합니다. 모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모임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애정 : 모임은 결국 사람이 좋아서 만나게 됩니다. 담당 사서 선생님, 책살림 활동가 모두 책살림에 애정을 가지고 있어 웃음 넘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책을 더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읽었던 책 페이지를 기억하기 위해 책날개를 책갈피처럼 사용하거나 책을 펼친 채로 엮어놓곤 했습니다. 이 방법이 책을 망가트리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주변 친구와 가족에게도 널리 알려주며 책을 소중히 다루게 되었습니다. 종종 책갈피로 쓰려고 남는 천을 잘라놓거나 깨끗하고 얇은 종이를 모으곤 합니다. 간혹 다른 도서관의 망가진 책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개인 가정에서 소지하기 어려운 도구와 재료,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도구로 책 보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점차 더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책을 고치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과 그에 맞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한계로 도구 및 재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번에 모든 재료나 도구를 구매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재료를 조금씩 다양하게 비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활동에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 즉, 활동가입니다. 활동가 확보와 책살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활발한 활동이 어렵지만, 추후 여건이 좋아진다면 도서관 책 보수뿐만 아닌 다양한 도서관 활동을 전개해 책살림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다양한 학습공동체가 있지만, 책 보수 활동을 하는 다른 공동체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진행 과정과 운영의 어려움 등을 소통하며 각모임의 지속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저희가 모여서 각자의 역량을 사용하여 농업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농업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가능한 것들을 활용하고 창의적인 활용방안들은 생각하고 실제화 시키기에 도전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엄마들이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먹거리를 고민하며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초보들이 모였지만 언젠가 고수가 되는 그 날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지난 8월 비가 마구 쏟아지던 날 부안의 치유정원 '포레도'를 방문했습니다. 역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전라도 부안의 전통적인 한국음식을 먹고, 치유정원 '포레도'에 들었습니다. 50대 아줌마들이 아이들 마냥 실내정원의 다양한 식물들을 살펴보고 질문하고 감탄사를 아끼지 않았습니. 이 정원이 만들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의 수고가 있었을지 상상하며 그 손길들에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돌아와서 우리도 정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1. 모임에 결석하지 않고 지각하지 않는다.
2. 서로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
3. 배우는 자세와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고 한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지난 여름에는 유독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네 밭은 심어 놓은 모둠보다 잡초가 훨씬 더 커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11월 잡초가 힘을 잃을 때, 다시 밭을 정비하고 잡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회원들 간의 신뢰와 성장이 가장 큰 힘입니다. 함께 농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제로 가시적인 뭔가를 이룰 수 있을 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저는 산책을 좋아합니다. 예전의 산책길이나 지금의 산책길은 거의 똑 같습니다. 하지만 산책시간은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길 가득 피어있는 다양한 꽃들이나 나무를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아직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되서 잘 모르겠습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관심과 격려를 주는 학습공동체 네트워크가 되면 좋겠습니다.

활동(학습) 주제

도시농업의 전반적

이해와 활용

구성원(수)

8명

활동빈도

1주일에 한번

활동대상

주로 50대 아줌마들입니다.

생성시기

2019년

#본명초보 #그림에도물구하고 #더불어고수
KEYWORDS

42

추천서가 기획단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책을 이야기할 때는 얼굴빛과 눈빛이 환해지는 활동가 선생님들!

우리 마을이 책 읽는 멋진 마을이 되는 것에 진심인 좋은 사람들, 현재 강지영 선생님!

이은미 선생님, 허미영 선생님, 양혜원 선생님이 활동 중!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작지만 소박한 추천서 활동을 통해 나와 우리 마을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책을 좋아하는 몇 사람이 모여 희망샘도서관의 양서를 찾아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소개하고, 활동가들이 도서를 선정하고 소개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지역공동체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 속에 즐거움과 지혜가 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 1. 이은미 선생님:** 그림책 특색 행사에서 초등학교 중학년 대상 공간이라는 주제로 비경쟁 토론 수업 진행하며 활동가 선생님들과 준비하는 과정 자체의 즐거움 그리고 비대면 화면에서의 아이들의 즐거움이 보람됨
- 2. 강지영 선생님:** 2020 랜선 북사롱 행사에서 어린이 비대면 독서 토론 준비를 위해 사전에 8주간 zoom 활용 교육을 받아 이 교육을 통하여 독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짐
- 3. 허미영 선생님:** 도서관 활동가로 있었기에 zoom 활용과 토론 수업 진행 등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독서 토론 시간 zoom으로 초등학생들과 좋은 시간을 갖을 수 있어 좋았으며, 토론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시연하는 동안 공동의 목표가 하나로 모아지는 경험이 좋았음
- 4. 양혜원 선생님:** 독립서점 방문을 통해 독립출판물에 대한 지식 습득, 오프라인 구매를 통한 후원과 제로웨이스트 활동 '작심요일' 5일 동안 직접 실천 후 인증사진을 올리고 그것으로 소책자를 만든일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1. 매월 적합한 주제 선정
2. 주제에 관한 책 최소 4~7권, 추천에 대한 책임
3. 어른도서와 아동서에 대한 균형
4. 추천할 만한 책 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5. 비경쟁 자유 토론
6. 희망샘도서관 보유 서적에 한함 (필요시 구입)
7. 사회적으로 너무 민감한 주제는 가능한 피함
8. 추천서 활동가를 원하는 경우에 성별과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음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팀원들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었을 때, 코로나 상황과 추가로 희망샘도서관의 특수한 상황 (체육시설과 같은 건물)으로 인하여 도서관 출입이 안되어 좋은 도서를 직접 찾아볼 수 없었던 점, 희망샘도서관 규모가 타도서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아 장서 양이 적음 (타도서관에서 검색한 책이 희망샘에 없는 경우가 많음)

E. haeyana@hanmail.net

Interviewee. 양혜원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추천된 책을 통해 선정이유와 작가 소개 등 각 활동가 선생님들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음으로 생기는 즐거움과 활력이 있으며 책 읽는 기쁨이 전염되는 것.

성장 : 나와 다른 생각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되는 과정

소통 : 활동가 간의 소통이 '우리'라는 연대를 이루어감

참여 : 지역 사회 안에서 활동함으로 사회 흐름과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됨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1. 활동가를 위한 서평 쓰기과 관련한 학습과 교육이 필요함
2. 다른 도서관에 비하여 장서의 양이 적어 보다 많은 장서 확보 필요
3. 고색동과 오목천동의 지역주민을 위해 도서관 규모 확대 필요
4. 추천서 기획단 활동도 봉사 활동으로 인정 필요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책 읽어주는 모임 (독서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독서에 접근이 쉽도록)하며 글짓기 모임 (짧은 문장으로), 향후 추천서 목록집 발간 계획 (기존 추천서 목록 포함),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활동(학습) 주제

희망샘도서관
추천서가 기획단

구성원(수)

3~4명

활동빈도

월2~3회

활동대상

도서관 모든 이용자

생성시기

2016년

#즐거움 #연대 #공유
KEYWORDS

43

호모루덴스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작은 도서관 책고집의 회원이 된 것이 씨앗이 되어 모임을 시작했고 격주로 모여서 한 주는 문학, 한 주는 비문학을 읽고 있습니다. 모임 인원 중 상당수가 작은 도서관 책고집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인문학 고전 및 근래의 좋은 책들을 즐겁게 읽기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작은 도서관 책고집이 3년 전 문을 연 후 강연에 참가하였고 장은수 작가의 “같이 읽고 함께 살다”를 읽고 강연을 들은 후 자극을 받아 독서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책을 즐겁게 읽자는 뜻으로 모임 이름을 호모 루덴스로 하였고 2020년 초에 결성하여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대학로 작은 서점을 방문하고 연극을 보러 간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주라서, 코로나로 인해 대면 모임이 제한되어서, 독서 모임 외 다른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1. 도서는 서로 추천 (한 명이 이끌지 않음)
2. 모임 진행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3. 대화 시 비판은 줄이고 가능한 한 고루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되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고 유연하게 진행합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코로나로 대면 모임을 하는 등지(작은 도서관 책고집)의 재정 상황이 나쁩니다. 책고집 대표의 헌신과 많은 이들의 지원으로 힘들게 꾸려가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모임 구성원들끼리 대면으로 만나서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점이 힘듭니다. 읽을 도서 목록을 정할 때 가끔 곤란을 겪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성실한 구성원들 구심이 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조금 오지랖이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작은 도서관 책고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내게는 어린 시절 이후 거의 끊어진 독서 활동을 통한 지식 습득과 세상에 대한 많은 사고를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지역에 생긴 변화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E. swkay1128@gmail.com

Interviewee. 김성우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사실 이번에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네트워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서로의 노하우에 대한 공유나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들끼리 교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류를 하면 무엇을 할지 거기서 생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다들 직장인이라서 시간을 추가로 많이 내는 활동은 힘들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활동(학습) 주제

인문학 고전 및 명저
(아주 엄격하지는 않음)

구성원(수)

8명

활동빈도

격주

활동대상

특별한 제한 없음. 성실하게
참여할 분이면 됩니다.

생성시기

2020년

#책읽는즐거움 #인문학고전과명저 #허심탄회한토론
KEYWORDS

44

화서동 문화사랑방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화서동 문화사랑방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공유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것, 우리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도체험과 세시풍속이야기, 우리 옷 바로알고 바르게 입기, 예절 익히기 등 다양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과 자긍심을 갖게 해줍니다. ‘인성이 경쟁력이다’라는 인성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그 매개체로는 차를 이용 합니다. 차 명상, 차 마시는 법 다도 예절 등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다도를 통해 내면의 여유와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우리의 전통정신을 이어가고자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예측불허의 변화 속에서 물질의 풍요는 누리지만 정신적 공허감을 안고 현대인은 살고 있습니다. 이를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유하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 모임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정신과 기운을 성찰하고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 하고자 합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수원은 문화와 유적 역사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는 문화의 고장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렀습니다. ‘우리의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것을 잘 살리면 내 고장 자랑이며, 크게는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동안 배우고, 익힌 부분을 실천하고 뜻있게 살리고 싶어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공동체는 다도와 인성예절로 결성되었습니다. 인성은 차를 만났을 때 가장 잘 받아 들여 집니다. 마음이 편안해 지는 공간, 저절로 우리 것을 배우고 싶어지는 공동체에서, 소통과 꿈이 되살아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빨리 가고, 앞서 가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가고, 힘께 나누고, 하는 공동체 모임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화서동 문화사랑방은 다도와 인성교육은 물론, 독서토론포럼, 음악회 등 다양하게 공동체로 만나 활동을 합니다. 이 공간을 우리에게 알리고, 세계인에게 알리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작명례 의식

작명례는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부모가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기로 다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유한하지만 그 이름은 영원한 것이기에 사람은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름을 지어서 부여할 때도 일정한 의식을 갖추어, 명첩을 작성하는데, 절차를 엄숙, 경건하게 합니다. 그 내용은 의식을 통해 부모에 대해, 조상 뿌리에 대해, 생년월일 출생지표시, 이름과 이름의 뜻, 이름을 지어준 지은이의 이름, 날짜까지 넣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1. 다양한 장르의 전통문화를 경험하며, 전통에 대한 자긍심과 관련분야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정신 및 마을 공동체 의식을 갖습니다.
2. 전통문화가 중심이면서 독서모임,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와 모임을 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우리의 것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체험, 지혜체험, 여유체험, 예절체험 등을 통해 자아를 찾고, 직접 차를 우리고 차를 마시는 방법을 배워 차가 가지는 맛은 물론, 차를 마시며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 토론하며 나를 다스리고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수원에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전통과 놀이 문화 체험을 통해 지식을 나누어 교육 후에도 직접 전통 문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작은 실천이 아름답게 정착이 되면 우리의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옛 선조들이 지혜와 정신, 여유를 배워, 현재의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울 때 변화는 시작되고 더 좋은 세상이 온다고 믿습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인성의 중요함을 깨닫고 꿈을 키우는 유아, 청소년, 학부모님께 홍보, 전통적 의식행사에 필요한 물품 지원 등, 성년례 :미래에 주인이 되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긍지를 일깨우는 성년례 의식 홍보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더 좋은 세상 만들기란 이름으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층의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활동(학습) 주제
차 나누며, 전통배우기
구성원(수)
5명
활동빈도
주 1회
활동대상
유아, 청소년, 성인
생성시기
2019년

#차양 #집 #성자
KEY WORDS

45

화
요
거
북
이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목공수업 수강 후 목공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학습관이 제공하는 목공방에서 목공작업을 주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작업과 공동체 요청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목공 강의에서 배운 목공기술을 익히고 개인과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목공 작품을 만들고, 기존제품을 재활용하여 필요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서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와 공익을 위한 봉사의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목공방 강의를 수강하면서 배운 기술을 연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혼자보다 같이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목공이라는 특성상 공동체로나 공동작업이 많다보니 함께 하게 되었으며, 지역 공동체를 위해 목공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어딘가에 필요한 것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억에 남는 활동입니다. 공방에 필요한 것을 만들었을 때나, 학습관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그 제품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제일 뿌듯합니다. 트롤리를 만들어서 학습관 축제나 야외행사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오픈데이도 기억에 남고 나무깎기 그룹과 같이 했던 활동들, 나무 화단을 만들어 채소재배를 했던 일 등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규칙적 모임, 적절한 구속성, 정리 정돈, 기계 사용 시 책임감 (주의 기울이기, 사고 발생 방지)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목공은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가끔 보이는 무책임한 행동, 예를 들어 사용한 도구를 방치한다거나 남의 재료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등의 태도가 보일 때가 가장 난감합니다. 또한 회원들이 취업, 간병, 육아 등의 이유로 지속적 활동이 어려워지면 공동체 활동이 많이 축소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모임 구성원(책임감, 리더, 하모니, 성향), 목표가 있는 활동, 학습관의 적절한 지원과 관리, 결과의 가시화, 기록 보존, 지속적인 신규회원 모집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목공방을 개방하는 오픈데이에 아이들이 와서 작업하고 목공을 즐기게 됩니다. 내 딸도 참여해서 자신의 손으로 뭔가 만들어 보는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나무깎기 모임과 함께 달력을 제작해 본 적이 있는데, 서로 다른 분야지만 타 모임과 공동으로 협업하여 보다 확장성 있는 활동을 만들어갑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 1. 규칙필요
- 2. 책임감
- 3. 리더(관리자)
- 4. 모임장소
- 5. 지속적 활동
- 6. 최소한의 모임원 숫자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서로 교류하면서 협동 : 장소나 재료 공유 및 신입 모집도 공동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노력 제공: 취약계층 주거개선, 아동 힐링목공 교육, 집에서 간단한 가구만들기 등

활동(학습) 주제
 목공(작업) 기술 습득

구성원(수)
 4명

활동빈도
 주 1회

활동대상
 목공에 관심이 있고 목공기술 습득에 열의가 있는 일반인

생성시기
 2015년

#함께 #지속가능 #나무
 KEYWORDS

46

7040의 멋진 날

【공동체(모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7040의 멋진 날은 젊은 강사들이 자신의 재능을 어르신들과 나누고자 활동을 시작하였고 재료가 들어가는 공예이기 때문에 시청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여 어르신들이 무상으로 부담 없이 참여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예 활동을 통하여 자신감, 성취감, 사회참여와 소통을 독려 하는 단체입니다.

【구체적인 활동 목적은?】

40,50대인 강사들이 70,80대의 어르신들에게 공예 재능기부를 하여 어르신들과 교감을 하며 평생교육을 실천해 드리고자 모인 동아리입니다.

【공동체(모임) 형성의 계기 혹은 활동 시작의 이유는 무엇인가?】

20여년을 공예 활동으로 바쁘게 살면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우연히 동네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어 심심하고 지루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서 주위 공예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나눔을 하고 싶다고 하여 경로당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해소 해주려고 시작한 활동이 저희에게도 보람과 사명감을 갖게 해 주었기에 지금까지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 9월 이후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상황이 안정이 되면 다시 활동을 재기 할 것입니다.

【공동체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회가 거듭 될수록 어르신들의 자신 있고 밝아진 모습 자체가 기분 좋게 하였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 하셨고 인터넷검색을 자식들에게 해달라고 해서 하시고 싶은 공예를 요구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쿠키 만들기, 청 만들기, 냅킨공예 등)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양말 인형을 만들어 망포동 국화축제 행사 날에 판매활동을 하여 수익을 만들었는데 어르신들이 만든 인형을 구입하는 것에 너무나 감동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울컥하였습니다.

【운영상의 원칙 및 특징이 있다면?】

7040의 멋진 날은 등록된 동아리가 아니어서 회칙이나 규칙 회비 등은 없지만 강사들 중 대표가 1명 있고 어르신들 중 대표가 1명 있어 모임 전체 알림을 강사가 한 번 하고 나면 어르신 대표가 다시 한 번 알림을 합니다. 결석을 하시는 분은 어르신 대표가 체크를 하셔서 강사에게 알려줍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관심을 보여준다고 했는데도 차이가 난다고 속상해 하실 때 마음을 풀어 드리는 게 조금 어려웠고 코로나 상황에도 수업을 진행했는데 방역 안전에 대해 얘기하고 집으로 보낸 후 나중에 들으면 잊어버리고 불안한 행동을 하셔서 결국은 2020년 8월까지만 활동을 하고 잠정 휴식 중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활동에 참여해 주는 강사가 3~4명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고 어르신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서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E. vcvc68@naver.com

Interviewee. 이영미

【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에게 혹은 지역에 생긴 변화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양말공예, 도우공예, 골판지공예, 클레이공예, 패브릭공예 등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작은 전시회(행정복지센터 로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였는데 개최를 못해 아쉽고 활동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활기가 생기고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이 활동은 계속 진행 할 것입니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필요자원)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소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편하게 앉아 활동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없어 상을 펼쳐 놓고 하고 있는데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쪼그려 앉지 않고 편하게 앉아 활동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만들기 재료는 무상으로 어르신들께 지급 할 것입니다.

【학습공동체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은?】

단독으로 어르신들의 완성된 작품을 전시회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저희와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합동 전시회나 다른 교류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활동(학습) 주제

공예 만들기 활동

구성원(수)

10~13명

활동빈도

주1회

활동대상

망포동 우문경로당

어르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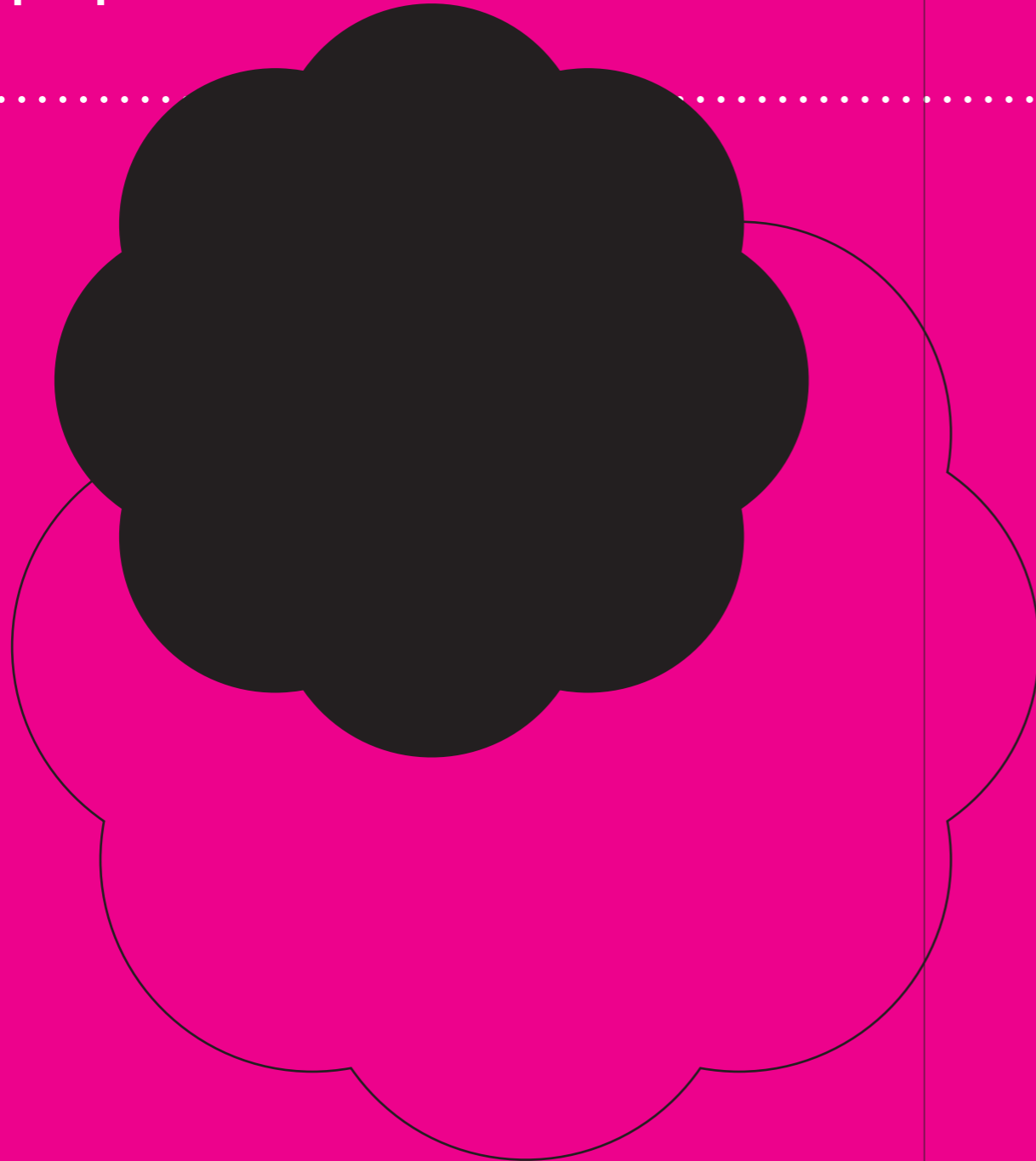
생성시기

2017년

#평생교육 #새로운경험 #즐거움

KEY WORDS

학습공동체 공유테이블 활동비책



우리 외에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이웃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모임을 꾸려나가고 있음을 공유하고 서로의 활동을 통해 자극을 받는 자리는 무엇보다 필요했다.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모두가 함께 하는 자리,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공동체 공유테이블 : 활동비책

- 일시** | 2021년 10월 29일 (금) 14:00~17:00
- 장소** | 수원문화재단 B1 회의실
- 참여인원** | 학습공동체 활동시민 27명, 이선옥 문화도시 센터장, 조혜미 주임 외 29명의 학습공동체 모임원
- 내용** | 관내 활동 중인 자발적 학습공동체의 활동사례 공유를 통한 시민네트워크 강화 및 학습공동체의 지속가능방안 모색과 지원방향성에 대한 논의



일정	내용	세부내용
14:00 ~ 14:10	개회	이선옥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인사
14:10 ~ 14:30	아이스브레이킹	마음열기 (서로의 공통점 찾기)
14:30 ~ 15:10	공동체 활동사례 발표 (팀별 5분)	[발표순서] 1. 곰곰그림책모임 (최혜련 대표) 2. 알레테이아 (이종숙 대표) 3. 다전다화 (조병주 대표) 4. 지오그래피 (김영필 대표) 5. 오픈테이블/미지 (MAJI님) 6.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수원지회 (해님달님도서관 정은주 관장) 7. 인문학기획단/상호문화모임 잇다 (희망샘도서관 신선원 팀장)
15:10 ~ 15:35	공동체 소개	테이블별 공동체 활동내용 공유
15:35 ~ 15:50		휴식
15:50 ~ 16:10	지원기관 발표	[주제] 단계별 학습공동체의 지원 방법 (시작부터 성장까지) 초기 : 신생공동체 발굴방법 및 지원방법 성장기 : 성장기 공동체 지원방향 [발표순서] 1. 우만동종합사회복지관 (강정구 팀장) 2. 희망샘도서관 (신선원 팀장) 3. 수원시평생학습관 (박지수 연구원) 4.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시민문화팀 조혜미 주임)
16:10 ~ 16:40	주제별 대화테이블	[주제1] 협력과 성장의 비밀 공유 [주제2] 학습공동체의 어려운 점 [주제3] 운영 노하우 [주제4] 연대를 위한 방법
16:40 ~ 16:50	내용 공유	테이블별 토론 내용 발표
16:50 ~ 17:00	폐회	참여자 소감 및 피드백 공유

단계별 학습공동체의 지원 방법 (시작부터 성장까지)

강정구 팀장(우만동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지원기관)는 모임의 운영주체가 아니라 모임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로 하여금 모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고 그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임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담당자 즉, 저 자신은 운영 전반에서 힘을 빼고 최소한의 개입만 합니다. 주민의 소리를 듣고 여러 종류의 최대한 많은 수의 주민 모임이나 주민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는 동아리가 있고 도중 없어지는 동아리가 있어요. 담당자가 모임을 한두 개 정도 만들면서 열정이나 에너지를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면 애정이라는 게 생겨요. 애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데도 그걸 억지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만든) 그 프로그램이나 그 모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까우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 방식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냥 다양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주민들이 선택해서 참여하고, 주민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신다고 그러면 그 모임은 살아남는 거고 재미없다고 그러면 그 모임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힘을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한 두 개의 모임에 그만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를 하기보다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에너지를 여러 개의 모임에 나눠서 투자 한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질보다 양’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면 모임이 있다면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 우리 주민분들이 하시는 역할이지 담당자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아남은 모임에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지금 복지관에 있는 모임 중에서 3개의 모임에서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모신 주민참여위원회도 그렇고, 거기서 저는 딱히 제가 운영의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면 ‘그렇구나’,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라고 주민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만 하고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답을 찾습니다. 저한테 어울리지는 않지만 ‘뜨개뜨개’라는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뜨개질 전혀 못 하거든요. 그 동아리를 만든 것도 주민분들이 원하셔서 만들게 되었고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뜨개질을 정말 못하다보니 옆에서 실을 풀었던 것을

다시 제가 감고, 커피믹스 타고, ‘커피 타는 이제 팀장’이라고 불리면서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없더라도 이러한 모임들이 계속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실제 주민들이 어려워하시는 예산 집행 절차에서 구성원으로서 도움을 드립니다.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는 담당자로서 접근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모임을 만들고, 모임 구성원들과 함께 그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가는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성원들이 제가 하는 업무들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없더라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샘도서관 (신선원 팀장)

저희 희망샘도서관에서는 모임이나 공동체라기보다 ‘활동’과 ‘조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단순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으로서 도서관 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활동과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지원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활동과 조직의 생성과 운영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희망샘도서관에서는 2006년부터 활동가 양성 과정을 진행해왔고 자녀 독서지도 교실이나 실버 어르신 양성 과정, 생명밥상 지도자 과정 등을 통해서 그 과정을 들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형태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망샘도서관은 서수원 고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은 수원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YMCA의 목적과 이념에 따라 운영 취지를 공동체성에 두고,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동가 모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활동가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월요일 아침에 ‘이야기 사랑’이라는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토요일에 ‘상호문화모임 있다’로 일주일이 마감되는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고, 9개의 모임이 하루에 한두 개 이상씩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도서관의 일상은 활동가들과 매일 매일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임들은 모임 자체에서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선정된 책을 도서관 안에 전시한다면 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매주 모여서 각각의 역할들을 수행하며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기획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가 양성 과정과 같은) 강좌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고 그 과정에서 도서관과 시민들이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또 하나의 활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활동가들이 ‘달달 만남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고 각각의 조직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식을 공유하고 도서관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도서관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실무자는 기본적으로 한두 개 모임을 다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도 우만동종합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실무자들이 회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면서 회원들과 밀접한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회원들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희망샘도서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이 자리(학습공동체 공유테이블)에 수원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배우고 싶어서 참여한다고 했었는데 발표와 같은 역할이 주어지면서 조금은 부담이 되는 마음으로 왔지만, 정말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이 자리에 왔다면 좀 더 많은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박지수 연구원(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의 ‘거북이공방’을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습관의 학습의 단계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습관의 단계 설정은 사실 다른 곳에서 탄생한 모임이나 공동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맡고 있는 거북이공방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습관에는 시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오시는데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고 다양한 삶을 살면서 잘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고민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한 강좌나 수업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연속된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가도록 지원합니다. 거북이 공방을 예를 든다면, 저희가 ‘오픈 데이’라는 공방을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목공의 기술보다는 학습자가 초반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재활용 목공이나 우드카빙 등 간단한 수공을 위주로 강좌를 진행 합니다. 그 이후 목공 강좌를

계획해서 학습자들이 단계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강좌들을 수강한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거북이공방’이나 ‘도깨비’, ‘그린우드카빙’등과 같은 다양한 후속 모임들이 결성되고, 모임원들이 필요한 것들을 서로 함께 고민해보고, 만들어보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강사와 함께 논의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능동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도적인 작업자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활동 모임 분들이 심화 과정으로 가게 됐는데 거북이공방의 모임원들이 거북이 친구들이라는 것으로 좀 더 결속력을 다지며 목공을 주제로 직접 시민들에게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것들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활동을 학습관을 통해서 혹은 별도의 축제들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왜’라는 고민 지점을 만들어주고 ‘내가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과정을 잘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평생학습이다 보니까 다양한 연령층들이 오는데 각 연령층의 다양한 욕구들을 바탕으로 과정을 설계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함께하는 프로젝트나 매주 모이게 될 만드는 공간, 그리고 적절하게 스케줄을 짜보는 것, 또 그 과정에서 힘을 넣어줄 담당자와의 유대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학습관이 코로나 이후에 위탁기관이 변경되어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활동 모임이 거의 중단된 상황인데 이전에 지속해 왔었던 공동체에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에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모임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방활용을 제시하시기도 하고요. 결국은 학습관과 담당자, 학습자와 강사의 유기적인 관계들이 활동모임을 지속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며, (기관과 활동모임) 서로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제1] 협력과 성장의 비밀 공유

-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서로의 다름을 존중 하는 태도가 필요
- 공동의 목표 및 지향점 찾기 (동의하는 가치)
- 동기부여 (자발적인 동기가 중요)
- 좋아하는 일이면 함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임에 스며들며 성장하게 됨
-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안전하다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 혹은 그런 문화가 필요
- 모임 전체가 좀 더 느슨함을 가지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인정하며 기다려주기

[주제2] 학습공동체의 어려운 점

1. 사업비(지원금) 조달의 어려움

- <문제점>
- 공모전 관련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음
 - 아는 사람들만 공모전에 신청함 (정보의 빈부격차)
 - 공모전 신청에 진입장벽이 있음 (제도적인 부분)
 - 공모전에 선정되기가 쉽지 않음
- <해결방안>
- 공모사업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 공모전 신청 및 선정 노하우 공유
 - 지원금을 여러 학습공동체들에게 골고루 배분

2. 활동의 어려움

- <문제점>
- 회원이 계속해서 줄어들
 - 앞장서서 활동하는 사람들만 활동함
 - 행사가 있을 때만 활동함
 - 결과물에만 집중함
- <해결방안>
- 학습공동체 홍보를 통한 지속적인 신규회원 유입
 - 제대로 된 평가
 - 다 같이 참여하기
 - 서로 충분히 논의하기
 - 힘들 때 서로 도와주기

[주제3] 운영노하우

1. 재정관련(사업비 조달)

- 공모사업 신청
- 무료 공공기관 시설 이용

2. 역할분배

- 구성원 전체가 책임을 나누어 가짐
- 각자의 역할 지키고 실행하기

3. 지속적인 활동

- 회원들 간의 신뢰형성이 중요
- 회칙을 만들고 회비 걷기

[주제4] 연대를 위한 방법

1. 학습공동체의 역할

- 서로 자주 만나고 연락하기
- '오픈하우스' 방문자의 날 문열어두기

2. 기관의 역할

- 지원기관 현장 방문
- 각 공동체들의 필요 욕구 파악
- 지속적인 네트워킹의 장 마련
- 꾸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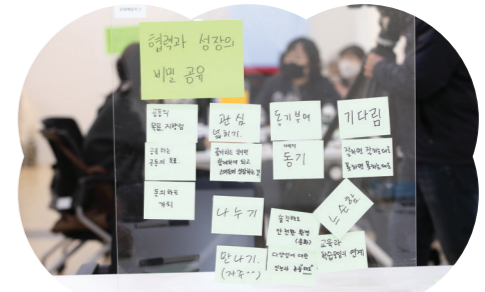
기타의견

- (협업을 위한) 매칭프로그램 구축
- 공동체 연결 플랫폼 (ON & OFF)
- 네트워킹 장을 마련하고 진행해주는 조직(단체) 필요



학습공동체 공유테이블 : 활동비책

- 여러 학습동아리와 공동체 분들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 공동체 '고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점들이 선이 되길 바랍니다.
- 회원들의 소리가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 다양한 활동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유테이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여러 모임들이 서로 도움이 되는 활동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다양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수원이 문화도시가 꼭 되길 바랍니다.
- 더 많은 공동체 분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 모임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다양함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유익한 정보와 좋은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 숨은 학습공동체 <보물찾기> 시간이었습니다.
-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학습공동체 공유테이블 월1회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비책 Part 1.

소심한 고민, 대범한 제언

관내의 여러 기관과 도서관, 학습동지와
문화예술공간, 크고 작은 동아리까지.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모으고 모았는데,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함께 할 수 있는 일,
함께 하고 싶은 일,
함께 해야만 하는 일.

소심한 고민거리들을 늘어놓고
거침없이 대범한 제언을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소심한 고민, 대범한 제언

- 일시** | 2021. 12. 02.(목) 14~17시
- 장소** | 청누리 지하 1층
- 참여** | 좌장 **백현주** 독립기획자
 발제 **조혜미** 문화도시센터 시민문화팀 주임
최윤주 소셜드림프로젝트COCOCO 대표
 토론 **곽윤부** 서현문화의집 관장
양훈도 인천일보 경기본사 논설위원
- 플로어** | **박경홍** 문화도시센터 시민문화팀 팀장
토론 | **김유리** 수원문화재단 예술교육팀 팀장
신선원 희망샘도서관 팀장
김재민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팀장
신연정 시민기획단 나침반 단장
송재형 아뮤컨셉 대표



일정	내용	참여자
	학습공동체 아카이빙:소심한 고민, 대범한 제언	
	14:00-14:05 참여자 소개 / 일정 안내	조혜미 주임
	14:05-14:10 [소개] 문화도시수원 소개	이선옥 센터장
	14:10-14:25 [발제1] 수원 학습공동체 자원수집에 대하여	조혜미 주임
12. 02.	14:25-14:40 [발제2] 학습공동체 관찰기	최윤주 대표
(목)	14:40-15:00 [토론1] 성남 사례를 통해 본 수원의 학습공동체 방향	곽윤부 관장
	15:00-15:20 [토론2] 학습공동체 수집을 통해 보는 자발적 시민공동체의 의미	양훈도 논설위원
	15:20-15:30 휴식	
	15:30-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백현주 독립기획자(좌장)

[전체토론] 소심한 고민, 대범한 조언

- ① 학습공동체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하여
- ② 미수집된 학습공동체들 수집과 활성화 및 수집된 학습공동체들과의 연결과 지원방법
- ③ 학습공동체 활동수집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위한 기관 간 연계 방안
- ④ 향후 문화도시사업과 연계 프로젝트 및 공동체 간의 교류 방향성에 대한 의견
- ⑤ 기타 질의응답



백현주 독립기획자(좌장)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기획실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독립기획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백현주입니다. 오늘 학습공동체 활동수집 프로젝트 사업공유회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혹은 기관의 필요나 목적에 의해서 구성된 크고 작은 다양한 성격의 시민들의 모임들,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주민참여, 주민자치라는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협치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에 따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협치의 파트너로서 시민 공동체들의 구체적인 필요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시민이나 시민공동체들의 입장에서는 무언가에 관심을 갖는 것 나아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정부가 알아줌으로써 도모하는 것을 구현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학습공동체'라는 이름이 붙은 공동체들이 이러한 협치에 부흥을 해야 하는지 마는지의 고민과 같듯이 담겨야 하는 엄청난 문제제기의 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는데 그 것들을 모두 다룰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일부만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학습공동체를 어떻게 발굴하고 지원할 것인가와 그 대상은 누구로 한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한 학습공동체의 정의에 관한 것이 보다 명료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학습공동체 활동수집 과정이 학습공동체의 정의를 우선적으로 내리고 이에 맞는 주체들을 찾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어렵듯이 선을 그리고 수소문해 나가는 방식, 현장으로부터 학습공동체의 개념을 찾아나가고 하셨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무엇이 학습공동체이며 그들의 현황을 보여주기보다는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수렴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두 분의 토론 내용과 관련해서 관운부 관장님이 말씀하신 성남의 사례는 취미중심의 사회적 혹은 정치적으로 관여도가 적은 공동체들 중심이고 반대로 양훈도 논설위원님의 경우에는 정책의 관여도가 강력했던 사례를 주셨던 것 같아요.

먼저 두 분의 발제자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습공동체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의견수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셜드림프로젝트COCOCO 최유주 대표(발제자)

오늘 공유회에서 함께 고민할 지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수집된 공동체들의 의견 중심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들의 현황에 대해서는 대화모임과 활동모임으로

나누어 인문, 독서, 문화 등으로 카테고리화 하여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이들을 '시작-성장-몰입-성숙-전환'의 5단계로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습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에 맞추어 공동체들을 취합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였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이들의 범주를 나누어 놓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을 했고, 자료수집이 우선이다라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공동체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동체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의미를 가진 이들을 특정한 범위로 나누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1차 수집기록들을 가지고 실무진들과 전문가들께서 학습공동체의 정의 및 형태를 연구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원문화재단 시민문화팀 조혜미 주임(발제자)

오늘 이 자리가 올해 사업을 매조지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몇 개의 팀이 어떤 주제로 몇 명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현황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저희가 가진 원론적인 고민과 모임이 원하는 지원이나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학습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방법적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에 맞는 공동체들을 수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수집 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답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부터 만나야겠다는 마음으로 선(先)수집이라는 방법을 선택해 공동체들을 만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백현주 독립기획자(좌장)

그러한 부분의 기준점을 찾기 위해 이 조사와 연구에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자분들께 먼저 의견을 여쭙어 보고 이후 플러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운부 관장님께 먼저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개별지원을 하지 않고 네트워크 지원을 하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자족적인 것을 하는 공동체들은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는데 공간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해 여쭙보고 싶고, 취미공동체들의 존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관운부 서현문화의 집 관장(토론자)

우선, 자기만족적 활동에 대한 공간지원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들에게 지원을 하지 말자라고 한 부분은 예산에 대한 지원을 말씀 드린 겁니다.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지원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별 말고 네트워크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것에는 당사자들의 부담이 필요하며 이로서 활동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부담과 책임감이 없으면 모임들이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부담을 철저히 해야만 그 동아리가 지속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네트워크를 만들 때 10개에서 20개 정도씩 장르별로 카테고리를 분류합니다. 장르별 대표자들 17명 정도가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류하면서 장르별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또 장르의 구분 없이 7개, 10개의 공동체들이 함께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협업하고 융합되는 과정에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아리들 간 이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서 통기타 동아리를 접하면 '나도 통기타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찾아 본래 모임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내가 현재 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취미공동체라는 것은 취미생활을 통해 주민들과 만나고 나의 즐거움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며 전문예술공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예술공연은 전문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전문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생활문화영역은 자신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만족감을 다른 주민들에게도 피어오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고, 또 내가 좋아서 하다보면 '내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회원들을 영입하면서 25년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의 경우 30, 40명 가까이 되는 회원들 중 10년, 15년, 20년 이상 활동해오고 계시는 분들이 15명 정도 되고, 이분들을 주축으로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영입되고 있습니다. 취미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는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내가 즐거운 것을 시민들에게도 안내하고 나누며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취미공동체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❶ 사랑방문화클럽 : 2007년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여 성남 아트센터 내 연습공간 2개와 전시공간 1개를 마련하였다. 매년 심사를 통해 1년 간 공간을 사용하여 이 공간지원은 성남 생활문화동호회의 유지와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백현주 독립기획자(좌장)
감사합니다. 양훈도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포럼^❶ 활동이 정치적인 비판 내지는 정책적인 압박의 기능을 처음부터 의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정치·사회적 이슈를 가진 단체들도 공공지원의 트랙에 들어오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❷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포럼 : 2014년 수원 매탄4동에서 시작한 한벗연구소 활동(독서, 읽기, 영화, 여행 모임 등 활동 진행)의 연장선상으로 수원 시민교육 현황과 수원형 시민교육에 대한 콜로키움을 진행했으며 수원시의회의 '민주시민교육조례' 초안을 제시하여 공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였다. 2017년 이후 활동이 유지되지 못하였다.

인천일보 경기본사 양훈도 논설위원(토론자)

협치, 협의의 단계로 들어가면 논란이 많은 상황이긴 할텐데, 광의의 영역으로 놓고 본다면 다를 것 같아요. 정치지향성을 띄는 단체들이 그렇게 지원을 많이 요청할 것 같지는 않지만, 지속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때 자치단체나 산하기관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는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단체들의 지원 요청이 오면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단체나 기관은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곳들 입니다. 지향성이 다르다고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배제하는 것은 학습공동체라는 단어를 쓰든 배우는 모임이라는 단어를 쓰든 이들을 규제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겠고, 제한이나 의도적 분류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현주 독립기획자(좌장)

초반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정책의 입장, 그다음에 협치의 입장에서 개인을 만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그룹화 되어있으면 그룹에 문을 두드려 가면서 협치에서 우선권을 주고 있는 행정이 그들을 만나기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질문들을 드려봤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님들께 두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 궁금증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셜드림프로젝트COCOCO 최운주 대표(발제자)

저희 코코코는 학습공동체에서 시작해서 사업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발적인 공동체와 공적인 영역의 공동체들이 구분없이 발굴 되고 그들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1:1로 시민들을 만나볼 기회가 생기고 이야기를 해보니 박윤부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문화활동영역에서 시민들에게 더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수원시에서 활동하시는 학습공동체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활동영역이 한정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박윤부 관장님께서 20여년을 넘게 느슨하지만 구속력있는 공동체를 일구어 오셨다는 것에 대해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현주 독립기획자(좌장)

좀 더 쉽고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모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가요?

소셜드림프로젝트COCOCO 최운주 대표(발제자)

누구나 학습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기회들이 더 가깝게 있어야 한다고 보고, 시민들이 문화 활동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문화도시에서 만들어야하고 제공해야하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수원문화재단 시민문화팀 조혜미 주임(발제자)

사적인 네트워크와 공적인 네트워크의 영역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분리하는 것이 옳은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취미공동체로 보여지지만, 구성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적인 이슈를 내부에서 논의해나간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학습공동체에 생활문화공동체 역시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생활문화공동체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점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들에게 공간 혹은 교육적 지원 이상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모임이 어떤 목적을 가진 활동비나 인건비를 받게 되는 순간 활동의 목적이 전복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하고 있어서 박윤부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만족적인 활동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기만족적이라는 것 역시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라 그것을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숙제가 남게 되고요.

소셜드림프로젝트COCOCO 최운주 대표(발제자)

자기만족에서 시작했지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공적인 영역으로 저절로 가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공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작하면 처음부터 요구하게 되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지원해야지 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을 넘어 시민의 행복이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걸 어쩌면 문화라는 것으로 묶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일보 경기본사 양훈도 논설위원(토론자)

공적과 사적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춤을 추다가 다음 주부터는 공부를 하러가자 라고 할 수 있고 공부를 하다가 춤을 추러가자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눌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받으면서 원래 뜻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 아니냐 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견해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 중 하나지만 점점 사회구조도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있죠. 수원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거죠. 그것을 굳이 지원받고 하면 퇴색되는 것 아니냐 라고 볼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활동을 너무 엄격한 잣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욱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생겨나고 활성화 될 것입니다.

수원문화재단 시민문화팀 조혜미 주임(발제자)

이번 프로젝트에서 만나게 된 공동체들의 경우 문화도시와 접점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기존 문화도시수원 사업에 결합해 활동하는 시티메이커스나 대화모임, 실천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외에 자발적인 공부를 하고 새로운 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찾아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많은 시민들과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부터가 사업의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기관의 사업에 참여거나 이를 위해 조직된 모임에는 활동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 참여자 이외에 자발적으로 생성되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지역외제와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활동 영역과 생성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박윤부 서현문화의 집 관장(토론자)

자기만족적인 활동에서 지원을 하지 말자라는 것은 예산 부분이고 공간 지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예를 들어보면, 문화 공연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에서 5개, 10개의 클럽이 모여서 어떤 일들을 기획해서 하다보면 사실상 이 일을 맡고 있는 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쏟는 개인적인 비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공모 사업 형식이라고 하면 사업 예산 비용에서 5%든 10%든 기획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클럽들의 출연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서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일정의 보상도 없이 사업을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분해서 판단하고 지원할 것과 지원하지 않을 것에 대한 다양한 기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일보 경기본사 양훈도 논설위원(토론자)

예산 일부를 내 밥그릇이라고 생각하고 해마다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 자체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져가서 잘하느냐가 문제죠. 잘 하느냐 못 하느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 어떻게 잘 발굴하고 관리하느냐 인데 소멸할건 소멸해야하고 어떻게 잘 소멸하게 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겁니다. 소멸도 발굴하는 것 못지않게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백현주 독립기획자(좌장)

(플로어에게) 오늘 토론회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손을 들으시고 질문 혹은 의견을 주시면 좋습니다. 학습공동체라는 이름아래 분류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주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김재민 팀장(플로어)

오늘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앞서 나왔던 학습공동체의 정의 및 구분법, 예산 및 지원에 대한 논쟁점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학습관이나 희망생도서관 이런 다양한 기관들에서 오래 전부터 시민들을 모으고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불러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활동비를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박윤부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에 대해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학습관에서는 공간이나 활동방향, 기획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원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취미중심 모임들의 경우 자체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기타동아리에서 그 분들이 연주회를 하고 싶다고 하면 수원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 복지관이나 양로원 이런 곳에 가서 공연 활동을 하게 해요. 저희는 일 년 내내 공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서토론모임의 경우 자율적으로 책을 기반으로 독서토론을 하는 것인데, 이 분들에게도 공간지원 외에 예산지원은 일체 안합니다. 다만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분들이 자족적인 모임을 넘어서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시민기획단 활동이 있습니다. 이 활동은 무언가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전혀 예산지원을 안합니다. 예산지원을 하다가 예산이 끊어지면 활동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공적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는 다른 기관과 협력을 맺고 그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간 이외에 예산지원은 안하지만 많은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곳들에게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하거나 여건이 닿는 대로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천일보 경기본사 양훈도 논설위원(토론자)

지역사회에서 공헌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맞죠. 스웨덴에서는 대학원에 가면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공부해서 국가에서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기획단의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게 되면 리워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봅니다.

백현주 독립기획자(좌장)

문화도시는 문화도시 패러다임의 정책사업의 프로세스와 원리가 있습니다. 대화모임에서 나온 이슈를 가지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이른바 리빙랩이라고 해서 실행을 하는 데 까지 가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자는 거죠. 시민교육에 대해 필요한데 그 필요성에 따라 시민들이 모였어요. 연구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협치파트너의 역할로써 최첨단에 있는 시민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전문가도 만나고 지역사회의 예산까지도 받아서 삶에 어떤 부분을 실험해보고 대안을 찾아가는 그리고 순수하게 시민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실행 할 수 있는 비용을 주는 것까지 이러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성장이에요. 평생학습현장은 루틴하게 한명 한명들이 성장해나가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학습공동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조직해 나가야하는 것에 대한 재단이나 담당자에게는 어떻게 이들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협치의 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나 라는 것이 고민이신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으로 이제 우리 최윤주 선생님이나 두 분의 토론자님들께서는 이런 모임들을 구분을 두지 않고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다보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행동가가 출현할 수도 있고 취미에 머무르게 될 수도 있고 다각적인데 그런 다각적인 활동의 장

자체를 구분 없이 자발성이 잘 흘러갈 수 있는 상황 여건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희망생도서관 신선원 팀장(플로어)

저의 도서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임 안에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들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공동체와 기관에서 파생된 공동체들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활동가 조직을 만들어내자는 것을 초점을 두다 보니 교육을 통해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모임이 또 컨트롤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요구를 하죠. 그것이 장점일 수 있지만 회원들에게는 부담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모임들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금액을 얼마를 더 지원하고 이런 것 보다는 활동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해준다거나, 활동의 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요소들이 더욱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습공동체 프로젝트의 최종목표나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하실 지가 궁금합니다. 문화도시와 상관없이 지속이 계속되는 것인지 그 체계를 이번 기회에 추가 발굴이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공동체들이 필요할 텐데, 어떤 공동체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현주 독립기획자(좌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재단 측에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수원문화재단 시민문화팀 조혜미 주임(발제자)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학습공동체 시민들을 만나는 과정은 문화도시차원이 아니라 재단 차원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도시 차원에서는 개별 단위의 활동을 들여다보고, 접촉해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지만 한편으로는 예술가나 문화예술전문인력이 아닌 모든 영역의 시민 활동과 학습공동체를 문화재단에서 수집하고 아우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고요. 하나의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함께 무언가를 더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학습관, 희망생, 우만동종합사회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먼저 판을 깔았으니 함께 할 이야기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198개 정도의 팀 중 이 책에는 46개 모임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의 이 활동은 Part 1. 의 개념으로

생각해주시고, 그간의 시행착오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 이들을 모으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찾아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기획단 나침반 신영정 대표(플로어)

현재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유지시키려면 개인의 활동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금이라는 것들도 사실 새롭게 네이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원 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올해 문화도시와 인연이 되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았을 때 우리 동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을 여쭙보시기도 하는데 굉장히 소중하고 가문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공동체 활동을 소상공업자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공동체는 일과 밥벌이 사이에 어떤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에서 탈락한 사람들, 일상에서 밀려난 힘든 사람들이 모여 노는 곳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나 한 번도 보지 못 했던 금액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아주 감사한 일이다, 우리모임을 계속 해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다가도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들었고, 이 활동영역을 독점하지 말자는 원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도서지원비, 문화지원비 정도로만해서 활동을 하는데 일상을 해치지 않게, 그렇게 안전지대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원금도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마에 나침반 이름으로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학습공동체 가이드에 1~5 단계를 만들어놓으셨는데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단계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까요? 비즈니스화가 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고민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순환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저희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어떤 모임들이 생겨날 수 있을 거고 계속해서 생겨나고 또 생겨나면서 기준에 있던 우리는 소멸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훈도 선생님께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계획도 반드시 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컨셉 송재형 대표(플로어)

원천동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지원을 받는 쪽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학습공동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답을 얻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히려 더 고민이 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활동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모임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다르니까 그것들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전문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요. 전문성을 가진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왜 만족도를 얻지 못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결국 학습이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닌가, 공동체도 그 안에서 서로 배우고, 배우다가도 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학습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지원이 경제적인 이익으로 귀결되지는 않아요. 제가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너무 게을러서 그런 거라도 하면 제가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형식에 맞춰서 그 지원금을 써야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보니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제약 아닌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내년에는 내가 또 지원을 받아서 이런 활동들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토론할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현주 독립기획자(좌장)

발제자와 토론자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곽윤부 서현문화의 집 관장(토론자)

희망샘도서관과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하시고 계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해진 틀대로 업무를 하는 공무원보다는 보다 넓게 보실 수 있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상황에 맞게 넓게 보시고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간지원만으로도 엄청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하나로 50개의 팀이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에게는 그 공간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원금 같은 경우도 자기부담에 대한 부분만 해치지 않으면 최대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송재형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 지역문화진흥원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공모사업에 대한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대해 지원하라는 방식이 아닌 기관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싶는데 이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은 어렵겠지만 학습공동체든 어떤 곳이든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을 기획해서 제출해보는 방법으로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광역이나 중앙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아마 전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기관에서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일보 경기본사 양훈도 논설위원(토론자)

오랜만에 지역 밖을 나왔는데 소감을 이야기하자면 담당자가 근본적인 질문들을 주셨는데 기관들이 어느 정도 되면 이런 질문들 안 던집니다. 뭔가 품 나는 질문만 던지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굳어지는 형태를 많이 경험했는데 이것이 굳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년 지방선거 후에 자치단체장이 바뀔텐데 그 이후 이런 사업들이 미묘하게 초점이 바뀌거나 상당히 바뀌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좋은 이야기들, 생각할 거리들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드림프로젝트COCOCO 최윤주 대표(발제자)

명확히 해결될 게 없어서 여전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쉬운 문제들이 아니고 그만큼 정답이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문화도시수원이 시민들에게 많이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문화라는 것에는 자기 이기가 없고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이러한 문화라는 상위적인 개념아래 시민들이 발굴되고 모아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통합과 융합의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관계자 분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셔서 이러한 활동의 주체가 되는 시민들이 더 드러나고 보다 행복한 수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원문화재단 시민문화팀 조혜미 주임(발제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소심한 고민의 방향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던 것은 아니었지만요. 지원의 형태와 공동체의 분류, 이름까지 근본적인 부분과 행정이 가야할 방향을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주 독립기획자(좌장)

학습공동체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있는 것을 알아주는 것, 존재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학습공동체들에게 무엇을 지원해주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존재들을 알고 있다면 당장의 지원방안이 없더라도 어떤 국면에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을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분들을 떠올릴 수 있느냐와 없느냐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장면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내고 동행하려는 태도를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한발 좁혀진 이야기로 들어가고 단계가 진전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수원이 문화도시가 되든, 안 되든,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왕자는 벌써 세 번째 묻고 있다. 마침내 여우가 답한다. “그건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뜻이야.” 여우는 왕자를 한참 바라보고는 애원하듯이 말한다. “제발. 나를 길들여줘!”

〈어린왕자〉, 생텍쥐페리

돈이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명예를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인문, 사회, 미술 등의 전 영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산적 활동들을 목격했습니다. 코로나로 관계 맺음이 줄어들 즈음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며 지내는 타인의 삶을 마주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매우 닮아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만남과 대화가 지속 될수록 왜 하는지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각자가 속해 있는 학습공동체의 가치와 철학,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애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읽고 싶은 이웃, 나의 작품이 또 다른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이웃, 뭐든 혼자 하는 게 재미없는 이웃,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싶은 이웃,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글을 쓰고, 함께 농사를 지으며, 함께 라서 그저 좋은 우리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 새 느슨하지만 구속력 있는 이름들이 붙여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신생 학습공동체들은 눈망울에 설렘과 기대가 가득 찼고, 신나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선배 공동체들에게 질문도 많았습니다. 이미 수년을 먼저 걸어온 학습공동체들은 조언과 노하우를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각기 다른 주제로 만났지만 우리는 어느 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료가 되어있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성장하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나 ‘함께’를 좋아하는 이들이 도처에서 섬처럼 홀로 활동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자료 수집을 계기로 이들을 엮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작은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했고 더 크고 재미있는 작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실제로 후일을 도모하는 팀들이 나오기도 했지요.

텍스트만으로 이들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기에는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이 글자들이 모여 머지않은 미래에 더 즐겁고 더 의미 있고 더 짜릿한 만남들을 만들어 내리라 기대합니다. 이 자료집이 학습공동체적 삶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공동체와 연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도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발. 나를 길들여줘!”

“It is not from the benevolence of the butcher, the brewer, or the baker that we expect our dinner, but from their regard to their own self-interest.”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혹은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中

서로 다른 이상과 뜻이 모여 관계를 이루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일상에서의 도전으로 목공을 배우고, 누군가는 가구부터 시작해보면 집도 지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누군가들은 책을 읽고 있었고 누군가들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작은 빛깔로 모여 하나로 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로 모인 빛들은 그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의 삶까지 비추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대한 뜻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고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용기 있게 실천해나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천적인 학습활동은 ‘누군가를 위한 이타심’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건강한 이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마음 또한 타인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건전하고 아름다운 이기심이 그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까지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의 3대 거장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행복의 전제에 있어 ‘공동체감각’을 강조합니다. 개인주의의 팽배로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감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감각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집에서 만나는 학습공동체들로부터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개인의 행복과 이웃의 행복 나아가 행복한 사회를 그리는데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 부록 1. 46개 모임으로 보는 학습공동체
- 부록 2. 관내 학습공동체 조사 현황 및 목록
- 부록 3. 활동수기공모이벤트 수상작 10편
- 부록 4. 학습공동체 활동 사진

부록 1.
46개의 모임으로 보는
학습공동체

학습공동체 주제별 현황



평균 모임인원

●
최소인원
4명

●
최대인원
110명

가장 오래된 모임

1994년

가장 최근 생성 모임

2021년

모임에서 사업자(법적조직화)로 향하는 단체

17개

공동체 운영 중 가장 어려운 점

- 공간의 부재
- 홍보의 문제(신규회원 확보, 프로그램 홍보)
- 제도적 문제(공모 시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필요)

공동체의 지속을 어렵게 하는 원인은

- 경제활동의 기회 부족
- 공모지원방법 및 현장과의 괴리 (내부 인건비 책정불가, 규모나 연차에 따른 지원 배제)

내가 생각하는 학습공동체의 정의는?

- 성장, 만족, 관계의 충족
-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마련한 배움의 장
- 함께 하는 법 배우기
- 지식의 축적만이 아닌 함께 공유하고 전달하고 실천하는 것

내 삶에 있어서 학습공동체는 어떤 의미이며, 얼마만큼 차지하는가?

- 사회에서의 인정과 자존감 향상
- 10중에 3, 3이 나머지 7에 좋은 에너지로 작용
- 미래 그 자체
- 소명, 제 3의 좋은 어른

학습공동체의 다양성을 위한 의견

연령의 다양성

- 아이들의 플랫폼이나 연결고리 필요
- 학생의 경우 시간적 여유 부족

성비의 다양성

- 한정된 시간대에만 프로그램이나 장소 제공 (기관의 저녁, 주말 오픈 필요)
- 남자/여자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고정관념 작용

종류의 다양성

- 각자의 개별적인 문화에 대한 수용성 필요
- 서로의 문화들이 융합하면 자연스럽게 다양성 확보 가능
- 기관의 공간을 활용하려면 주제가 기관의 목적과 맞아야 함.

* 해당 내용은 인터뷰에 참여한 46개 공동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록 2. 관내 학습공동체 조사 현황 및 목록

공공기관

(10곳)

- 경기상상캠퍼스
- 경기도평생학습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광교종합사회복지관
-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 수원시정연구원
- 수원YMCA
- 수원YWCA지역복지센터
- 우만동종합사회복지관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도서관

(45곳)

- 광고해모로 숲속작은도서관
- 광고홍재도서관
- 광민작은도서관
- 글향기작은도서관
- 꿈이있는작은도서관
- 나눔작은도서관
- 늘푸른작은도서관
- 대추골도서관
- 대추동이 작은도서관
- 망포골빛도서관
- 매여울도서관
- 버드내도서관
- 북수원도서관
- 뽀레네 작은도서관 별찌
- 상송마을주공작은도서관
- 새마을문고울천동분회
- 서수원도서관
- 선경도서관
- 소피아도서관
- 솔로몬작은도서관
- 솔향기작은도서관
- 아람작은도서관
- 영통도서관
- 예담 작은도서관

- 울천동 밤밭새마을문고
- 일월도서관
- 작은도서관나비
- 중앙도서관
- 지혜샘어린이도서관
- 창룡도서관
- 책고집
- 천천푸르지오골터
- 칠보마을작은도서관
- 태장마루도서관
- 한아름도서관
- 한림도서관
- 해늘작은도서관
- 해님달님작은도서관
- 호매실도서관
- 화서다산도서관
- 화성2동새마을문고
- 황골작은도서관
- 휴앤꿈작은도서관
- 희망샘도서관

학습동지

(45곳)

- cafe 바를정
- 가치가게
- 갤러리카페 리원
- 경서도창악회 화서지부
- 꽃맘센터 협동조합
- 나모카페
- 다전1973
- 더 가든
- 더 커피 비움
- 더데이지 카페공방
- 데일리치킨카페
- 매홀재
- 메종드 커피
- 목공방 수리수리 다수리
- 몽글커피
- 문예공간 갤러리카페
- 별터 온(ON)
- 베로니체 공예

- 별나들이
- 북카페 구르미
- 비티제이 카페
- 서정길 커피하우스
- 선한이웃
- 소담소담
- 손놀이&마을카페놀이터
- 수다쟁이
- 아마이심신 치유 연구소
- 에버그린(카페)
- 유노
- 이건희인두화창작소
- 저스트콤마(JUST COMMA)
- 지오그래피
- 진옥제 인성예다 교육원
- 카페 버닝
- 카페 스트리트54
- 카페 포레스트
- 커피내음
- 커피마마
- 커피인우드
- 커피하는 사람들
- 커피하우스
- 해세처럼
- 해인철학원
- 행복한산책
- 향기도예

독립서점

(25곳)

- 광고푸른숲도서관
- 88and1
- 경기서적
- 공존공간
- 그런의미에서
- 꽃길책길
- 나무아래책방
- 낮설여관204호
- 담해복스
- 대지서점
- 랄랄라 하우스

- 리틀존영통문고
- 마그앤그레
- 백년서점
- 브로콜리숲
- 삼월책방
- 서른책방
- 서아책방
- 아무컨셉
- 오손도손
- 오피큐알
- 책고집
- 책먹는돼지
- 책발전소
- 책방오핑
- 천천히스미는

기타문화공간

(5곳)

- 롱플레이어
- 살롱시소
- 수원 예술공동체 솔래
- 수원행
- 티엔아트컴퍼니

학습공동체

(68곳)

- 7040의 멋진날
- 공공그림책모임
- 공부하는 주부들
- 공존하는 도시양봉가
- 광고 독서 모임
- 그런의미에서(와글와글)
- 글향아리
- 꿈꾸는 고래등
- 꿈자리안전자리
- 나리책사랑모임
- 나침반(시민기획단)

- 낮설여관204호
- 내생각, 네생각, 우리들 생각
- 놀이문화기획단
- 다전다회
- 담해복스
- 도깨비
- 독서토론리더과정
- 동화마주
- 두드려
- 뜨개뜨개
- 랄랄라 하우스
- 롱플레이어
- 말벗봉사단 '아우름'
- 모어나홀라
- 뭐라도야그팟캐스트
- 미지
- 바라봄
- 북을부르는 우리민화
- 사단법인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수원지회
- 살롱시소
- 상호문화모임 있다
- 생명밥상
- 수다글쓰기
- 수원 캘리그라피
- 수원행
- 수원화성청년문화발전소
- 시니어일대일컴퓨터사업단
- 아무컨셉
- 아트그라운드
- 알레테이아
- 언플러그드우드카빙
- 영어꿈꾸다
- 오손도손
- 오픈테이블
- 온동네살피미
- 우리 동네 사랑방
- 우만동주민참여위원회
- 유유자적(시민기획단)
- 이건희인두화창작소
- 이야기밥
- 이야기사랑
- 인문학기획단
- 자급자족
- 좋은3과4연구소

- 지구사용 공부방
- 지오그래피
- 진로맘
- 책살림
- 책읽는당신
- 초보농부
- 추천서가 기획단
- 취향마이
- 한국인두화
- 행궁낭자
- 호모루덴스
- 화서동문화사랑방
- 화요거북이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록 3.
활동수기공모이벤트
수상작



평생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사 오니 동지를 틀기가 쉽지 않았다. 일을 놓은 데다 겨울이라 체감온도가 더 낮게 느껴졌다. 나무도 옮기면 몸살을 앓는다는데 하물며 사람이라. 내 몸 움직여 뿌리를 내리기로 작정하고 동네 투어부터 시작했는데 가까운 곳에 평생학습관이 있었다. 무심코 사무실에 들러 알아봤더니 신중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줄을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양한 강의와 주제별 토론폰도 열리고 요일마다 독서 모임이 있어 취향에 따라 참여할 수 있었다. 속으로 유레카를 외쳤다.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답을 순간에 얻은 느낌이었다.

마침 “뭐라도학교” 인생수업이 접수 중이었다. 학교 이름이 특이해 물었더니 뭐라도 배우고, 뭐라도 나누고, 뭐라도 즐기고, 뭐라도 하자는 학교란다.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등록했다. 같은 세대를 살아온 공감대와 또래라는 연결고리가 있어 금방 친해졌다. 인생 축 세우기- 끈대가 아닌 꽃대로, 백세 시대 일과 놀이, 노후의 경제생활, 대중문화 트렌드 읽기, 품위 있는 대화... 매주 이어지는 강의는 인생 후반부에 들어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입문서 같았다. “삶은 끝이 있지만 삶의 세계는 끝이 없어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 한다.”라는 말을 굵은 글씨체로 눌러 적었다.

인생수업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수료와 함께 비슷한 성향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여러 개의 모임이 새로 만들어졌다. 어렸을 적에 손가락 높이 들고 “함께 놀 사람 이리 모여라.” 했던 것처럼 원하는 동아리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나도 몇 개의 방에 이름을 올렸는데 바로 옆 “뭐라도야그팟” 보드는 썰렁했다. ‘어긴 왜 사람들이 안 모이지?’ 왠지 썰렁한 그곳에 마음이 쓰여 다른 곳에 올렸던 이름을 떼다가 그 방에 붙였다. 단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주제를 정해 얘기를 나누는 팟캐스트란다. 야그팟이라, 오, 예! 내가 또 한 입담하잖은가. 그런데 몇 번 다니다 보니 급하게 후회가 밀려왔다. 입만 나불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세상에나, 라디오 소리 나오는 이치를 배워야 한다지 않은가.

매주 수원영상미디어센터에 모여 교육을 받았다. 기계치 중에서도 왕 기계친데 복잡한 것을 마주하니 골치가 아팠다. 기껏 가르쳐주면 엉뚱한 소리나 하고 한 주가 지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젊었을 땐 똥 하면 파리, 엉 하면 모기인 줄 알았는데 어쩌다 이리 멍청해질까? 자리나 지키자고 억지로 나다녔는데, 갈수록 솔솔 재미가 붙었다. 이 나이에 어디서 이런 디지털 세계를 경험해 보겠는가. 그러나저러나 세상 참 좋아졌다. 전에는 가정 실태 조사서에 라디오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정도로 귀한 물건이었는데 요즘은 나같이 아날로그적인 사람도 방송 만드는 과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새로운가.

기초 과정을 배우고 나서 매주 모여 토크를 하는데 신바람이 났다. 지랄만 총량의 법칙이 통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데도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걸까? 내 젊은 날 별명은 “독일 지퍼”였다. 나치 군복에 달린 단단한 지퍼처럼 한번 달히면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렸는데 오십이 넘으면서 고장 난 지퍼가 되어버렸다. 젊을 때 꼭꼭 눌러 두었던 말이 터져 나오는지 입을 벌렸다 하면 도무지 닫히질 않는다. 하고 싶은 말이 쌓였는데 마이크를 대주니 물 만난 고기처럼 퍼덕었다. 나이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한다는데 이러다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까 걱정이다.

공대 출신의 회원이 있으니 기계 다루는 일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해결되었다. 스트레스받을 일 없이 입 맞춰 수다만 떨면 되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돌아가며 주제를 정하고 진행을 맡았다. 직관력 뛰어난 단장님은 회원들의 적성을 살려 말을 시켰다. 우리끼린데 어떤가.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 정부에 바라는 의견도 나왔다. 말을 잘못하면 잡아가던 세상도 있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니 얼마나 좋은가. 남은 삶은 은혜 갚는 데 쓰겠다며 시민학교를 열어 힘든 아이들을 풀어 주시는 선생님께 격을 배우고, 국어를 가르치다 퇴직하신 선생님이 낭송해 주신 시를 들을 때면 소녀 감성에 젖기도 했다. 노래를 좋아하는 분을 따라 흘러간 옛 노래를 흥얼거리고, 내레이션과 선곡을 잘하는 회원 덕분에 귀가 호강했다. 다방면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직 은행장님께 시대의 이슈를 듣고, 공무원으로 퇴직한 회원에게는 공직사회의 전반에 대해 들었다. 지방에서 과수원을 하는 회원의 초대를 받거나 방송국 견학, 잘 나가는 팟캐스트 모임을 찾아 멀리 이동할 때는 그 자체로 소풍이 되었다. 수원시 평생학습 축제에 참여해 동아리를 소개하고 학습 성과물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창 재미가 붙었는데 코로나19가 왔다. 늘 만나 삶을 나누었는데 이 무슨 변고람!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연결고리를 찾다가 매주 동영상 올리기로 했다. 한 주간의 일상을 엿볼 수 있으니 비대면 기간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동영상을 잘 만들기 위해 자막을 넣고 내레이션을 하다 보니 실력도 더 늘었다. 한동안 얼굴을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이제 서서히 코로나19의 끝이 보인다.

전후에 태어난 우리는 샌드위치 세대다. 젊은 날 부모 모시고 아이들 키우며 종종걸음치며 살았으니 놀 자격 충분하지 않은가? 잘 쉬고 잘 노는 것도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이라고 한다. 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명석을 깔아준 놀이터가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이웃들에게 선한 오지랖을 펴며 건강하고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다.

.....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까지 오는 데는 아주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니 삶의 모습이 바뀌가기 시작했다. 이전부터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나의 취향은 알고 있었으나, 취향대로 만들어진 물건을 사는 것에 익숙했을 뿐이었다. 익숙한 편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만드는 행위를 즐거워하게 된 건 깎기 모임에 함께 하면서부터이다.

모임에서는 ‘그린우드카빙’이라는 나무 작업을 한다. 나무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을 때 카빙 나이프로 필요한 것을 깎아 만드는데, 생활과 맞닿아있는 잼 나이프, 그릇, 버터ナイ프 등을 만든다. 일단 칼을 쥐고 깎아보기도 했으며, 어느 날엔 적절한 힘을 칼과 나무에 실을 수 있는 나이프 그림을 배워 좀 더 그럴싸하게 깎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다.

나무를 깎는 소리가 좋았고, 아무 소리 없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아 나무 깎는 소규모 모임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의 모임은 비교적 단순했다. 그저 나무를 깎고 싶다면 모였다. 연습을 열정적으로 한 사람이 있거나 우리 중 누군가가 월등하게 잘 깎아서 멋진 작업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만 비슷한 실력과 비슷한 게으름으로 모이는 것이 좋았다.

내가 함께하기 전부터 만들어졌던 모임이었지만,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이미 스며들 듯 모임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배운 것을 같이 나누고 싶고, 배움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힘을 서로에게 얻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무엇이든 혼자서 시작하기에는 준비시간이 꽤 걸린다. 이렇게 해도 될까,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 만든 것이 괜찮게 보일까 같은 사실은 크게 필요 없는 고민들로 이미 시작 전에 머릿속은 지치고 만다. 하지만 공통된 ‘깎기’로 모여 함께 한다면 소모적인 시간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어느 누구 하나가 그냥 깎기 시작한다. 그럼 깎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냥 깎아 본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번엔 좀 더 손잡이가 길고 무언가를 떠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볼지, 그릇을 만들어볼지, 의자를 만들어볼지 하는 다음을 고민하는 이야기가 오간다. 어떤 날은 나무와 칼만 있다면 깎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어디에서든 모여 보자 이야기하곤 한다. 날 좋은 때에는 공원에 앉아 나무를 깎아본다. 나무를 깎으며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는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기도 한다.

기술적인 부분을 배웠기에 시작할 수 있었던 모임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했던 건 손과 필요에 맞게 써보고 깎아보라며 이야기해주는 우드 카빙 선생님과 계속 깎을 수 있게 작은 것 하나에도 서로 칭찬해주던 사람들과의

시간이었다. 아직도 미숙한 우드 카빙의 결과물을 보고 있다면 서로를 너무 칭찬만 해주었을까에 대해 의심이 되지만 덕분에 버터ナイ프를 넘쳐나게 만들어보고, 다른 것도 만들어볼 고민도 해보지 않았을까 싶다.

날이 추워지고 있으니 우리의 모임은 잠시 쉬어가야 할 시간이 곧 돌아온다. 칼을 써야 하니 손이 얼어버리면 깎는 데는 더욱 힘이 들어갈 것이다. 모임 안에서는 정해진 규칙도, 정해진 시간도 없다. 깎고 싶다면 모인다. 깎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나 깎을 것을 자랑하고 싶다면 모인다. 느슨함이 모임을 이어주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느슨함으로 삶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취향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필요한 도구는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 되었다. 만들어진 어떤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보기도 하고,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었다. ‘산다’는 소비적인 삶에서 ‘만든다’는 행위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만족스러워진다. 가끔은 더 좋은 도구를 사고 싶다는 욕심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깎고 있다.

.....

예술성을 발견하기 위해 저의 이야기를 적어보는 워크지 '취향마이'을 만들고 수원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진행하면서 일상에서 발견하는 문화 예술 학습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일상에서 저의 예술적인 감각을 기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문화 예술 활동의 패턴을 보면 영화를 보고, 뮤지컬을 보고, 책을 보는 등 거의 돈을 내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문화 예술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임에서도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좀 더 각자의 이야기를 만드는 주체적인 문화 예술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답답함에서 시작하였지만, 그것을 학습공동체에서 해결해보고 싶어 경기문화재단에서 공모한 '경기문화예술교육 학습연구모임 3355 지원사업'을 통해 약 6개월 동안 '소셜드림프로젝트 COCOCO'팀과 '손으로 만드는 My life book_취향마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예술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잠재된 예술적 감수성을 깨워 자신의 문화 예술적 취향을 발견하고 일상에서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대안교육을 연구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시도하며 시민들에게 영감을 주는 문화 예술가들을 발굴하여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공론의 장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정해진 목적에 따라 연구 학습, 연구 활동,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학습에서는 책 '예술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를 함께 읽고 토론 주제를 뽑아냈는데 이후 콘텐츠 개발에 중요한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상 예술을 주제로 자유로운 형식의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학습을 통해 문화 예술의 삶의 가치와 철학적인 질문들을 중점적으로 연구 주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연구 활동에서는 오픈 테이블 형식으로 수원지역 시민들을 초대하여 <취향 찾기 설명서: 취향마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콘텐츠를 개발하여 일상 예술의 주체인 '나의 취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일상을 기록하며 창작물로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시도하였습니다. 4명의 연구자가 함께 10일간의 질문을 참여자들에게 제안하고 일상을 기록하고 각자의 예술 감수성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패턴을 찾아 자신을 발견하여 일상 예술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기록한 것을 북 바인딩 형식으로 엮어내는 창작활동까지 이어지면서 일상의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시민 중 한 분은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10일 동안 활동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모습도 싫어하는 모습도 제 취향 중의 하나인가 보다 하게 되면서 자신을 평가하는 모습이 많이 줄었어요. 일상 예술가가 뭔가 거창한 거 같지만 그냥 내 삶을 만족하고 확실하게 취향을 가지고 있으면 예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가를 통해서 저의 일상 예술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가는 저의 원동력이거든요. 특히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고 돌봐서 몸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몸과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저의 행복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요가를 통해 일상 예술 활동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시민이 주체가 되어 누리는 일상에서의 문화 예술 활동 선진지역을 방문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문화 예술 기획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기획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원도심을 돌아봄으로써 지역 안에서 예술가들이 활동하면서 지역에 스며들어 지역문화와 예술문화가 상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습공동체에서 활동하면서 시민들의 잠재된 예술적 감수성을 깨워 자신의 문화 예술적 취향을 발견하고 일상에서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학습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취향 워크숍을 구성하고 콘텐츠를 개발하여 실행했다는 것, 그리고 개발한 도구로 참여자 중심의 워크숍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일상 예술 활동에 대한 관점 변화를 줄 수 있었고, 본인의 예술성을 발견하도록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의 시작

‘독서 모임 함께 하실 분 계신가요?’ 20년 겨울, 맘카페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보통 때면 그냥 지나칠 만한 글인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관심이 갔지요. ‘나도 책을 좀 읽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맘카페 회원 중 약 십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댓글을 달았고, 저도 용기 내어 댓글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단체대화방이 개설되어 초대되었고, 어색하지만 서로 자기소개를 하며 첫 모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끼어들기도 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살피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회원도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한 번도 못 모이고 모임이 없어지나 싶었는데, 다행히 첫 모임 날짜가 결정되었고 저를 포함한 네 명의 회원이 온라인 줌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원모집을 했던 운영자는 네 명이 모이면 모임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임을 없애겠다고 공지했었는데, 딱 네 명이 모여 가까스로 ‘광고 독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임의 매력

첫 모집 글 이후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돌아가며 책을 한 권씩 추천하고, 책을 추천한 사람이 책과 관련한 질문을 준비하고 모임을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벌써 8권의 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년간 독서 모임을 해보니, 책 읽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럿이 함께할 때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책을 골고루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읽기를 하면 좋아하는 작가나 장르만 읽게 되는데, 모임을 통해 읽으면 강제로라도 여러 종류의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해보며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자라는 느낌이 들었지요.

가끔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마음에 위로가 되어 눈물이 슬쩍 나기도 하고, 희망과 도전이 되어 기쁘기도 했습니다. 나이도, 하는 일도, 생각도 다르지만, 독서 모임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었고 서로의 마음에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모임의 확장

처음엔 한 권의 책을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 읽고 있는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빌려 읽기도 하며 책 모임의 내용은 풍성해졌습니다. 관심사가 모두 다르다 보니 추천되는 책도 다양했는데 미술사, 피아노 콩쿠르 이야기책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의 책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술 쪽으로도 관심이 확장되었고, 클래식 공연도 함께 즐기게 되었습니다.

책 읽기 좋은 카페와 작은 동네서점들도 공유하였는데, 꼭 모임이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추천받은 장소들을 다녀보며 책 생활을 즐기게 되었지요. 때때로 책과 관련된 전시회 정보도 공유하는데, 최근에는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2021 국제 도서전을 추천받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책으로 시작된 관심은 서점, 공연, 전시회로 점점 커졌습니다.

요즘 회원들은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문집입니다. 개인적으로 읽은 책 중에 소개하고 싶은 책을 몇 권 골라서 서평, 추천의 글, 감상문 등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써보고 있습니다. 글쓰기는 책 읽기보다 깊은 생각을 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 힘들지만 모임 1년을 정리하고 우리만의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참여 중입니다. 두 번째는 도서 교환 행사입니다. 처음에는 회원들끼리 책을 교환하는 행사를 생각했는데, 현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준비 중입니다. 책을 가져오면 1:1로 책을 교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회원들 간의 우리끼리 행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12월 연말 시즌에 맞추어 열어볼 예정입니다.

맘카페 글에서 시작된 독서 모임이 이렇게 지속될지도 몰랐고 다양한 유익과 기쁨을 줄 것이라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모임을 통해 다양한 책을 읽었고 생각하며 글을 쓰게 되었고 사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은 독서 모임. 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안 할 이유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늦은 가을이 지나기 전에 책 생활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독서 모임의 기쁨을 누리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이 만드는 인문학습지도, 유투공 (Youtube + YOU TOO + 공부)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중에 ‘유투공’이 있다. 2018년 가을에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유투공’이라는 이름을 보면 ‘유튜브를 잘못 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유투공’은 유튜브의 ‘유’, YOU TOO의 ‘투’, 공부, 공유, 공헌, 공공의 ‘공’을 합친 합성어이다. 유튜브 영상을 함께 보면서 공부한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공부는 입시 공부가 아니다. 주머니 받거나 서로 생각을 나누고 다지는 ‘광장 토크’, ‘오픈 토크’가 우리의 공부다.

2018년 9월 ‘유투공’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학습관에서 시민 참여단을 모집했다. 참여한 시민은 인문학습지도 유투공과, 유투공을 함께 만드는 시민기획단 ‘유유자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김재민 님(학습관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유투공’의 매력에 빠진 시민 네 명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골라 학습관을 찾는 시민들과 토론의 장(場)을 펼칠 준비를 하였다. 유유자적의 구성원이 된 것이다.

우리는 각자 평소에 관심 있는 주제와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창 시절 관심 있었던 분야, 혼자 시작하고 싶는데 용기가 안 나는 분야, 그냥 궁금한 분야, 요즘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데 정작 나는 잘 모르는 분야, 살면서 해결 방법이나 대책을 마련해보고 싶어 답답한 분야 등 무엇이든 괜찮았다.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회의를 통해 ‘유투공’의 커리큘럼이 만들어졌다.

주제와 관련 영상을 정하고, 프로그램이 선정되면 학습관 홈페이지에 올려졌다. 홈페이지를 통해 유투공을 신청한 시민들이 모여 함께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명인이나 전문가 가끔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의 영상을 보았다. 인상 깊었던 부분, 새로 알게 된 사실, 강연 내용과 다를 수도 있는 각자의 생각을 펼쳤다. 시민들이 스스로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인문학습시간’이었다. 유투공을 진행하는 유유자적 회원은 강사가 아니다. 그 시간을 함께하려고 모인 시민들에게 ‘READY! GO! STOP!’ 신호를 알려 주는 신호등 역할을 했다.

학창 시절부터 미술 교과서 보는 것이 취미였던 유유자적 단원은 ‘미술과 친해지기’로 유투공을 시작했다. 미술에서 나아가 사진이나 건축 등 다양한 영역으로 주제를 넓혔다. 여러 사람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유투공 수업방식에서 ‘스트레스 해소’라는 주제를 생각해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물처럼 계속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딸려 나온다.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는 아무래도 관련 책이나 영상을 본 경험이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새로운 사회현상이나 시대변화에 관한 주제는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영상을 찾기도 한다. ‘유투공’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또 다른 유투공의 주제를 찾아내기도 한다. 굳이 그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많아야 그와 관련된 ‘유투공’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유자적’ 단원에게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는 ‘유투공 유유자적’이다.

2019년 봄, ‘Who am I?’(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름으로 ‘플라톤 아카데미’ 영상을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다. 평소 인문학은 나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였다. 더구나 철학은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여서 감히 생각도 해 보지 않았다. 영상으로 접하고,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유투공 인문학을 개설했다. 나에게도 도전이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시민 한 분이 “뭐, 이런 개똥철학이 다 있어”라고 하셨다. 당황스러우면서도 피식 웃음이 났다. 나도 인문학 강연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인 경우가 많았으니까. 다른 한 분이 말했다. “도대체, 소크라테스는 어떤 책들을 읽고, 어떤 멘토가 있고, 어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탁월함(Arete)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표(師表 : 학식과 덕행이 높아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음의 당(糖)이 떨어질 때면 학습관으로 인문학 수업을 들으러 오신다는 시민이 던진 궁금증은 함께 한 이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멘토’라는 말 대신 ‘사표’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일을 그만둘 때 쓰는 것만 사표인 줄 알았는데... ‘나 원 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는 알고 있었으나, 그날 그렇게 또 하나의 지식을 챙겨왔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하는 말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산파술 아닌가요?”라고 해서 모두 웃으면서 공감했다. 인문학은 왠지 어렵게 느껴진다고 했더니, 한 시민이 “인문학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씻어야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집을 나설 때 인사하고 그냥 그 모든 올바른 행동에서부터 인문학이 시작되고 쌓이는 것이지요.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모여서 생각을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것까지”.

유투공 시간을 여행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영상에 나오는 유명인이 하는 말은 조금은 어렵고 거리가 느껴지고 공감이 어려울 때가 있다. 유투공 시간에 옆에 앉은 시민이 들려주는 자기의 경험에서 오는 이야기와 다독임이 더 가슴에 와 닿는다.’ 나에게 조금은 인문학을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게 하는 시간이었다. 읽고 듣고 말할 때는 고개 끄덕임이 절로 나오는데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더 많은 ‘인문학습지도’가 필요한가 보다.

2020년 1월까지 일 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시민과 함께한 인문학습지도에 적힌 이름이다. 「경제를 보는 눈」, 「글쓰기 입문: 왜 쓰는가?」,

「글쓰기 실전: 쓰고 읽고 나누기」, 「매주 한 줄이라도 글을 써요」, 「Who am I?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 심리학」, 「미술과 친해지기」, 「당신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피부에 와 닿는 경제 공부 시작하기」, 「부모학교:몸으로 가르치기」, 「뮤지컬 좋아하세요?」, 「여행 좋아하세요?」, 「과학과 친해지기:뇌과학의 세계」, 「출발! 유투공 문학여행」, 「교육과 창의력」, 「포토 토크」, 「과학과 친해지기」, 「글쓰기로 내 삶의 주인 되기」, 「부모교육:없어지는 직업, 걱정되는 아이 진로!」, 「부모교육: 4차 산업혁명과 밥상머리 교육」.

2019년 가을, 2기 유튜버적 회원이 합류했다. 6명의 유튜버적 회원은 2020년 더 활기찬 걸음을 걷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19’로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멈추었다.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기되었다. 인문학습지도에 이름을 적지 못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이곳저곳에서 zoom으로 강의가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온라인 유투공’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강연이 열리는 곳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유투공’으로 넘었고, 학습관에 모이는 것을 ‘zoom 화상회의’로 해결하면 어떨까? 집에서,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요일과 시간을 정해 온라인으로 유투공 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떨어져 있으나, 한 곳을 바라보며 소통하는 것이다. 기기를 사용하는 익숙함으로 인터넷 예절을 지킨다면, 나눔과 공유에 제약은 없다. 이동 시간도 줄여준다. 일거양득이다.

2021년 6월 드디어 ‘유투공’이 zoom으로 시민과 만나기 시작했다. 네모난 컴퓨터 화면으로 만난 이들은 스스로없이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하는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면대면(面對面)이 그림고 그림지만 이렇게 또 다른 문화를 만들고, 정착시켜간다. 유튜브는 다양한 정보들이 매일매일 올라오는 ‘대중들의 또 다른 도서관’이라고 생각한다. ‘유투공’은 무궁무진한 유튜브 영상을 시민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바빠지고,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낀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배우고 싶은 것을 누군가와 함께하면 그 만족감은 배가 된다.

‘유투공’ 시간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공감해 주고,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알게 해 준다.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과 나누는 이야기가 힐링의 시간을 가져다준다. 나도 모르게 자아 성찰을 하게 하는 ‘유투공’이다. 많은 수원 시민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민 인문학습지도 유투공’을 손에 들고 열정 가득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하면 좋겠다. 학습관에 들어서면 보이는 글이 있다. ‘혼자 배우면 현명해지고 같이 배우면 행복해진다.’ 참으로 와 닿는다. ‘유투공’에서 같이 배우면서 우리 함께 행복해져요!

느리지만 건강하고 함께

50세에 나는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자가 되었다. 퇴직을 앞둔 남편은 대학생인 아이들이 아직 취업하지 않은 시점에 부부 둘 중 누군가는 일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권했다. 당장 먹고살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퇴직 시기의 언저리에 남편이 겪고 있을 불안이 이해되어 동의했다. 단 하나 걸리는 것은 몇 년간 활동해온 화요일 오전의 목공 동호회였다. 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동호회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선택을 해야 했다. 일이나 목공이나... 나는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많은 아쉬움 속에 동호회에 휴식을 선언했다.

늦은 나이에 새로 시작한 일은 고되었고 피로했다. 몸이 힘든 것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지만, 최저시급 노동자로서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기는 쉽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동호회에서 목공을 하면서 느꼈던 최고의 몰입과 집중의 순간을 떠올렸다. 다 같이 하나의 가구를 만들고 설계를 상의하고 기계로 목재를 정확한 크기로 재단하고 직각을 맞추어 조립하고 튼튼한 구조를 위해 고민하던 그 순간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샌딩(연마) 작업을 마친 매끈한 목재 표면을 만지는 순간의 희열, 대패로 목재를 미는 순간의 대패가 내는 스윽 소리와 나무 향기... 혼자서 작업하면서도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같이 하는 작업의 기쁨, 다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발전하는 목공 기술, 힘든 작업 후 다 함께 나누어 먹는 도시락과 간식, 그런 소중한 기억들이 눈물이 나게 그리웠다.

그즈음에 목공방이 속해 있는 수원시평생학습관의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목공방의 존폐가 위기에 놓였다는 말이 들려왔다. 이를 막기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고 동호회 활동을 쉬고 있던 내게도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들어온 공방은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나는 가지런하게 정리된 도구들, 기계들을 만져보면서 감상에 젖었다.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아니, 쓰나미였다.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나무가 주는 위로. 숨을 쉬기 위해서 공기가 필요하듯 목공 동호회 화요거북이가 주는 위안이 절실했다. 결국 많은 이들의 노력이 모여 목공방은 유지하기로 결정되었고 나는 일을 그만두고 화요거북이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내게 왜 목공을 하냐고 묻는다. 힘들고 돈도 안 되는데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일을 왜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큰 흐름 속에 매몰되어서 살다 보면 지금의 나처럼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지금이 백세 시대라고 하면 나는 인생의 반환점을 막 돌아선 시점에 놓인 셈이다.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잘 정리할 것을 준비해야 하는 때다.

나무는 비효율적이다. 느리고 비싸고 손도 많이 간다. 계속 관리해주어야 하니 더욱 그렇다. 하지만 내가 만들 수 있고 지속이 가능하고 주변 환경과도 어울리며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아름답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무는 내게 말해준다. 더디고 힘들고 오래 걸리는 길도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엉덩이가 닿는 상판이 커서 편안하다고 하면서 딸이 앉아서 밥을 먹는 스툴은 그 애가 아기 때 쓰던 원목 침대를 잘라 상판을 대고 다리는 쓰고 남은 각재로 만든 재활용 스툴이다. 딸이 식사를 마치면 나는 그 스툴을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로 가져가서 줄자, 종이, 연필을 올려놓은 다음 세탁기 옆에 애매하게 남은 공간에 놓을 선반을 설계할 것이다. 만 원 한 장이면 당장이라도 살 수 있는 선반이지만 내가 원하는 크기와 구조로 시간을 들여 만드는 기쁨과 사용하면서 느낄 만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나만의 즐거움이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함께 하면서 기쁨을 나눌 동료들이 화요거북이에 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모임 - 수다와 글쓰기

수다와 글쓰기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매주 주제를 정하죠. 모임을 마칠 때 다음 주 주제를 제안받습니다. 지난주에는 ‘밥’이었고 이번 주는 ‘10월’입니다. 그러면 각자 그 주제를 화두 삼아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보고, 그 생각의 과정이나 끄트머리를 붙잡고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는 거죠.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한 편씩 써서 참가하기도 하고 ‘빈손’으로 참가해도 괜찮습니다.”

재밌겠는데요?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같은 주제를 두고 상당히 다른 생각들이 자유롭게 펼쳐져요. 자기 생각을 얘기할 기회도 되고 다른 생각을 듣는 기회도 되는 거죠. 어쩌면 수다와 글쓰기의 매력은 말하기보다 듣기에 있지 않나 싶은 정도로 듣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공감의 힘이랄까 집중의 진지함이랄까.”

그래도 글을 매주 쓰는 건 부담스럽겠는데요?

“빈손 참가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저부터 글 없이 참가하기도 하거든요. 부담이 없어야 모임에 계속 올 수 있지요. 어떤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즐기면 됩니다. 그러다 한두 편씩 글을 쓰게 되면 재미도 늘고 글의 완성도도 높아지더군요. 사실 글쓰기에 대한 욕구는 대체로 높는데 실행하기는 참 어려워서, 굳이 글쓰기를 요구하지 않는 느슨한 방식이 수다와 글쓰기를 오래 해온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자기 글을 가져오면 더 좋습니다. 자기 글을 자기가 읽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귀를 쫑긋, 눈을 반짝하며 집중해 주는 그 느낌이 썩스럽지만 참 기쁩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 글에 소감을 말해주는 소중한 독자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글을 써 가면 나의 이야기를 할 시간이 늘어나고 나(의 글)에 대해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수다와 글쓰기는 언제 시작하셨던 거죠?

“2015년 1월에 매탄4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했어요.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연계해서 ‘마을에서 누구나 어떤 강좌든 진행할 수 있다’는 누구나학습마을의 강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습동아리가 되기도 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면서 2019년 12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적을 때는 셋이서 하기도 했고 많을 때는 열 명 내외이기도 했습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니 공간 사용이 편리하고 안정적이었죠. 연말에 전시회를 할 수도 있었고 약간의 보조를 받아서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별문제는 없었지만 조금씩 의존성이 생기거나 성과를 보여주려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자라더군요. 2019년 내내 독립된 공간을 구해서 나가려고 애썼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걸어 다니는 범위에서 만난 회원들이라서 장소가 멀어서도 안 된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모임을 미루고 미루다가 1년을 내리 쉬었습니다. 2021년 2월이 되어서야 세류동에 있는 '가치가게'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새로 구성된 회원들과 함께 온라인 줌으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던 관성이 있어서 걸어오지 않고,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모임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주저했습니다만, 사는 곳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나름의 장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대략 6년 정도 했나 봐요. 올해는 글쓰기 외에도 5월에 '맥주와 함께 보는 영화'도 진행하고 '칠보산 숲 걷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장 보람 있었던 경험이라면?

“나의 성장이죠. 지난여름, 4주간의 방학 동안 '4주'라는 주제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살았어요. 나에 대해 주목하면서 계속 들여다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변하는 거예요. 폭발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웃었다가 편안하게 내려왔다가는 다시 폭발. 이렇게 변하는 내 감정을 알아차리면서 나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걸 끄적끄적 글로 써서 사람들 앞에 내놓았는데, 민망하기도 했지만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임을 오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즐기게 되었죠. 듣고 이해하고 맞장구치면서 재미를 느끼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가치를 뺏쳐서 꺼내놓는 이야기들에 매번 놀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런 모임을 잘 운영하는 요령이 있을까요?

“가족과 직장을 제외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모임과 관계는 꼭 필요합니다. 이런 균형이 잘 유지되어야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 정말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수다와 글쓰기를 5년이나 하는 내내, 당위로 하고 있는지 좋아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불쑥불쑥 들었어요. 회원이 줄어들거나 크게 늘어서 챙길 것이 많아지면 이 모임을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지요. 결국 수다와 글쓰기를 그만해도 되겠다, 이 모임이 없어져도 되겠다는 생각에 도달하고서야 마음 안에서 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그제야 혼자라도 하면 좋겠다 싶어졌죠. 그때부터 글이 안 써질 때는 빈손으로 갔고 빠지고 싶은 날은 빠졌어요. 그랬더니 더 가볍고 즐거워지더군요. 회원들에게도 좋으면 오시라고, 남에게 미안한 마음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시라고 늘 얘기합니다.

나이 마흔을 넘기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도 될 만큼의 여유가 생겼다. 막상 그런 여유가 생기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채화도 배워보고, 탁구도 쳐보고, 재봉도 돌려봤지만, 그 시간이 손꼽아 기다려질 만큼의 설렘은 없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주 만날 것 같은데, 뭐라도 함께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독서토론티더'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다.

논제를 만들어서 하는 토론은 매우 색다르게 다가왔다. 온전히 책에 집중해서 저자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시간은 참 오랜만에 나에게 설렘을 주었다. 다른 수강생 분들도 비슷한 심정이었는지 수업이 끝난 후에 자발적으로 책 모임이 꾸러졌다. 매주 새로운 책으로 논제를 만들어 토론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써야 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 듯, 나의 일주일은 책모임을 중심으로 맞춰져요”

몇 달쯤 흐르자 모임 구성원 중 한 분이 이런 주옥같은 말씀을 내뱉었다. 우리 모두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찌면 저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을까.” 하는 탄성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나는 평생 책을 별로 읽지 않고 살았는데, 1년 반 동안의 그 시간이 내 평생 독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니 지금 생각해도 매우 뿌듯한 시간이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지만, 함께 하는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게 책 모임이 내 삶에 온전히 자리 잡을 무렵, 시간을 더 쪼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즈음 김재민 선생님이 '유투공'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나는 바로 합류했다. 학습관에 다니기 전에도 혼자 유튜브로 다양한 명사 특강을 듣고 있긴 했지만, 이미 책 모임을 경험한 터라 함께 모여 공부하는 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투공을 수강하는 것과는 달리 유투공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다. 책 모임에서는 진행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유투공은 매주 내가 영상을 뽑고, 진행을 맡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해당 분야의 석박사도 아닌데, 괜히 진행하다가 망신이라도 당하면 어찌지 하는 부담이 있었다.

김재민 선생님은 “평소 내가 해보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라, 심지어는 영상을 보지 않고 봐도 된다. 학습자와 똑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라” 하고 부담을 낮춰주는 말로 독려했다. 그래서 선택한 분야는 '뇌과학'이었다. 그렇게 '뇌과학 유투공'을 준비하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

모일 생각에 부담은 어느새 사라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다.

나처럼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뇌과학 유투공이 진행되는 4주 동안 네다섯 분이 꾸준히 참석하셨고, 우리는 ‘뉴런, 시냅스’ 등 뇌과학 전문 용어를 익히며 실컷 이야기를 나눴다. 시험을 위해 억지로 공부하던 학창 시절과는 달리, 성인이 되어 내 삶의 경험을 곁들여서 하는 공부의 재미와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영상을 함께 보고 난 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자체가 즐겁기도 했지만, 지식 면에서도 혼자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기뻐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는 ‘글쓰기 유투공’을 꾸려보았고, 올해는 ‘철학 유투공’ 모임을 하고 있다. 내가 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책 모임이며 다른 유투공을 해오면서 함께 하는 공부에 관한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시도다.

이렇게 책 모임과 유투공처럼 학습관에서 ‘공부모임’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나의 편견이 많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왔다면, 공부 모임을 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동안에도 지인들과의 대화를 즐기며 살아오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곁에 남겨 편견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습관에서의 모임은 내 삶에 설렘을 찾아주었을 뿐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는 확신이 든다. 올가을엔 일이 바빠서 모임을 잠시 쉬고 있지만, 12월에는 다시 ‘철학 유투공’ 모임을 할 예정이다. 이제 두려움은 없다.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12월을 기다리며 철학 공부를 하고 있다.

나에게 설렘을 찾아주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신 학습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혼자 놀기에서 함께 놀기로

기본적으로 낮가림이 심한 나는 무엇을 하든 혼자 하는 것이 편했다. 밥도, 놀기도, 책도, 여행도 언제나 혼자.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거나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 선택하는 것이 편했더라. 무엇보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색한 첫인사를 하고,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라는 식의 인사로 시작하는 관계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니 낮가림은 그저 핑계일 뿐 인사치레로 시작해 가심으로 휘발되어 사라지는 관계에 지쳐있었던 것 같다.

어찌어찌 직장을 수원으로 옮기면서 거주지도 옮기게 되었다. 마음 둘 곳 없는 환경 속으로 푹 떨어지고 보니 그즈음의 나는 어쩐지 사람이 그리워졌다. 하릴없이 화성을 한 바퀴 돌거나 행궁 광장이나 방화수류정 벤치에 앉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지켜보기도 하고, 핫하다는 행궁동과 광교의 카페를 찾아다니는 게 주말의 일과였다. 이마저도 금방 흥미가 떨어졌다. 어딘가에서 뭔가를 배우거나 활동에 관심을 가진 것도 이때쯤이었다. ‘그래, 이 정도면 혼자 신나게 놀았지, 이제 뭘 좀 배우면서 사람도 만나야지’라고 합리화했지만 나는 안다. 내가 외로웠다는 걸.

생각보다 수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만날 수 있었다. 촌스럽게만 느꼈던 문화센터나 학습기관, 복지관에서도 내 생각이 무색해지리만큼 수준 높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딱딱한 행정, 고지식한 직원들, 닫힌 공간만큼 높은 소통의 벽...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편견들이 내 안에 얼마나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사업은 다양했고, 배울 거리는 풍부했으며 담당자들은 참여자의 의견을 수용하려 노력했다. 말 그대로 여러 활동을 내 입맛에 맞게 골라잡을 기회가 열려있었다.

나는 강사에게 배우지만, 작업은 혼자 할 수 있는 우드카빙을 점찍었다. 집에서 여행 가서도 나무와 칼만 있으면 소소하게 작업해볼 수 있으리라. 함께 배운 후 슬그머니 빠지는 것을 목표로 나이프를 잡는 법, 나무의 결을 보는 법, 꺾질을 벗기고 모양을 그리고 깎아내는 법을 배웠다. 이미 오랜 활동을 해 온 모임원들은 능숙하게 숟가락과 버터나이프를 깎았다. 낮설고 어색해서 말 걸기도 쑥스러웠는데 어떻게 깎았는지, 얼마나 다듬었는지를 어느새 묻고 있었다. 후크 나이프는 어떻게 잡는지, 숟가락 속을 어떻게 파내는지 강사님이 아닌 함께한 모임원들에게 배웠다. 나무를 어떻게 구하고 나이프를 어디서 사는지도, 내 수준에 적합한 수업이 어디에서 진행되는지를 알려준 이들도 모임원들이었다. 모여 깎으면서 의외로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물어보고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든든했다. 모임 시간이 끝나가는

게 아쉬워졌고 다음 모임이 기다려졌다. 함께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거웠고, 끊임없이 깎아내며 잡생각이 비워지는 신선한 경험도 좋았다. 몸을 쓰는 것의 즐거움과 하나를 완성했다는 성취감은 아픈 손목보다 더 큰 질감으로 다가왔다.

내 손으로 깎아보니 작은 물건들의 쓰임을 조금 더 고민해볼 수 있었고, 필요한 것들은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가 밀려왔다. 카빙에서 시작한 나의 손작업은 어느새 작은 손가방을 만드는 바느질, 위빙같은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또 손으로 만드는 과정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다 보니 버리지 않는 삶과 공유하는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실천을 고민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모임원들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사람들과 다르게 직업은 뭔지, 결혼은 했는지, 나이는 몇인지, 집이 전세인지 자가인지 따위는 묻지 않았던 거였다. 나의 일상을 불평하지 않고, 서로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그저 같은 취미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은 것뿐이었다.

나는 취미공동체가 이렇게 소모되지 않고 고요하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인간관계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만 지속되고, 사람이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의 일상에 받아들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관계 속에서 남는 것은 결국 허무함이며 누군가를 잃는 것 역시 불가항력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 모임을 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이제는 ‘함께’의 의미를 어렵듯이 안다. 혼자 노는 것도 즐겁고 편하지만, 취향이 맞고 마음이 맞는 친구와 ‘같이’ 노는 것의 즐거움도 안다. 혼자 보는 책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책을 읽고 나누는 과정에서 더 많은 배움이 있다는 것도 안다. 서로 나아가는 속도는 다르지만 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 주는 안도감, 나는 그런 안도감을 바라왔는지도 모르겠다. 수원에 와서,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동질감과 다정함의 근원은 무엇일까. 여전히 나는 관계에 대한 긴장과 경계를 놓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은근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은 이미 함께 놀기에 한 발을 들인 때문이 아닐까.

지은희

‘고래등’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 고마워요.

저의 이름은 차미옥입니다. 고향은 중국이고, 한국에 온 지는 7년, 고등동에는 3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고등동은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우연히 동네를 돌아보다가 ‘고래등 24시 마을 공유소’라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곳이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호기심에 방문한 뒤,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저와 비슷한 외국에서 이주해온 친구들에게 알려줘 같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던 중에 선주민 마을 활동가분의 도움으로 공동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임을 만들어 운영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7명의 친구와 ‘꿈꾸는 고래등’이라는 예쁜 이름의 모임을 만들고 선주민분들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에서의 취미, 학습 프로그램과 이주민공동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주민공동체 사업은 외국인과 선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외국 사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고 아기들이랑 무엇을 할 시간을 얻거나, 선주민과 알아보면서 사이를 더 가깝게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타국에 와 살면서 비록 힘들지만 이런 좋은 활동이 있어서 외로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올해 5월부터 공예, 바느질 수업, 도자기 꽃 공예, 요리 교실, 한글 교실에 참가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뜻깊은 프로그램은 요리 교실과 한글 교실이었습니다. 요리 교실에서 한국 음식은 물론 일본 음식, 중국 음식 등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만들고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요리를 소개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만든 음식을 공유 냉장고에 넣어서 이웃 주민들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 마을에 살면서 보니까 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공유 냉장고의 음식을 들고 혼자 계시는 분들께 가서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눔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한글 교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7년을 살았지만, 한국어를 잘 못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한국어 교실도 개설해 주어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반년밖에 안 되었지만, 전보다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어를 계속해서 배울 생각입니다.

이주민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외국인들도 무료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아이들도 참여할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은 아이들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주민공동체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이가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아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프로그램 참석 전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와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루를 지내는 것이 매우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석 후에는 하루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니 새롭고 행복했습니다.

고등동에는 다른 동네보다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고래등에 아이들 방과 후 취미 교실이 생긴다면 아이들도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부모님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마을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 고등동에 이사 왔을 때는 오래된 집도 많고 주변에 쓰레기도 많았는데 지금은 새집도 많아지고 분리수거도 잘 되고 길에 막 버려져 있던 쓰레기도 적어졌습니다. 특히 예쁜 꽃들이 많아져서 마을이 많이 변했습니다.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덕분에 마을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주민들도 동참해서 쓰레기봉투도 나누어 주고, 집마다 방문해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 정보를 전해 주고 다 같이 좋은 활동도 하면서 동네 친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도시재생은 마을을 깨끗하게 가꾸고 마을을 더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고 집 앞 화초들도 예쁘게 가꿔 주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해 주는 모든 고등동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같이 파이팅 합시다.”라고 전해 주고 싶습니다.

차미옥

부록 4. 학습공동체 활동 사진



아무권선



수다와 클쓰기



상호문화모임 있다



다전다혜



호모루멘스



살롱시소



멜로디이어



지오그라피



수원캘리그래피



남서여관



공공그림책모임사전



북문부리는 우리민화



일데테이아



동화미주



지구사랑공부방



우만동주민참여위원회



아트그라운드



이웃커뮤니티



도깨비



책살림



희망샘인문학기행단



좋은3과4연구소



인플러그우드카펫

2021 문화인재양성과정 수원은학교
학습공동체 활동수집프로젝트

활동비책 Part 1.

엮은이 조혜미

펴낸이 이선옥

펴낸일 2021. 12. 15.

펴낸곳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활동수집그룹 소셜드림프로젝트COCOCO

디자인 김혜린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11(남창동)

전화 031-290-3545

팩스 031-290-3590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www.swcf.or.kr

문화도시수원 인스타그램 @sw_culture

유튜브 @문화도시수원

블로그 blog.naver.com/swcf_kr



수원시
SUWON CITY

수원문화재단
SUWON CULTURE FOUNDATION

오름
ORUM SUWON